

# 統一問題解說集

1974. 8.

國土統一院



## 머 리 말

韓半島의 統一은 우리 民族의 夙願이다.

民族的 夙願인 統一을 達成하는 데에는 非武力的이며, 平和的인 統一만이 唯一한 統一方案임을 굳게 確信하며 그동안 우리 政府가 推進해 온 꾸준한 平和統一 努力 내지는 統一方案을 체계적으로 엮어서 소개하며 그것을 뒷받침해준 確固한 理論이나 비론이 있음을 밝혀서, 北韓이 또다른 南侵을 위하여 일촉즉발의 軍事的 緊張狀態를 造成하는 암담한 時期에 있어서 조차, 우리 政府가 變함없이 平和統一을 追求하기 爲한 努力을 拋棄하지 않을 것이라는 決意를 밝힘으로서 韓半島 統一展望에 對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할 지도 모를 國民에게 統一이 기필코 達成되고야 말 것이라는 希望을 提示하기 위한 目的에서 이러한 冊子를 펴내었다.

그러나 平和的 統一을 우리 國民과 政府가 아무리 열망하더라도 北韓이 이에 應하지 않거나 또는 이에 應하는 策 하면서 實際로는 武力的 赤化統一만을 實現하려고 한다면 韓半島의 平和的 統一은 不可能할 것이다. 따라서 北韓이 그동안 推進해 온 武力的 赤化統一政策을 分析, 提示하여 우리 國民의 이에 對한 認識을 높힘으로써 철통같은 國內的 國民總和를 達成하고 우리 政府의 平和的 統一方案을 굳건히 支持하도록 하는 것만이 北韓으로 하여금 赤化統一이 不可能하다는 것을 스스로 認識하도록 하며 우리 政府의 平和的 統一方案을 受諾하도록 하는 唯一한 方途가 될 것임을 생각할 때 南北韓 統一政策을 對比하여 수록한 冊子의 必要性은 더욱 절실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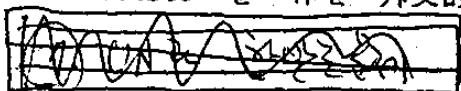
從來의 統一問題에 關한 冊子들은 단편적 問題를 中心으로 엮어진 것 밖에 없었으므로 이번 機會에 南北韓의 統一政策뿐만이 아니라 그의 統一에 關한 많은 問題點을 망라하고 이를 集大成해 보려고 努力했던 것이다.

그러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비되었을 뿐 만족할만한成果는 거두지 못했다고 스스로 評價하고 있다.

앞서 말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綜合的인 統一問題 解説書を 엮어보려고 一次的으로 試圖해 본 것에 不過한 點을 양해하기 바라면서 차후 補完 修正을 게을리 하지 않고 보다 훌륭한 冊子로 發展시키겠다는 計劃을 밝힌다.

정책 기획실장 이 회 영

# 目 次

第一部 統一問題의 性格 .....	1
1. 分断의 背景 .....	3
2. 統一의 要請 .....	6
3. 統一의 概念 .....	9
4. 統一의 原則 .....	11
5. 統一의 要件 .....	13
6. 統一의 時期 .....	16
第二部 統一과 關聯된 國際問題 .....	19
1. 南北關係의 國際性 .....	21
2.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	29
3. 日本의 對韓半島 政策 .....	32
4. 蘇聯의 對韓半島 政策 .....	35
5. 中共의 對韓半島 政策 .....	38
6. 周邊強大國 關係가 統一에 주는 影響 .....	41
7. 北韓의 對美, 日接近底意 .....	43
8. 南北統一을 위한 外交的 課題 .....	46
	
第三部 分断國家의 統一問題 .....	49
1. 分断國家의  유형 .....	51
2. 越南의 統一問題 .....	53
3. 中國의 統一問題 .....	59
4. 獨逸의 統一問題 .....	63
5. 分断國 統一方式의 韓半島 適用가능성과 한계 .....	69

第四部 韓國의 統一政策 ..... 73

1. 韓國統一方案의 變遷過程 ..... 75

2. 平和統一의 中長期 構想 ..... 82

3. 政府의 平和統一 努力 ..... 85

4. UN을 통한 統一에의 接近 ..... 89

5. 非政治分野 優先主張의 內容 ..... 92

6. 不可侵協定 提議의 正当性 ..... 94

7. 政府의 統一政策의 理論的 背景 ..... 98

① 통일정책의 변천과정

第五部 北韓의 統一政策 ..... 101

① ② ③ ④ ⑤ ⑥

1. 對南戰略의 變遷過程 ..... 103

2. 對南赤化 戰略·戰術 ..... 111

3. 北韓의 對UN 政策 ..... 119

4. 平和協定 提議의 底意 ..... 123

5. 軍縮提議의 底意 ..... 128

6. 聯邦制 提議의 虛構性 ..... 134

①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  
 ② 통일전선노선  
 ③ 24만군축노선  
 ④ 3000  
 ⑤ 10만명

第六部 南北對話 ..... 141

1. 南北對話의 背景 ..... 143

2. 赤十字會談의 經過 ..... 146

3. 調節委員會의 經過 ..... 155

4. 北韓의 協商姿勢 ..... 164

5. 南北對話 決裂의 責任 ..... 168

6. 南北對話 評價 및 展望 ..... 172

7. 北韓側 主張의 不當性 ..... 179

가. 了解解說委員 派遣案 ..... 179

나 . 法律的, 社会的 環境 改善案.....	182
다 . 5 個 分科委同時構成案.....	186
라 . 大民族會議 開催案.....	190
第七部 北韓社会 実相과 變質展望.....	195
1 . 北韓社会의 變遷過程.....	197
2 . 北韓社会의 異質相.....	206
3 . 東歐圈 「自由化」의 根本動因.....	209
4 . 共產圈의 社会變動事例 比較.....	214
5 . 北韓社会 變質 展望.....	216
第八部 統一을 為한 對備.....	221
1 . 10 月維新과 平和統一.....	223
2 . 우리의 座標.....	225
3 . 国土統一院의 設置經緯와 그 任務.....	228

Handwritten scribble or signature.



## 第一部 統一問題의 性格

1. 分斷의 背景
2. 統一의 要請
3. 統一의 概念
4. 統一의 原則
5. 統一의 要件
6. 統一의 時期

## 1. 分 断 的 背 景

韓半島의 分断은 歴史的으로 國際權力 政治的 背景을 갖고 있다. 세계 제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5年 2月 美·英·蘇 三大국은 「알타」에서 회담을 갖고 蘇聯의 對日參戰과 戰後處理에 關해 協議한 바 있는데 당시 蘇聯은 韓國을 포함한 旧勢力範圍 및 諸利權의 回復을 確약받음으로써 帝政「러시아」때부터 추구해오던 전통적인 南進政策을 굳히게 되었다.

蘇聯은 이미 제정「러시아」당시 日本과의 勢力均衡을 위해 잠시 38度線을 境界로 세력균형선으로 거론할 일이 있거니와 「알타」회담에서도 韓半島의 38度線 境界를 다시 주장하여 對極東政策에 있어서 세력팽창을 기도하였다. 이와 같은 蘇聯의 의도는 韓半島에 대해서 어느 한 強大國의 主導的 영향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態度를 취하고 있던 聯合國들의 利割關係와 결부되어 우리 民族의 運명을 다시 列強政治의 희생물로 만들고야 말았던 것이다.

1945年 8月 15日 太平洋聯合軍司令官 「맥아더」將軍이 公布한 「一般命令 第1号」는 한반도 38度線以南의 日本軍은 美軍에게 그리고 以北의 日本軍은 蘇聯軍에게 항복하도록 規定하여 美·蘇軍의 韓半島分割占領을 公式化하였다. 그러나 美陸軍長官에 의해 作成된 그 文書가 단순한 軍事作戰上의 必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아무런 政治的 考慮가 없었던 것인지 그리고 戰時聯合國會談, 특히 「카이로」會談 및 「알타」會談에서의 어떤 公約을 이행한 조치였는지는 아직 分明하지 않다.

아무튼 38度線을 分界로 한 美·蘇兩軍의 進駐는 韓半島에 두개의 軍政을 結果했고 감정적이기를 바랐던 38度線은 시초부터 軍事的 意味 以上の 복잡성을 띄면서 마침내 單一民族의 統一을 沮害하는 장벽으로

化하고 말았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실상 하나의 政治的 分界的으로 굳어가고 말았다. 이러한 事態를 시정하기 위해 美軍司令官은 以北의 蘇聯軍司令官에게 협상을 제의했으나 이 제의에 대한 蘇聯側의 비타협적 태도에 직면하여 보다 고위층에서 이 문제를 취급할 것을 美国政府에 건의하게 되었다. 이 건의에 따라 1945년 12월 美·英·蘇 三國 外相들이 「모스크바」에서 會議를 열고 여기서 합의된 「모스크바」協定에 따라 서울에서 美·蘇共同委員會가 열리게 되었다.

美·蘇共同委員會는 1946年 3月과 1947年 5月 二次에 걸쳐 會合을 가졌으나 蘇聯이 임시정부 수립에 관한 협의대상에서 信託統治를 반대하는 政黨과 社會團體를 제외하자는 주장을 거듭함으로써 아무런 성과를 얻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어려운 狀態에서 美国은 1947年 8月 다시 「모스크바」會談을 제의했으나 蘇聯의 거부로 좌절되고 말았다.

「모스크바」協定の 「테두리」안에서 蘇聯과 더이상 直接交涉하는 것이 無意味하다는 것을 인식한 美国은 1947年 9月 17日 韓國獨立問題를 「유엔」에 上程하였는데 이로 해서 韓國問題가 「유엔」과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었다. 蘇聯은 한국독립문제와 「유엔」상정을 「모스크바」協定違反이라고 하여 反對하였다.

그러나 「유엔」총회는 1947年 11月 14日 한국독립의 節次를 規定하는 美国의 決議案을 채택하여 「유엔」한국임시위원단<sup>1</sup>을 설치하고 同委員團으로 하여금 統一·獨立·民主의 韓國政府樹立을 위한 全韓半島自由選舉實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위임하였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蘇聯의 協力拒否와 38度線以北에의 入北拒否에 부딪쳤으나 「유엔」小總會

2月 26日 全韓半島를 통한 選舉監視가 불가능할 경우에 倏<sup>1</sup> 能한 南韓에서만이라도 선거감시에 임해야 한다는 결의를 하여 同年 5月 10日에는 總選舉가 실시되어 8월 15일 드디어 政府의 수립을 보게 되고 「유엔」은 大韓民國을 韓半島의

唯一한 合法政府로 승인하였다.

한편 蘇聯軍政下の 北韓에서는 1946年 2月 사실상 共產政權인 '北朝鮮人民委員會'가 조직되고 1947年 11月 蘇聯軍政当局에 의해 '憲法起草委員會'가 임명되었으며 1948年 9月9日 金日成의 共產政府가 탄생하게 됐다. 이후 蘇聯은 1950年 北韓 共產主義者들을 사주하여 全韓 半島의 武力赤化를 기도하였으나 우리는 「유엔」군의 지원으로 그러한 危機를 극복하였다. 休戰協定の 成立과 더불어 軍事分界線이 38度線에 代置되는 새로운 分断線으로 化하였고 이후 오늘까지 南·北韓을 완전히 갈라놓는 境界線이 되고 있다.

## 2. 統 一 의 要 請

祖國의 統一問題는 흔히 民族的 念願 또는 歷史的 要求라는 當爲性으로 규정되고 있다. 우리는 조국통일에 대한 신념과 통일과업을 기필코 완수해야 한다는 歷史的 使命을 다짐하기 위해서 통일의 필요성을 새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 통일의 必要性은 대개 다음과 같은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① 民族史的 側面, ② 人道的 側面, ③ 國家發展의 側面, ④ 國際政治的 側面이 그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祖國統一의 民族史的인 要請을 검토해 보자

우리는 三國時代 一時的인 分裂의 歷史는 가지고는 있지만 古來로 單一民族으로서의 文化傳統을 계승 발전시켜 왔으며 수많은 國難과 外侵에도 불구하고 共同運命體로서의 民族的 團結力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團합된 民族의 底力을 면면히 이어왔다. 이와같은 民族의 무궁한 生命力은 日帝의 暴壓아래 民族史的 斷切의 危機를 경험하면서도 끈질긴 저항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二次世界大戰의 終戰과 더불어 새로운 民族史의 光復을 맞이한 祖國은 不幸하게도 外勢에 의한 人爲的인 民族分裂을 강요당하였으며 이와같은 不幸은 歷史를 통해서 형성, 발전돼 온 單一民族으로서의 自負心에 큰 傷處를 안겨주었다.

더우기 分斷된 한편의 北韓地域에서는 共產主義에 의해서 우리의 文化的 傳統이 여지없이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때 民族的 衿持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며 光復과 建設의 새 歷史를 創造하는 偉勳에 對하여 民族의 一部가 參與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유구한 民族의 文化的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民族的 團結의 새 歷

史를 창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民族的인 자부심과 긍지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祖國의 統一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는 人道的 観点에서 볼 때 조국의 통일은 기필코 달성되어야 한다. 人爲的인 國土分斷은 수많은 同胞들에게 人間으로서의 참을 수 없는 苦痛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文化, 風俗, 言語, 人種에 있어서 세계의 다른 어떤 民族보다도 큰 同質性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全民族은 거의 血緣的으로 결합되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는 오늘날까지 南北間에 家族과 친척이 헤어져 生死나 소식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이산가족의 수가 근 千萬에 달하고 있다. 이들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일은 기필코 이루어져야 한다.

더우기 共產治下에서 人間的 權利와 生存을 박탈당한 채 暴政과 專制에 눌려 살고 있는 北韓同胞들을 구출해야 한다는 民主國家國民의 使命感에 비추어 볼 때 조국통일은 더욱 절실해진다.

세째로 국가의 발전이라는 百年大計를 위해서도 통일은 필요하다. 경제적 발전이나 安全保障문제는 國家發展의 基本要件이며 동시에 追求해야 할 目標이기도 하다. 國土分斷과 民族의 分裂은 우리 경제적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해왔으며 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항상 戰爭의 可能性을 안고 있는 不安要因을 야기시켜 왔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南·北韓의 地理的 條件, 資源分布의 差異, 다시 말해서 南쪽의 農産資源과 北쪽의 地下工業資源의 相對的 分布度로 보아 産業構造上 南北의 相互補完關係를 理想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통일은 국가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長點을 갖고 있다.

安保的 側面에서 보아도 國土의 分斷상태, 더우기 막강한 군사력의 대치상태는 韓半島의 긴장,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긴장요인이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世界平和의 威脅要素도 되고 있다.

한편 상호간의 武力增強이나 軍隊維持에 사용되는 막대한 국방비는 경제발전이나 국민복지에 投入될 수 있는 많은 資源을 소모하여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國際政治的 側面에서 조국통일의 要請을 살펴 볼 수 있다. 우리와 같은 한 民族이 하나의 國家로서 統一된다면 국제정치사회에서 보다 확고한 地位와 信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民族이 分裂되어 서로 다투기만 한다면 국제적 信賴와 地位를 획득하기는 커녕 오히려 국제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존재로 소의당하거나 스스로 不利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제정치사회의 當당한 一員으로서 國家의 地位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民族國家의 形成이 무엇보다 시급히 요청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統一은 內的으로 民族生活를 正常化하기 위한 必需品인 동시에 外的으로는 韓民族의 主体性を 完成하여 世界史의 當당한 參與者로 비약하기 위한 基本前提가 된다.

### 3. 統 一 的 概 念

統一의 概念은 궁극적으로 統一된 狀態에 對한 「비존」과 統一로 綜  
近해 가는 過程上의 論理를 內容으로 포함하고 있다. 南北韓間에는 統一  
의 名分을 다같이 認定하고 있는 점에서는 一致하고 있으나 실제 統一  
된 狀態 또는 統一過程에 對한 定義方法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우리는 韓半島의 궁극적인 統一狀態를 民主的인 民族國家의 完成으로  
規定하고 그러한 最終段階에 到達하는 過程에서 民族的인 和合과 同質性  
의 回復이라는 平和的 段階을 設定하고 있다. 이와같은 統一概念의 段階  
性은 종래의 領土的 收復이나 合竝이라는 冷戰的 論理를 克服할 수 있  
는 現實的 長點을 갖는 代案으로 理解되고 있다.

이에 反해서 北韓側의 統一概念은 궁극적으로 全韓半島의 共產化라는  
目標形態를 取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北韓側의 統一概念은 北韓地域을 革  
命의 基地로 強化하여 共產化革命을 '南半部'까지 拡張한다는 이른바  
革命의 論理를 基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北韓側은 이와같은 共  
產化革命을 達成하기 위한 過程으로써 '合作' 또는 '統一戰線'이라는  
戰術的 手段形態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北韓이 말하는 統一概念은 궁극적인 共產化革命達成이라는 目標  
로서의 統一과 一時的이고 可變的인 手段으로서의 統一을 同時에 意味하  
는 이중의 概念으로 理解해야 한다.

한마더로 統一에 對한 우리의 概念定義方法은 平和的, 段階的인데 反해  
北韓側의 定義는 侵略的, 革命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統一로 가는  
過程에서도 우리는 機能的 接近方法을 채택하고 있는데 반해 北韓은 戰



術的 接近方法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우리의 統一概念은 民族의 原理를 當爲로 삼고 있는데 反해 北韓側은 共產主義原理에 집착하고 있다.

#### 4. 統 一 的 原 則

韓國統一을 論하는데 있어서는 몇개의 當위명제가 있다.

첫째는 統一된 韓國의 政治명제는 自由民主主義的인 體系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統一이라는 것을 바라는 理由는 한 民族이 統一된 自主的인 그리고 自由民主的인 政治體制 下에서 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즉 우리로서는 赤化統一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만일 統一이라는 것이 共產體制 下에서의 統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오히려 그러한 統一은 부정되어야 한다.

둘째로 韓國의 統一이라는 것은 平和的인 方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동족상잔이라는 것을 또한번 겪어야 하고 韓半島에 있어서 한 민족이 다시 戰爭이라는 비극을 겪어야만 統一을 이룩할 수 있다면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세째는 韓國의 統一이라는 것은 匪細匪의 평화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平和를 위해서 절대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라는 명제다.

다시 말하면 韓國民族이 統一을 이루지 못하고 分斷된 狀態하에서 存在하는 한, 匪細匪나 世界平和라는 것은 바랄수가 없다는 것이다.

네째로 統一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민족 자신의 힘으로, 自主的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4大強國이라던가 또는 기타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정한 형태의 통일이라는 것을 강요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일수는 없다는 점이다. 우리가 統一을 이룩할때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바라는 형태의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韓國民族 스스로가 노력을 할 것이다.

이상의 명제들은 統一을 위해서 노력하는 데에 하나의 지침이 되는

것과 동시에 또 테두리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할 때  
만 우리의 統一이라는 것이 참으로 우리 民族을 위해서 有益하고 바람  
직한 그러한 未來像이 될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한민족 전체가 그러한  
目標을 達成하기 위해서 共同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것이 된다.

## 5. 統 一 의 要 件

5千万 韓民族의 念願인 祖国統一의 大業을 成就하기 爲하여 朴正熙大 統領은 1972年 6月 23日 内外에 淸명한 새로운 平和統一 外交政策 宣言의 첫 項目에서 『祖国의 平和的統一은 우리民族의 至上 課業이다.

우리는 이를 成就하기 爲한 모든 努力을 계속 경주한다』고 言明하였 는 바 이것은 5千万 全民族의 굳은 決意를 다시 한번 되새긴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 민족 지상의 課題인 나라의 統一은 그렇게 容易하게 이 루어질수 없는 條件을 안고 있다.

그것은 韓半島의 南北 雙方이 自由民主主義와 共產主義라는 이념과 가 치관, 그리고 歷史觀이 극단적으로 다른 두 體制로 對立되어 있으며 雙 方은 각기 자기 體制를 固守하려는 확고부동한 결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우리 韓半島에 安定된 平和가 구축되지 못하고 平和統一을 성 취하는데 장애가 되는 가장 큰 근본요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북한 共 産集團이 南韓을 赤化함으로 써만 祖国統一을 이룩하겠다는 일종의 「征 服統一」路線에 立脚하여 그를 실현시키기 爲해 온갖 도전을 기도하는데 있는 것이다.

北韓 金日成의 主張은 『祖国統一의 과제는 南에서 美軍이 철수하고 人民 民主主義가 승리하여 政권을 잡아 北의 社會主義 力量과 南의 民 主主義 力量의 團합된 힘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祖国統一은 南韓革命이 수행되는 條件에서만, 즉 韓國에서 『反帝民族 解放 人民民主主義 革命』을 수행함으로 써만 成就될 수 있 다는 얘기다. 그는 또 『祖国統一은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의 기치아래

民族解放 革命을 全國的인 범위에서 완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祖國統一의 실현 方法에는 平和的 非平和的 方法이 있을 수 있으나 南韓革命의 수행에는 오직 폭력적 方法外에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한반도의 惡與件 아래 統一이 成熟될 수 있는 要件은 무엇인가?

韓半島의 統一要件으로는 첫째 北韓이 武力赤化統一 野慾을 拋棄함으로써 韓半島에 平和가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北韓 金日成이 韓半島赤化를 爲한 征服統一을 固執하는 限, 韓半島에는 平和도 統一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平和統一을 成就하기 爲해서는 金日成 스스로가 赤化武力統一 野慾을 拋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우리의 國力을 배양하여 北韓에 比해 絶대 우리의 힘을 길러야 한다.

우리의 國力을 背景으로 하여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키는 것이 統一을 앞당기는 길인 것이다.

朴正熙大統領은 『民族의 宿願인 祖國統一의 與件을 實質적으로 改善하기 위한 우리의 平和統一外交 政策』으로서 6.23 特別宣言을 發表하고 同宣言 第2項에서 「韓半島의 平和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南北韓은 서로 내정간섭을 하지 말아야 하며 침략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둘째 南北間에 同質性이 回復되어야 한다. 戰後 分斷 4半世紀以來 形成되어온 南北間의 異質化 過程, 卽 民族的 同質性의 變質은 統一을 장애하는 基本要素中의 하나이다.

現在 南北間에는 外交 國防 財政등의 分野에서는 完全히 容納되기 힘에 餘하기」를 構成 原理로 하여 異質體制가 確立되었고 教育 文 化에서도 南北間의 社会的 過程의 差異때문에 異質化가 急速히 있는 實情이다.

南北間에는 民族에 관한 概念 定義가 달라졌고 歷史를 解析하는 方式이 달라지고 있으며 國民教育의 目的과 方向도 다르고 심지어 우리 民族의 共通된 言語生活에서 마저 異質化가 進行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祖國의 統一을 이룩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南北間의 異質化 現象을 除去해야 하고 民族의 同質性을 回復해야 한다.

元來 韓民族은 5千年 歷史를 가진 單一民族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韓半島에 平和가 定着되어 이른바 南北間의 平和共存體制가 이루어 질 경우에는 民族的同質性의 回復이 急速히 進展될 것이다. 이러한 民族的同質性의 回復은 必要 不可欠한 統一의 基本要件이 되는 것이다.

세계, 國力을 培養하여 民主的力量을 強化해야 한다는 것이다.

北韓의 武力赤化野慾을 拋棄케 하여 平和統一의 길을 마련하고 共產主義와의 對決에서 民主主義의 勝利를 보장하는 根本方策은 바로 우리의 國力培養뿐이다.

더우기 對話를 통한 善意의 競争을 南北間에 시도하고 있는 지금, 實力으로서 善意의 競争을 통해 國民의 호응을 받으면서 北韓住民을 우리의 自由民主主義體制에 同化하도록 유도하려면 우리의 國力이 決定的인 要因이 되지 않을 수 없다.

## 6. 統 一 의 時 期

南北統一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은 장래에 대한 確實性이 없는 예측에 不遇한 것이다. 現在로서 統一의 實現時期에 관해서 確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統一을 갈망하는 韓國人에게는 統一의 時期를 짐쳐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도저히 확실한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여러가지 예측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것이 韓國人의 심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韓半島의 統一問題를論하는데 있어서 이 問題에 대한 접근방법이나 관점이 統一의 實現時期를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반대로 統一에 대한 方案이 여러가지 있는 중에 그 어느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統一의 時期가 늦추어 질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다. 統一에의 접근을論하는데 있어서 論者가 통일의 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밝혀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統一의 時期는 韓民族으로서는 가능한한 조속한 것으로 잡고 싶어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우리가 빨리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빨리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충족적인 예언」이라는 概念이 社会心理学에 있다. 즉 어떠한 事態가, 어느때까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하고 행동하면 자연히 그것이 實現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이다. 이러한 理論이 實際로 타당성을 갖는 것은 사실이다.

個人生活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國家生活에 있어서 또 타당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統一의 時期를 잡는데 있어서 「자기충족적인 예언」의 理論을 너무 성급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國際環境이나 分斷의 歷史, 南北間의 적개심등이 「統一의 時期를 너무 추박하게 잡는 것을 방지한다. 일정한

시한을 이제부터라도 설정해 놓고 그것을 達成하기 위하여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는다는 입장에 서기는 어렵다. 동족상잔을 피해야 한다든가 赤化統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의 制約條件들이 있다. 이러한 制約條件들이 「자기충족적인 예언」의 원칙이 작용하는 것도 - 계약하고 있다.

결국 統一의 時期를 가까운 장래보다는 비교적 먼 장래에다가 잡게 하는 원인이 주로 이러한 계약조건들에 있다.

統一에의 접근에 있어서 戰爭과 赤化는 접근방법으로서 배제되어야 한다. 아마도 統一의 시기를 너무 가까운 장래에 설정하지 않는 것이 동족상잔이나 赤化統一의 가능성을 감소 내지는 除去해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統一의 時期를 너무 촉박하게 잡으면 統一이라는 것이 民族의 統合이라는 경사를 가져다 주기 보다는 오히려 流血 혹은 自由의 상실이라는 비극을 가져다 줄 위험성이 있다.

大韓民國이 統一에 있어서의 主導權을 잡기 위해서도 統一의 時期는 너무 촉박하게 잡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大韓民國이 自由民主主義 下에서의 自主적인 統一을 이루고자 主導權을 장악하고자 하면 国力을 充分히 培養할 必要가 있다. 北韓의 경우 모양으로 赤化統一을 위하여 暴力을 불사하고 民族상잔의 비극도 오히려 정당화하겠다는 것과는 달리 大韓民國의 統一에의 主導權은 어디까지나 平和적으로 自由民主主義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制限條件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統一의 시기를 너무 촉박하게 잡지 않고 신중하게 이에 접근해야 한다.

統一韓國이 國際政治面에서 中立路線을 취하느냐 혹은 聯邦制를 택하느냐 등등의 條件으로 말미암아 統一의 時期가 달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 이웃의 어느나라와도 특수한 배타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다시 말하면 어느나라의 세력권 속에 畧적으로 壓迫됨이 없이 平和的이며 自主적인 路線을 취해 나가는 政治單位가 우리가 바라는 統一韓國의 모습이다. 따라서 우리가 自主的이며 自由民主主義的인 統一韓國을 추구하는



것이 統一의 實現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中立이란 소극적인 概念이다. 오히려 우리는 독자적인 路線을 걸어가는 國際面에서의 自主性을 指向하는 것이 보다 더 능동적으로 우리의 統一 韓國을 볼 수 있는 길이다. 남이 보장해 주는 獨立이란 하나의 과도적인 현상일 수 밖에 없다. 우리의 힘으로 獨立을 保障해 나갈 수 있을 때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統一과 政治的인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다.

聯邦제도 하나의 과도적인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의 手段이지 目的일 수는 없다.

## 第二部 統一과 關聯된 國際問題

1. 南北關係의 國際性
2.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3.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4. 蘇聯의 對韓半島政策
5. 中共의 對韓半島政策
6. 周邊強大國關係가 統一에 주는 影響
7. 北韓의 對美, 日接近底意
8. 南北統一을 爲한 外交的 課題

## 1. 南北關係의 國際性

韓國의 發展에 있어서 決定的인 重要性을 되는것이 南北關係의 合理的이고 順調로운 解決이라는 것은 길게 說明할 必要가 없다.

南北關係가 잘못되면 우리가 여태까지 成就해 놓은 國家건설이 다시 갓더미로 돌아갈 뿐 아니라 數많은 生命의 被害를 입을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民族發展의 길을 막아버리는 結果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南北問題는 單純히 우리 民族의 問題일 뿐 아니라 國際的인 關心事이며 또 이의 解決을 위해서도 國際社會가 크게 影響을 줄 수 있기 때문에 南北關係의 國際的 背景을 살펴보는 것이 重要하다.

우선 38線의 設定이 우리 民族의 自意에 依한 것이 아니고 美·蘇 兩國의 合意에 依해서 強要되었다는 事實을 記憶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分斷後로 蘇聯과 中共이 北韓을 뒷받침해 주지 않고 美國이 韓國을 支援해 주지 않았던들 內亂이나 그밖에 어떤 過程을 겪어서라도 이미 오래전에 統一되었을 可能性이 크다. 즉 分斷이 現在의 상태대로 남아있는 그 自体가 韓半島 內的인 要因이 起因하기도 했지만 國際的 要因에 많이 起因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南韓에서 大韓民國政府가 創設된 것도 美國의 韓國에 對한 關心과 「유엔」의 決議를 背景으로 理解해야 할 것이며 北韓에 共產政權이 서게된것도 蘇련의 戰略의 一環으로 理解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6.25 動亂 또한 國際社會의 움직임을 떠나서 理解할 수 없을 것이다.

蘇련이 軍事裝備와 軍事訓練으로 도우지 않았던들 北韓이 南侵할 勇무를 낼만한 軍事的 準備를 이룩하지 못했을 것이며 6.25 南侵 自体가 蘇련의 縱용 또는 命令과 軍事的 支援約束下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또 軍事的으로 거의 無防備狀態에서 韓國이 共產軍을 擊退하고 계자리를 지킬 수 있는것도 「유엔」軍의 파견 符號 美國의 적극적인 支援에 決定的으로 힘입었기 때문인 것이다. 더우기 中共이 韓國戰에 介入함으로써 南北關係의 國際性은 더욱 짙게 된 것이다. 韓國體戰의 署名當事者가 共產側에서는 中共과 北韓이요 韓國側에서는 「유엔」이라는 事實自體가 南北關係에 國際社會가 過去와 現在에 걸쳐 깊이 介入하고 있음을 잘 立証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美國 蘇聯·中共의 3大強國은 南北關係에 있어서 배놓을 수 없는 行爲者 또는 參與者가 되어왔던 것이다.

4大強國의 마지막나라인 日本도 韓國에 對해서 깊은關心을 가지고 있다. 韓半島의 事態發展이 日本의 安保에 重要한 直接的 影響을 미친다는 것은 지구히 常識的인 일이다. 더구나 韓日國交正常化以後 日本은 韓國에 經濟的으로 크게 進出했으며 北韓에 對해서도 經濟的 介入을 시작하고 있어서 이제 日本의 對韓半島關心은 軍事的인 次元外에 經濟的인 次元까지 지니게 되었다.

38線 問題는 단순히 우리民族만의 問題가 아니고 國際的인 問題라고 앞서 지적한 바 있지만 強大國들이 韓半島의 南北關係에 特別한 關心을 가지는 것은 韓半島 自體의 内部的 重要性 때문도 되지만 그보다 韓半島問題가 強大國關係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勿論 美·蘇·中·日의 4大強國만이 韓半島에 利害關係가 있는것은 아니다. 韓半島가 世界 主要 緊張中心地의 하나가 되고있기 때문에 또 韓半島事態의 安定化 없이 安定된 世界平和를 생각할 수 없기때문에 거의 모든國家가 多少라도 韓國問題에 關心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 지난 20余年間 거의 每年 「韓國問題」가 重要한 争點이 되어왔다는 事實만으로도 南北關係의 國際的 重要性를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韓半島를 두동강으로 나누는 軍事分界線은 우리民族과 國土를 分斷한 線이 될뿐 아니라 國際政治에 있어서 勢力과 利害의 交叉線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背景때문에 美國·蘇聯·中國·日本等 強 大國들이 對坐할 때마다 거의 例外없이 韓國問題가 拳論되는 것이다.

美國은 韓國의 自由守護, 民主主義 促進, 經濟發展을 위하여 解放後 지 금까지 莫大한 人的, 物的 投資를 했다. 또 對소, 對中共戰略을 위해서 도 美國은 韓國의 共產化를 막고 民主的 安定을 成就할 수 있도록 支 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즉 韓國을 그들의 믿을 수 있고 든든한 友邦으로 維持하는 것이 美國의 國家利益에 合致하는 것이다.

그래서 韓美防衛條約을 通해서 韓國의 安保를 위해서 積極的인 支援을 할 것을 確約하고 있으며 美軍의 韓國駐屯과 對韓經濟援助 및 軍事援助 를 持續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無償經濟援助은 거의 없어졌지만 美國의 對韓 經濟介入度는 相當히 높다. 앞으로 美國은 日本과 함께 莫大한 額數의 資本을 韓國에 投入할 것이 予想된다. 美國의 立場에서 韓國은 軍事戰略的으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하나의 經濟的 「파트너」(Economic partner)로서도 그 중요성이 漸益 增大하고 있는 것이다.

中共이 韓半島問題에 關心을 가지는 것도 너무 當然하다. 中共의 立 場에서는 日本을 생각해서나 소련을 생각해서나 北韓에 親中共의 政權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中·소關係가 오늘과 같이 高度의 緊張 에 싸여 있는 狀況에서 中共으로서 韓半島쪽에서는 될수록 安心할 수 있기를 원할 것이다. 또 日本의 潛在的 威脅을 생각할때 韓半島에 緩 衝地帶가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日本의 再武裝에 박차를 加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中共은 韓半島 全體의 共產化를 積極 推進하겠지만 日本에 再武裝 자극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中共은 韓半島에서 現 狀安定化 政策으로 나오는 것 같다. 또 中共이 近來에 와서 美軍의 계속 駐韓을 묵시적으로 受諾하는 것 같은 것은 美軍의 한반도 駐屯이

日本으로 하여금 安心하도록 해줌으로써 再武裝을 그렇게 빨리 서두리지 않기를 바라서인 것 같다.

소련도 韓半島에서 現狀固定化를 希望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強大國들과 立場이 같은 것 같다. 北韓이 中共쪽으로 기울어 가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 만약 그렇게 되는 경우 적어도 南韓은 中共의 影響圈밖에서 - 즉 共產化되지 않고 - 남아 있기를 바랄 것이다. 또 對美關係와 對日關係의 安定化를 위해서도 韓半島事態가 보다 安定된 基盤위에 놓여지기를 바라는 것이 蘇聯의 立場같다.

日本은 自體의 安全을 위해서도 南韓에 民主體制가 維持되는 것을 바라고 있으며 自體의 安保를 위해서 韓半島에 緊張이 緩和되고 보다 安定된 條件이 造成되기를 希望하는 것 같다. 特히 韓半島 全體의 共產化는 日本에게 直接的이고도 심각한 安保問題를 提起할 것이다.

그리고 日本의 立場에서 韓國은 중요한 經濟的인 중요성을 띠고 있다.

韓日國交 正常化以後 日本이 韓國에 投入한 資本은 莫大한 것이며 아직도 對韓投資는 계속 增加하고 있다. 따라서 韓半島의 安定은 그들의 對韓投資의 安定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 4大強國은 제각기 다른 理由때문에 韓半島에서 現狀의 固定化 또는 安定化를 希望하고 있는 것 같다. 종전과 같이 高度의 긴장과 軍事的 對峙 衝突關係가 南北間에 계속하는 것도 중요한 국제적 不安要因이 되기 때문에 強大國들은 南北間에 對話와 接觸을 통하여 긴장이 緩和되고 分斷된 狀態대로 現狀이 安定化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또 이들 國家들은 南北韓이 相互存在를 否定, 否認하는 狀態下에서는 진정한 安定化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南北韓이 相互存在에 대하여 적어도 「事實認定」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두개의 韓國」을 永久化하는 印象을 주기 때문에 「당장 統一」이

란 立場과는 상치하지만 統一이 결코 당장 이루어질 수 없고 상당한 期間을 거쳐 南北間에 不信이 解消되고 信賴가 回復된 後에야 비로서 可能하다고 前提할 때 반드시 우리의 立場과 根本적으로 틀리는 것도 아니다.

아무튼 여기서 強調하고 싶은 것은 南北分斷이 국제적 要因에 주로 起因했다는 點과 韓半島問題에 強大国들의 關心이 至大하다는 點을 考慮할 때 韓半島問題의 順調로운 解決은 國際社会, 특히 強大国들과의 有機的이고도 緊密한 協調속에서만 期待할 수 있다는 事實이다. 물론 緊張緩和나 統一이 韓國民族의 自主的인 努力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國際的 狀況을 無視하면 成功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國際社会, 즉 4大強국이 韓半島에 대하여 關心을 가지고 있는 度를 미루어 보아 南北問題의 解決에 強大国들이 最少限 妨害하지 않도록 하고 보다 積極적으로 協調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南北問題의 順調로운 解決은 어렵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強大国들이 積極적으로 妨害한다면 이의 解決은 可望이 없어질 것이다. 南北問題의 「自主的」 解決이 지극히 바람직스럽지만 現實적으로 여기에는 相當한 制約이 있는 것이다.

反面 對內的인 与件이 造成되고 거기다가 広範한 國際的인 協調가 있으면 南北關係의 解決은 그만큼 容易해지며 南北統一도 하나의 實現可能한 일이 될 것이다.

앞서 論한 바와 같이 強大国들은 韓半島에서 緊張緩和를 통한 現狀 安定化를 希望하는 것 같다. 그리고 現段階에서는 南北의 統一을 積極적으로 希望하지 않은 것 같으며 또한 이를 別로 實現可能한 일로 보지 않는 것 같다.

強大国들의 이와같은 對韓半島姿勢는 現段階에서는 韓國의 南北政策과 큰 相衝이 없다. 韓國도 당장 統一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며 現段階

에서는 對話를 通하여 南北緊張을 緩和하고 南北信賴를 回復하는 것을 希望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韓國은 窮極的으로 平和的 統一을 希望하는데 強大國들은 이와 같은 韓國民族의 念願에 對하여 우리처럼 積極적인 것 같지 않기 때문에 緊張緩和 및 信賴回復 段階를 지나 南·北關係가 統一實現 段階에 到達했을 때 韓國의 政策과 強大國들의 對 韓政策間에 步調의 不一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38 線이 強大國間의 勢力均衡의 重心點이 되고 있고 強大國들은 이와 같은 勢力均衡이 破壞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南北關係의 改善과 나아가 南北의 統一은 東北亞의 勢力均衡을 破壞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또는 이 勢力均衡을 좀 더 安定化시키는 方向에서 摸索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볼 때 南北關係의 改善은 韓國이 主張하는대로 서서히 試圖하는 것이 좋으며 北韓의 主張대로 「당장 統一」을 기도하는 것은 無謀한 일이 될 것이다.

또 國際勢力均衡을 깨지 않고 統一을 推進해야 한다는 前提에서 볼 때 6.23 宣言에서 提唱한 모든 國家에 對한 韓國의 門戶開放政策은 더욱 妥當性을 지니게 된다. 韓國이 소련, 中共 등 國家와 互惠平等의 原則下에서 外交, 經濟, 文化關係를 맺음으로써 韓國이 이들 強大共產國들에 對하여 敵對적인 目標을 追求하지 않는다는 事實을 分明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韓國이 소련 및 中共을 위시한 共產國家들과 國交를 正常化한다는 條件이면 北韓이 美國이나 日本과 交易이나 外交關係를 맺는 것이 굳이 反對할 必要가 없을 것 같다.

強大國間의 勢力均衡을 破壞하지 않고 이들間의 關係를 安定化시켜 주는 統一이란 결코 赤化統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分明하다. 赤化統一은 勢力均衡이 美國과 日本에 不利한 方向으로 기울어지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中共이나 소련에게 不安을 줄 形態의 統一이 되어



도 안될 것이다.

이런 理由때문에 韓國이 소련과 中共과의 關係를 正常化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韓國이 이들 強大共産国들과 關係를 正常化한다고 해도 韓半島内에서 共産主義를 抹殺하는 統一은 이들이 받아 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이들 共産側에 不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結局 어떤 妥協에 依한 統一만이 韓國을 둘러싼 四大強国에 依해서 受諾된다는 結論을 내게 한다.

우리의 立場에서는 韓半島에서 共産主義를 完全히 퇴치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當然하다. 共産主義란 韓國의 文化傳統과도 위배되며 韓國이 志向해야 할 未來像과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理想과 現實간에는 間隔이 있는 것이 常例이며 이 경우도 例外가 아니다. 理想을 100 퍼센트 許容하지 않는 것이 現實인 것 같다. 따라서 우리의 비위에는 完全히 맞지 않더라도 어떤 妥協形式의 統一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7.4 共同声明에 「理想과 体制의 差異를 超越」해야 한다는 한 것과 6.23 宣言의 「理想과 体制를 달리하는」 모든 國家와 門戶開放政策을 提唱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韓國은 適當한 妥協的 統一案을 받아 들일 수 있는 伸縮性을 보인 것 같다.

強大国間의 勢力均衡을 考慮할 때 韓半島를 國際的 勢力競争과 理念競争의 한 緩衝地帶로 만드는 方向에서 南北關係의 改善과 統一을 위한 方案이 摸索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럴때 南北問題의 解決을 위하여 보다 広範한 國際的 協調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韓半島를 國際勢力政治의 한 緩衝地帶로 만들 때 東南亞의 平和에 중요한 安定化效果를 줄 것이다. 이와 같은 方案의 實現을 위해서는 南北韓과 四大強国을 包含한 關聯國家間에 東北亞의 安保를 위한 設劃에

合意가 이루어지고 그 東北亞平和設計의 一部로서 韓半島問題에 대한 보다 確固하고 持續性있는 合意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要는 韓國의 對北政策이나 統一政策은 國際社會의 要因들을 考慮한 다음 樹立되어야 하며 일단 政策이 確定되면 國際協調, 특히 四大強國의 協調를 效果的으로 動員하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다. 國際環境이 주는 制約이나 機會를 外面한 統一政策은 非現實性을 면치 못할 것이다.

## 2.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美國은 世界第2次大戰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韓國과 共同의 利害關係를 맺고 가장 가까운 盟邦으로서 友好關係를 繼續해오고 있다. 이러한 密接한 關係의 維持는 共產主義의 侵略으로부터 自由世界를 守護하려는 美國의 使命意識이 作用한 탓도 勿論 있겠으나 그보다도 美國이 韓半島를 戰略的 次元에서 그 價値를 重要視 했었기 때문이다.

美國은 韓國政府樹立의 後見的 役割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6.25動亂 때에는 유엔軍의 定力部隊로서 參戰하여 韓國의 對立을 可能케 해주었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韓國의 安保를 責任지고 있는 가장 親近한 盟邦으로서의 關係를 維持하고 있다. 그리고 韓國의 눈부신 經濟發展과 比較的 安定된 政治를 戰後 美國海外援助의 모범「케이스」로서 認定하고 높은 評價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象徴的인 重要性以外에 美國은 韓國에 다음과 같은 實質的인 重要性도 갖고 있다. 韓國의 地政學的 位置는 日本을 牽制하고 駐韓美軍의 存在는 中·蘇紛爭에서 中共의 對蘇軍事的 Balance를 이루게 하는 役割을 하고 있음으로 韓國은 軍事的으로 特別 重要的인 價値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또한 日本과 東南亞市場을 고려할 때 이들 地域에 接近해 있는 韓國의 立地的 條件은 美國의 重要的 經濟的 前進基地의 役割을 할 수 있음으로 美國의 産業進出의 要地로 看做되고 있다. 最近 美國內의 大企業家들의 韓國進出은 이러한 見解를 뒷받침해주는 証拠라 할 수 있다.

다음에는 美國의 安保와 關聯되는 問題로서 韓半島가 赤化될 境遇 極東에서의 勢力均衡에 큰 蹉跌을 가져오게 될 것임은 勿論 日本의 安保는 直接的인 威脅을 받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 美國의 太平洋防衛, 海上活

動에 莫大한 支障을 招來하게 될 것임이 分明하다.

이렇듯 깊은 利害關係를 韓國에 갖고 있다고 判斷하고 있는 美國은 앞으로 韓國安保의 緊要性을 認定한은 勿論 多角的인 紐帶關係를 維持하며 外交的으로도 從前과 같이 韓國의 外交代弁者의 役割을 계속할 것임이 分明하다.

그러는 한편 美國政府는 韓國에 對하여 美國의 外交路線에 共同步調를 取해주도록 要求할 것으로 보인다. 特히 戴明트의 國際的 趨勢에 부응하여 對共產圈政策, 對北韓政策 및 對日本政策分野에 있어서 美國의 路線을 支持하고 따라줄 것을 強力히 要求할 것이다. 即 中·蘇를 비롯한 共產圈과의 關係改善을 勸奨하고 보다 柔軟性 있는 對北韓政策을 追求하며 北韓과의 對話를 통한 緊張緩和, 特히 不可侵條約締結과 같은 根本的인 政策轉換을 希望할 것으로 보인다.

韓日關係에 對해서는 美國은 보다 米묘한 政策은 追求하게 될 것이다. 다시말해서 美國은 韓國이 日本과 緊密한 協調關係를 持續하기를 바라나 그렇다해서 親日一辺側나 美國보다 日本에 더 依存하는 事態의 惹起를 希望하지는 않을 것이다. 必要하다면 美國과 共同步調를 取하면서 日本에 어떤 圧力도 加할 수 있는 美國政策의 일반적內에서의 協調關係를 內心 바라고 있는 것이 美國이 願하는 對韓國政策路線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美國의 對韓經濟政策은 韓國이 過去보다 더욱 自立된 經濟體制를 갖추고 美國經濟에 貢獻할 수 있는 經濟構造를 希望하는 것일 것이다. 消極的으로는 增加된 軍備軍援移管을 통해서 韓國側으로 하여금 더 많은 國防費을 負擔케 함으로써 美國의 財政的 負擔을 輕減시키고 積極的으로는 貿易収支均衡을 要求하고 日本과 比較하여 더욱 有利한 投資條件과 環境의 造成을 바라고 있다. 나아가서는 韓國에 經濟前進基地를 設置함으로써 韓國의 저렴한 能率이 높은 勞動力과 有利한 立地條件(日本,

東南亞 및 中共과 距離가 가까움으로 韓國에서 生産되는 美國製品의 國際競争能力이 強化된다) 을 利用하려는 傾向이 漸次 부각되고 있다.

以上과 같이 美國의 韓半島에서의 利害關係가 久的인 것이라면 美國이 아무런 對策 없이 韓半島를 포기한다던지 힘의 空白狀態를 造成하여 韓半島의 赤化를 방임하는 事態는 決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國際体制의 構造가 勢力均衡을 維持하는 方向으로 더욱 發展된다면 韓半島는 東北「아시아」에 있어서 一種의 「均極의 決定的 要素」로서 作用時 可能性이 濃厚하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勢力均衡을 追求해온 美國의 立場에서 보면 兩極体制下에서 보다도 多極体制下에서의 韓半島의 戰略的 重要性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結果的으로 美國의 對韓政策이 「닉슨 독트린」의 展開過程에서 볼 수 있듯이 脫冷戰化 傾向을 보이고 있음에도 美國은 韓半島에 對한 基本的인 態度는 決코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駐韓美軍問題가 韓·美間에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로 남아있는것도 사실이다. 美國의 일각에서는 美國의 과중한 해외군사비부담 경감을, 이유로 海外駐屯美軍의 감축을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이는 조만간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窮極的인 철수를 촉진하는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美國行政府는 駐韓美軍의 存在를 東北亞 平和를 爲해 緊要한 것으로 고래하고 있으며 韓國의 安保와 對話政策을 저해할지도 모르는 韓半島上에서의 힘의 不均衡 狀態를 바라지 않을 것이므로 당분간 駐韓美軍存続問題에 대한 韓·美間的 一致된 立場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 3. 日本의 對韓半島 政策

日本外交는 大陸外交와 太平洋外交 그리고 世界外交의 세 갈래로 区分되고 있으며 大陸外交에 있어서는 항상 漢民族과 帝政「러시아」를 意識하는 바탕위에서 이루어져 왔다. 더우기 韓半島가 大陸과 日本間의 橋梁이고 또한 地政學的으로 볼때 韓半島가 支那·「러시아」 大陸地域과 密接한 關係에 있으므로 韓半島에 日本과 相反되는 勢力이 支配하고 있을 境遇 日本의 安全이 威脅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日本은 19世紀末부터 韓半島를 大陸進出을 爲한 橋頭保로서 삼아왔고 또 이를 爲해 36年間 韓半島를 支配해 왔으며 單獨支配가 不可能했던 20世紀初에 있어서는 最小限 韓半島에 日本의 非友好的인 勢力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爲하여 蘇聯과 分割支配 乃至는 緩衝地帶를 考慮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第2次世界大戰에 敗北한 日本은 美·蘇의 戰後處理를 爲한 政策에 따라 韓半島에서의 모든 權益은 포기함은 勿論 對外政策面에서 對美協調體制에 基礎하여 韓國과는 友好的인 關係를 계속 맺어온 것은 事實이다.

戰後 韓國이 日本과 交渉을 갖기 始作한 것은 1951年 10月 6.25 動亂이 進行되고 있는 가운데 美國의 주선으로 開催된 「韓日予備會議」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當時 日本의 對韓態度는 關係改善에 積極的이기 보다는 日本이 負 條約上의 義務와 對美協調體制的 維持라는 側面에서 一貫된 性格을 띠고 있었고 韓國의 境遇 反日政治家 李承晩大統領은 日本과의 關係改善에서 極히 否定的인 態度를 取해 왔다.

그러던중 韓日關係가 本格的으로 展開되기 始作한 것은 1965年 韓國이 韓半島의 唯一合法政府임을 規定한 것을 核心으로 하는 「韓日基本條

約」이 締結되고서 부터이다.

이때부터 日本政府는 名實共一하게 韓國의 維一合法性을 認定함은 勿論 國際舞臺에서 韓國의 立場을 支持하는 態度를 堅持해 왔다. 特히 韓國에 對한 補償樣式으로 始作된 經濟·技術協力이 急激히 增大함으로써 日兩國은 特殊한 關係를 維持해온 것만은 事實이다.

그러나 日本의 對韓半島政策의 基調가 對美協調體制의 一環으로서 韓國과 友好關係를 維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功利的 打算을 追求하는 二重의 性格을 띠고 있어 統一問題와 關聯한 南北韓國係에 적지않은 問題點을 던져주기도 하였다.

日本外交의 이러한 二重의 性格은 對中共 및 對北傀關係에서 如實히 反映되었다. 1972年 「닉슨」美大統領의 中共訪問을 頂點으로 하여 美中關係改善이 急進展되자 日本은 마치 美國과 競爭이라도 하듯이 재빨리 台灣을 度外視하고 中共에 接近, 兩國의 關係는 國交樹立의 段階로까지 急進展되었던 것이다. 한편 北傀에 對해서는 所謂 政經分離의 原則을 앞세우면서 民間·官吏「레벨」의 接觸을 通하여 貿易量, 技術과 資本輸出을 해마다 增加시키고 있는 實情에 놓여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非難의 對象이 되고있음은 勿論이다.

1960年代末期부터 日本이 自由世界에서 美國에 다음가는 經濟大國으로 成長하면서부터 日本의 外交戰略의 基調에도 相當한 變化가 일어나고 있음에 注目해야 할 必要가 있다.

오늘날 國際社會에서 日本이 노리는 가장 큰 戰略은 強大國에로의 발돋움이다. 다시말하면 經濟大國에 相應하는 強大國으로서의 役割을 遂行하려는 點이다.

이와 같은 日本外交의 戰略은 對美關係에서는 過去의 美國의 從屬外交에서 脫皮하여 同等한 Partner로서 世界政治에 參與하여 對中 및 對蘇關係에서는 이들 兩國과 同等한 位置에 서려는 意慾으로 具體化되고

있다.

이러한 日本外交의 戰略的 目標을 韓半島에 局限시켜볼 때 이것은 日本이 韓半島問題에 參與하는데 있어서 名實相符한 4強의 一員으로서의 位置를 確保하려는 것을 意味하여 肯定的인든 否定的인 意味에서든 우리의 警戒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美國은 「닉슨 독트린」의 展開過程에서 이러한 日本의 國際政治上에서 의 영향력 擴大를 감안하여 日本에게 「아시아」에서의 美國의 役割을 代行시키려는 努力을 始作하였으나 日本은 그들의 平和憲法을 이유로하여 주로 經濟的인 面에서만 解釋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日本의 情세를 감안하여 볼 때 앞으로 日本이 韓半島政策에서 追求할 目標은 다음과 같이 集約된다고 볼 수 있다.

한때 從來 韓國과 經濟的으로 맺고 있던 特殊한 關係를 一般關係로 轉換시킴으로써 日本이 追求하는 北韓과의 經濟關係를 漸次的으로 擴大할 것이며 南北韓 等距離外交의 展開를 韓國에 對하여 政治的 恫정물로 삼으려고 할 것이다.

둘째 日本은 韓半島가 日本을 爲해 共產勢力의 南下를 막는 방벽 役割을 하고 있음으로 韓半島의 赤化統一을 極力 反對할 것이 分明하나 또 한편으로는 統一된 韓國의 存在를 日本의 安保를 威脅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셋째 따라서 日本은 韓半島의 統一보다는 分斷된 狀態下에서의 南北韓의 現狀維持를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韓半島의 現狀維持에 寄與하는 政策을 展開하며 經濟的인 實利를 追求할 것으로 展望된다.



#### 4 . 蘇聯의 對韓半島政策

蘇聯의 韓半島에 對한 基本政策은 첫째, 歴史的인 傳統과 地政學的인 立場에서 帝政「러시아」以來 一貫되고 있는 南進政策이며 둘째, 「이데올로기」 또는 政治的인 面에서 推進되고 있는 所謂 世界赤化를 爲한 戰略의 一環으로서의 民族解放鬪爭 支援政策이며 셋째는 軍事戰略上의 重要性에서 韓半島를 極東前 基 基地나 安保上의 緩衝地帶로 維持함으로써 對西方牽制는 勿論 對亞細亞進出을 爲한 교량으로 利用하려는 多目的 政策으로 要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蘇聯의 對韓半島基本政策은 戰後 4半世紀동안 持續되고 있는 것으로서 그 本質自体는 現속에도 變化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政策을 遂行하는 過程에서 나타나고 있는 敵對行爲에는 流動성과 伸縮성이 隨伴되고 있음이 特徵的이라 할 수 있다.

蘇聯의 南進政策의 構想은 第2次世界大戰中에 있었던 「알타」會議에서 戰後處理問題에서 韓半島를 占領, 赤化하려는 意圖를 이에 나타낸 바 있으며 8.15解放直後 북녁땅만의 占領·赤化만으로 滿足하지 않고 北韓 傀儡政權을 자극하여 武力赤化統一을 試圖했던 韓國戰爭에서 露骨化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予測치 못했던 美軍은 主軸으로 한 「유엔」軍의 介入으로 北傀軍의 敗色이 짙어지자 北韓傀儡政權에 休戰을 종용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休戰이 成立됨으로써 그들의 赤化野慾은 挫折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1953年 「스타린」이 死亡한後 「호르시초브」가 執權하고서부터 蘇聯의 世界赤化革命戰略에는 커다란 變化가 일어나고 一大 修正이 加해졌던 것이다. 即 「호르시초브」는 1956年에 開催되었던 蘇聯共產黨 第20次大會에서 「帝國主義가 存在하는 限 戰爭은 不可避하다」는 「레닌」과 「스타린」의 命題를 修正하여 「오늘날의 情勢는 그 때와는

매우 다르다. 오늘날 社會主義陣營은 莫強한 軍事力을 갖고 있기 때문에 帝國主義의 戰爭挑発을 防止할 수 있으며 따라서 戰爭은 반드시 不可避한 것은 아니다」라고 提唱하였다.

從來의 永久暴力革命에 對한 이러한 「호르시초브」의 大胆한 修正이- 中·蘇 理念紛爭의 導火線이 되고 오늘에 와서 보는 것과 같은 中·蘇 對立의 根本原因이 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事實이다.

이러한 蘇聯의 平和共存政策은 共產主義陣營의 分裂, 國際政治의 多元化 中·蘇紛爭이 激化되고 있는 狀況에서 民族解放鬪爭支援을 國際的 義務로 간주하기는 하나 그 같은 義務의 履行만이 國家利益의 增進을 가져오게 하는 唯一한 政策은 될 수 없다는 아주 實利的인 論理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後進地域 特히 「아시아」地域의 民族解放鬪爭에 對한 支援을 爲해 自國의 利益을 危殆롭게 하면서까지 武力對決을 할 必要가 없다는 現實主義的 論理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民族解放鬪爭에 對한 支援과 平和共存政策間에는 實踐理論上의 矛盾이 分明히 存在하고 있다.

現蘇聯指導層이 對「아시아」政策을 展開함에 있어서 當面하고 있는 「드레마」는 이렇듯 相互矛盾되는 것을 如何히 調整하느냐하는 問題로 되고 있다.

이와 같은 「武力對決의 회피」와 「民族解放鬪爭支援間에 內在하는 矛盾을 克服하기 爲해서 마련된 것이 所謂 「브레즈네프」의 「아시아」集團安保體制 構想이라 할 수 있다.

蘇聯이 積極 推進하고 있는 「아시아」集團安保體制構想은 現時點에서 中共을 包圍, 孤立化하기 爲한 意圖를 強하게 나타내고 있으나 그 窮極의 目的은 「아시아」에서의 美國努力의 排除와 蘇聯의 영향력의 擴大에 두고 있다. 다만 이를 實現함에 있어서 緊張緩和의 추세에 있는 現狀況을 現實的으로 認定하고 無數한 接近方法을 最大限으로 活用하고 있다는

것이 過去와는 다른 點이다.

蘇聯의 窮極의 目標가 무엇이던간에 蘇聯이 우선 現實的으로 歷史的 狀況이나 條件을 認定하고 있다는 點에서 韓半島의 緊張緩和나 現狀固定은 그들의 平和共存政策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

蘇聯이 6.23 宣言의 対応措置로서 發表한 北傀의 소위 「平和 5大綱領」을 形式的으로 支持하며 우리의 6.23 宣言에 對하여 公式的인 論評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이런때에 緣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事實 蘇聯의 立場에서도 韓半島에 統一政府가 樹立되어 이것이 어느 한 強大國에 密着되어 버리는 것보다도 分斷된 狀態의 韓半島의 持續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蘇聯은 앞으로 中·蘇紛爭이 激化되어 있는 狀況에서 北韓을 自己편에 이끌기 爲해 北韓과 從前과 같이 密着된 關係를 가지면서 北韓의 國際的 代弁者의 役割을 繼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는 한편 對韓國關係에서는 美國이 北傀의 接近을 받아들이는 範圍內에서 韓國과의 關係改善도 發展시켜 나아갈 것으로 展望된다.

## 5. 中共의 對韓半島政策

中共의 對韓半島政策方向은 두가지의 要因 即 「이데올로기」의 側面과 韓半島의 地政學的인 位置에서 惹起되는 威脅으로부터 中共의 安全을 圖謀하려는 側面에 依해서 決定되어 왔다.

韓末에서부터 現在에 이르기까지 韓半島는 그 特殊한 地政學的인 與件으로 因해서 東北[아시아]의 強大國들의 力学關係를 銳敏하게 反映하고 있는 要衝地이다.

따라서 韓半島에 隣接하고 있는 中共으로서는 그들의 安保問題와 關聯하여 韓半島에 造成되는 強大勢力들의 力学關係를 가장 深刻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中共이 1950年 어려웠던 國內的 與件에도 不拘하고 韓國戰에 介入하는 冒險을 敢行한 것만을 보아도 中共에게 있어서 韓半島가 갖는 重要性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立証한 셈이다.

中共의 立場으로서는 韓半島가 北韓共產主義者들의 單一體制下에 統一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 슌러운 일이며 그렇기는 못되더라도 最少限 韓半島가 美·日의 進出을 가로막는 緩衝地帶의 구실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留意할 點은 中共의 이와같은 韓半島를 위요한 基本的 利害關係는 韓國戰爭때나 지금에나 變함이 없으나 中共과 其他 強大勢力과의 相關樣相에는 많은 變化가 일어나고 있다는 事實이다.

첫째, 1972年 「닉슨」美大統領의 中共訪問을 契機로 하여 美·中關係 改善이 急激히 進展됨으로써 美國의 韓國에 對한 公約이 弱化一路에 있다는 것과 美國과의 和解에 따라 韓半島問題에 關한 協調와 妥協의 氣가 吹였다는 變化를 들 수가 있다.

둘째로 韓國戰當時에도 中共은 韓國問題와 關聯하여 蘇聯과 日本의 存

在를 潜在的 競争者로 意識하고는 있었으나 當時에는 소聯과의 「블럭」 關係가 堅固했으며 日本은 政治적으로나 軍事的으로 競争者の 対象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이 두 努力과의 韓半島를 둘러싼 關係가 顯示的 競争關係 乃至는 相互排除的이고 相互牽制的인 關係로 變하였다. 다시 말하면 같은 域内國家인 日本의 새로운 政治的 勢力으로서의 登場은 中共에게는 하나의 衝擊的인 事態進展이 아닐 수 없으며 中·소 紛爭이 激化됨에 따라 中共은 現在 소聯을 美國을 능가하는 最大의 敵으로 간주하고 있는 實情에 있다.

그러니까 韓半島에 關한 限(勿論 소聯과의 敵對的 關係는 韓半島에만 極限되어 있지 않다) 中共에 있어서 가장 큰 威脅은 美國이 아니라 소聯과 日本의 存在이다.

中共의 對韓半島政策에서 나타난 對소關係의 局面에서 보면 中共은 우선 소聯과 其他 強大勢力과의 野合의 可能性을 除去하는데 力點을 두고 있다. 中共이 美國과의 關係改善이나 日本과의 國交回復을 決心한데에는 그러한 野合의 可能性을 弱화시켰다 同時에 中共의 소聯에 對한 立場을 相對적으로 強化하려는 意圖가 作用하고 있었다.

또한 소聯이 現在 中共에 對한 包圍戰略의 一環으로서 積極 推進하고 있는 「아시아」集團安保體制構想에 위촉되고 있는 中共으로서 소聯으로 하여금 東南「아시아」進出의 拠点이 되는 韓半島에서 勢力을 擴張하도록 방관한다는 것은 生覺하기 힘든 일이다. 韓國戰爭以後에 中共이 展開해 온 對北韓政策의 가장 두드러진 力點이 北韓에 對한 소聯의 영향력을 極少化시키는데에 있었다는 事實을 看過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에 와서 北韓에 對한 中·소間의 「헤게머니」爭奪戰으로 展開되고 있다.

世界第2次大戰에서의 日本의 敗北와 이에 따른 日本의 非軍事化로 한 때 中日間의 對決様相은 後退했으므로 美日安保條約을 土臺로 한 兩國間의 同盟關係는 恆常 中共에 銳敏한 關心을 자극했으며 日本軍國主義의

再抬頭可能性에 對해서 中共이 恒時 警戒해온 것을 볼 수 있다. 더구나 最近 「닉슨 독트린」發表以後 美國의 對「아시아」公約의 弱化에 따라 日本으로 하여금 美國이 「아시아」에서 遂行해온 役割을 代行케 하려는 一聯의 움직임임이 日本의 軍備強化를 促進시키고 있는데 對해 中共은 크게 당혹하고 있다.

以上과 같은 韓半島를 위요한 4大強國의 力学關係의 觀點에서 볼 때 中共이 南北對話와 韓半島의 統一問題에 있어서 北韓의 立場을 支持하는 것은 北韓의 蘇聯에로의 密着을 防止하기 爲한 것이며 表面上으로는 「南韓에서 美軍은 即時 撤収하라」는 北韓의 國號를 따르고 있으나 內心으로는 이미 中共의 威脅勢力이 아닌 美國으로 하여금 日本과 蘇聯의 牽制勢力으로서 계속 韓國에 남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當然한 歸結이 아닐 수 없다.

앞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韓半島가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單一體制下에 統一되는 것은 中共이 가장 바라마지 않는 바이겠으나 그것이 韓半島에 造成되고 있는 4大強國의 勢力均衡으로 因하여 不可能한 以上 中共의 安保에 一大 威脅을 惹起시키게 될 現狀打破보다는 現狀의 定着이 中共의 利益에 더 奇與할 수 있다는 判斷을 中共 亦是 하고 있다는 事實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中共의 韓半島政策은 앞으로 보다 現實的이고 妥協的인 色彩을 띠게 될 것이며 蘇聯을 牽制하는 極限된 範圍內에서는 韓國과의 關係改善도 전혀 不可能한 것이 아닐 것으로 判斷된다.

## 6. 韓半島周邊 強大國 關係가 統一에 주는 影響

1970年代에 접어들면서 본격화하기 시작한 주변 強大國間의 緊張緩和는 韓半島를 現狀固定化하는 方向으로 政策의 展開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주변 강대국들은 南北韓의 独自の 武力行使 내지는 偶發的 戰爭勃發을 抑制하고 사실상 두개의 韓國을 認定함으로써 緊張緩和를 追求하려 한다.

이와 같은 強大國들의 政策方向은 韓半島의 統一에 直接 間接으로 肯定的인 또는 否定的인 影響을 미치고 있다. 우선 주변 강대국關係가 韓半島의 統一問題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변을 살펴보자.

軍事的인 側面에서 볼 때 주변 강대국들의 現狀維持 政策은 武力使用에 의한 다시말해서 全面戰爭을 手段으로 하는 統一問題의 解決을 阻止할 것이기 때문에 '逆'의 機能으로 作用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경계해야 할 狀況은 北韓이 그와 같은 客觀的 諸与件이 굳어지기 前에 單獨的으로 制限, 局地戰의 形態로 武力侵攻을 감행할 수 있는 可能性이다.

政治的인 側面에서 볼 때 주변 4大強國과 南北韓이라는 6者「게임」을 考慮하지 않을 수 없다. 美國과 日本은 韓國과 政治, 軍事, 經濟的인 紐帶關係를 가지고 있고 한편 中共과 蘇聯은 北韓과 同一한 尤대關係를 맺고 있다. 이러한 關係는 冷戰構造下에서는 南方三角關係 및 北方三角關係를 지칭되었으나 中·蘇紛爭關係가 심화되고 同·中共間의 國交樹立과 美·中共間의 事實上 國交樹立으로 美·日의 對中共協助關係가 成立됨에 따라 그와 같은 南北三角關係는 變化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美·日·蘇·中共은 각기 南北韓에 대한 關係에 있어서 軍事的인 面보다는 政治, 經濟的인 面에 力點을 두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軍事的 緊張의 排除를 最優先視하여 南北韓關係를 平和共存的 現狀

維持라는 狀況으로 拘束하려 한다.

그러므로 4大強國의 韓半島統一에 대한 態度는 緊張緩和와 現狀維持에 의한 平和의 確保以上の 것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귀착되며 결국 두개의 韓國을 現實化, 固定化하는 否定的 要因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변 강대국관계의 새로운 양상이 韓半島統一問題에 肯定的으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

우선 軍事的 側面에서 볼 때 주변 강대국관계의 추세는 北韓의 武力行使에 의한 再南侵을 抑制하고 戰爭을 手段으로 하는 赤化統一의 野慾達成이 現實적으로 막대한 희생과 代價를 지불해야 한다는 危險負擔感을 환기시켜 줄 수 있는 肯定的 側面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政治적으로도 새로운 주변 強大國關係는 長期的인 統一에의 過程에서 폐쇄적이며 金日成唯一思想으로 굳어져 있는 北韓社會를 開放化, 自由化함으로써 體制의 變質을 誘導할 수 있는 肯定的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7. 北韓의 對美·日 接近 底意

韓半島를 위요한 美·蘇·日·中共 등 強大國들 間의 關係가 改善됨에 따라 北韓은 종래 美國이나 日本과 같은 西方國家에 對한 態度와 立場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종래 北韓의 對美政策은 中共과 같이 強硬一辺倒로 一貫되어 왔으며 蘇聯 및 東歐共產諸國들의 平和共存 또는 協力路線과는 對照的이었다. 그러나 1970 年대에 中共과 美國 또는 中共과 日本의 關係가 급격한 改善를 이룩함에 따라 北韓은 새로운 情勢變化에 매우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北韓은 中共의 對美接近政策에 따라서 내심 못마땅 하겠지만 現實的으로는 그러한 變化를 肯定的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立場이었다.

美·中共의 接近을 계기로 하여 北韓의 對美態度變化는 1972 年 5 月 美國 「솔스베리」記者가 北韓을 訪問 金日成과 面談한 內容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당시 金日成은 對美關係改善의 希望을 비치면서 美國으로 하여금 ① 統一問題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內政干涉을 中止하고, 그러기 위해서 美軍이 「유엔」軍의 명목으로 韓國에 주둔하는 것을 종식할 것, ② 日本軍國主義再生을 원조하지 말것, ③ 「유엔」에서 北韓에 對한 不當한 立場을 버릴 것 등 先제조건을 제시하였다.

이와같은 金日成의 對蘇態度 變化는 분명히 美·中共間의 接近에 對한 反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北韓은 종래의 對美강경 태도의 緩和와 더불어 근본적인 利害의 相衝에도 불구하고 制限된 범위에서 記者, 學者 등 個別的 人事들의 往來를 허용하는 등 對美接近의 信號를 보내고 美國內 親北韓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人民外交」手法을 시도하고 있다.

1973年 「유엔」 「음서버」 團의 상주 사무소설치를 계기로 北韓은 「유엔」 本部를 거점으로 美國內에 국제적인 宣傳의 기지를 구축하고 美國內에서 美國의 對韓半島政策을 反對하는 여론을 야기시켜 駐韓美軍 철수 압력을 기도하고 美國政策當局의 立場을 궁지로 몰아넣음으로써 美國의 對韓支援強化를 꾀하고 있다. 北韓은 南北對話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休戰協定の 署名當事者 또는 駐韓美軍의 國軍作戰指揮權을 근거와 이유로 들어 1974年 3月부터 美國과의 平和協定체결을 주장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종래까지 韓國에 대해서 要求해오던 平和協定締結 주장이 우리의 불가침협정체결제의로 전략적인 열세에 직면하자 對南基本戰略을 음폐하려는 위장평화술책 또는 駐韓美軍의 撤收를 促進시키려는 政治心理 전적, 선전의 저의로 밖에 볼 수 없다. 다시말해서 그와같은 선전적 계의로써 北韓은 美國內의 平和主義 輿論에 영합하여 對外的인 「이미지」 改善을 꾀하는 한편, 美國內의 一部 批判적인 對韓輿論을 선동하여 韓·美關係를 이간하고 궁극적으로 韓國에 대한 美國의 支援을 弱化시킴으로써 우리측 安保態勢의 脆弱化를 기도할 수 있다는 이중의 의도를 관철시켜 보려는 속셈인 것이다.

北韓의 日本에 대한 政策이나 立場은 1964年 韓日間 基本條約이 체결됨에 따라 종전의 대일친선희망을 급선회하여 強硬路線으로 되었다.

韓·日條約이 締結된 후 韓·日間の 經濟協力關係가 증대되자 北韓은 韓·日條約 廢棄와 양국간의 經濟協力中止를 要求하였고 특히 1969年 「닉슨」·「사또」共同聲明 이후에는 對日強更路線을 노골화하였다. 그러다가 1972年부터 北韓은 對日態度에 부분적인 수정을 보여주었다.

1972年1月 日本 「요미우리」新聞記者와의 「인터뷰」에서 金日成은 日本政府에 대하여 對北韓敵對政策을 폐기하고 가능한 범위의 人士交流와 經濟文化交流를 擴大할 것을 希望하였고 이후 日本 政黨 및 社會團體代表들이 北韓을 訪問하는 등 改善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1972年 9月 「다나카」日本首相의 北京訪問에 대한 北韓의 反應은 日·中共關係의 正常化를 환영하는 肯定的 態度였다. 日·中共關係의 改善에 따라 北韓은 日本과의 友好關係를 서두르는 積極적인 제의를 하였고 對日關係의 前提條件으로 삼았던 韓·日條約의 廢기주장을 후퇴시키는 한편 日本으로 하여금 南·北韓을 同等하게 대우하도록 요구하였다. 1972年 9月 金日成은 日本 「마이니찌」新聞記者와의 「인터뷰」에서 그와 같은 입장을 밝히고 記者, 技術者, 人事交流 및 경제, 문화교류 확대를 희망하고 在日同胞(朝鮮聯系)의 北韓自由往來를 요구하였다.

이후 日·北韓間에는 記者團 및 藝術團의 交換, 政界, 財界人事의 왕래 등이 증가하고 경제교류가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中共과 蘇聯을 통한 對日友好態度 중용으로 日·北韓關係는 더욱 好轉의 方向을 보여주면서 北韓의 對日態度는 더욱 積極성을 띄게 되었다.

이와같은 北韓의 好意的인 對日態度轉換은 日本의 對南北韓等距離 外交政策을 誘導하여 韓·日基本條約을 무력화시킴으로써 相對的인 韓國의 安保態勢 弱化를 기도하는 한편 日·北韓間 經濟協力關係의 增進을 꾀하려는 저의로 평가된다. 이와같은 기본적인 저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北韓은 당장 日本이나 美國과의 公式的인 關係設定이 不可能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소위 人民外交方式을 주사하여 美國이나 日本國內의 民間 여론에 침투하여 對韓國지원에 대한 회의감을 조장하는 선전에 광분하고 있다. 특히 最近 北韓의 工作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해외교포에 대한 침투를 강화하여 교포사회내의 분열을 책동하고 분파간의 알력을 國際的인 선전 및 대한 여론악화에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 8. 南北統一을 위한 外交的 課題

여기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南北關係에 걸은 國際的 利害가 얽혀있고 또 南·北問題의 順調로운 解決을 위해서는 國際的인 協調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면 統一을 위한 外來의 重要性은 自明해진다. 統一을 위해서 造成되어야 할 事件을 國內的인 것과 國外的인 것으로 나눈다면 後者의 造成은 外交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앞서 論한 바와 같이 後者의 比重이 크기 때문에 「統一外交」의 役割도 그만큼 더 重要해지는 것이다.

韓國은 不信解消→緊張緩和→信賴回復→漸進的 統一이란 段階的인 統一政策을 따르고 있음은 이미 몇번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現段階의 過程은 統一事件造成的인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하여 南北間에 不信을 될수록 減少시키고 緊張을 緩和함으로써 戰爭可能性을 抑制하고 南北關係를 安定化해야 한다. 이것이 成功的으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보다 本格的인 統一努力을 試圖해 볼 수 있는 것이다.

緊張緩和와 戰爭抑制를 위하여 國際社會, 特히 美·蘇·中·日의 4大強國의 協調가 必要함은 말할 것도 없다. 特히 美國과 日本이 우리의 統一政策을 받아 드려 이를 國際的으로 支援해 주어야 할 것이며 南北關係가 보다 安定化될 때까지 美國이 對韓防衛公約을 強力히 闡明함으로써 韓國의 安保를 鞏固히 하여 한편 韓國은 安心하고 統一努力에 임할 수 있고 다른 한편 北韓은 平和統一外에 다른 생각 - 즉 武力에 依한 赤化統一 같은 것 - 을 念頭에 두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勿論 美國이나 日本外에도 傳統的으로 우리와 友好的 關係를 維持해 온 世界의 諸國들이 韓國統一政策의 妥當性을 確信하여 이를 支持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統一外交의 첫 要請은 우리의 傳統的인 友

邦諸國 특히 그 중에도 美國과 日本에게 南北關係에 대한 韓國의 立場을 잘 納得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必要한 모든 同調와 支援을 아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平和統一을 위하여 順調로운 進歩가 있기 위하여서는 共產世界가 특히 蘇聯과 中共이 韓半島情勢를 올바르게 理解하고 韓國이 推進하는 統一政策이 가장 合理的이고 現實的이라고 認定함으로써 소극적으로는 이에 妨害하지 않고 積極的으로는 이에 支援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緊張緩和와 戰爭抑制를 위하여 共產國家들이 그들의 態度를 分明히 하여 萬若 北韓이 武力南侵을 企圖할 때 이들로부터 아무런 支援도 期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制動을 받을 것임이 確實해져야 된다. 多幸히도 蘇聯과 中共이 韓半島에 對하여 安定化政策을 따르고 있는 것 같으며 美國과 이들 強大共產國들과의 사이에 韓半島의 安定化란 目標에 對하여 合意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統一을 위한 韓國外交의 둘째 要請은 共產國들로 하여금 北韓에 對하여 恫容과 壓力을 加하여 武力에 依한 南北關係의 解決을 斷呼히 포기하고 平和的 解決의 길을 確固히 扼하게 하도록 努力하는 일이다. 이와같은 目的을 위하여 6.23 宣言의 모든 國家에 對한 門戶開放政策은 지극히 適切한 것이다. 다만 이 政策이 共產諸國, 특히 蘇聯과 中共에 依하여 受諾됨으로써 實効를 거두어 韓國이 共產圈과 幅 넓은 交易 및 外交關係를 맺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韓國이 南北對話를 시작함으로써 北韓의 國際進出을 보다 有利하게 만들어 주었다. 즉 韓國의 새 統一政策이 北韓으로 하여금 國際的 孤立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뜻이다. 이것은 南北의 緊張緩和를 위해서 有用하고도 必要한 일이다.

따라서 北韓을 承認하는 國家의 數가 늘어 날 것이며 보다 많은 國際機構에 加入하고 보다 많은 國際會議에 參席하게 될 것이다.

73年の 第28次 「유엔」總회에서 처음으로 北韓이 招請되어 우리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한 것이 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緊張緩和, 南北關係의 安定化를 위해서는 必要하고도 有利하지만 韓國外交의 立場에서는 중요한 挑戰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73年の 「유엔」總회에서와 같이 南北韓이 直接 마주 서는 機會가 늘어 갈 것이므로 過去에는 韓國의 外交陣이 一方的으로 活動했던 곳에서 이제는 北韓과 競爭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어떤 危機意識을 가질 必要는 없다. 첫째 韓國의 統一政策이나 對外政策이 北韓의 그것보다 더 正當하고 또 國際적으로 그 正當性を 더 널리 認定받고 있으며 둘째로 韓國이 北韓보다 훨씬 더 豊富한 外交資源 (知識과 經驗을 갖춘 外交官들, 韓國에 同調하는 友邦의 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北韓에 比해 단연 優勢한 편이다.

그러나 韓國外交의 目標이 單純히 北韓에게 이기는데 그치지 않고 南北關係를 合理的으로 이끌고 나가서 國際的 環境을 잘 調整하여 韓半島에서 緊張緩和와 戰爭抑制는 물론 窮極적으로 民族의 念願인 平和統一을 成就해야 하기 때문에 韓國外交가 질머진 挑戰은 보다 더 重且大한 것이다.

### 第三部 分断国家의 統一問題

- 1 . 分断国家의 유형
- 2 . 越南의 統一問題
- 3 . 中国의 統一問題
- 4 . 独逸의 統一問題
- 5 . 分断国 統一方式의 韓半島 援用  
가능성과 限界

## 1. 分断國家의 類型

오늘날 地球上에는 代表的인 4개의 分断國家가 存在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分断의 經緯나 原因 또는 分断政治單位間的 相互關係나 政策的 立場에 따라 몇가지로 類型化해 볼 수 있다. 우선 分断의 經緯에 따라 보면 “國際型”, “國內型”, “混合型” 등 세가지로 類型化가 가능하다.

첫째, 東·西獨의 경우나 南·北韓의 경우는 國際型分断國家로서 分断의 經緯가 國民들의 希望과는 關係없이 強大國들의 政策이나 利害關係에 따라 行된; 말하자면 他意에 의해 分断이 強要된 例이다.

둘째로, 中共과 台灣의 경우는 國內型分断國家로서 分断이 内部革命이나, 同族相殘에 의해서 이루어진 例로 分断의 原因이 内亂에서 비롯된 경우이다.

셋째로, 越南의 경우는 混合型分断國家로서 初期에는 國內型分断의 類型에 속하다가 後에 國際的 介入이 이루어지는 型態이다.

이와같은 分断國家들은 다같이 自由民主主義와 共產主義間 「이데올로기」의 對立樣相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自由民主優勢型”, “相互勢力比等型”으로 類型化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分断國家의 두 政治單位 또는 政權間的 相互關係 또는 政策的 立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세가지 類型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첫째 分断兩側이 모두 자신을 全國民을 代表하는 것으로 主張하며 強大國들에 의해서도 그렇게 認定되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分断兩側間에 公式的인 關係가 없다는 점에서 “無關係”類型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서로 相對側의 不法性を 主張한다는 점에서 相互 不承認關係라고도 말할 수 있다. 中共과 台灣의 關係와 南北韓關係가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로, 分断一方이 正統性 또는 唯一代表性을 主張하는데 반해 또 다른 一方이 實際上 또는 法律上으로 두개의 統治單位 存在 또는 國際法的 國家성을 내세우는 경우이다. 예컨대 東方政策 以前의 東·西獨關係가 이경



우에 해당된다. 獨逸聯邦共和國(西獨)은 근 20년간 唯一代表性主張을堅持하고 舊獨逸帝國의 後繼者라는 “核國家”理論 또는 분단상태의 궁극적인 극복을 의미하는 “全獨逸” 개념을 留保할 수 있는 지봉理論, 部分秩序理論과 같은 法理論과 解析을 展開해온데 반해 東獨은 50년대 중반 부터 再統一의 概念을 포기하고 “두개의 獨逸國家”라는 原則으로 전환하였다.

세계로 分斷兩側이 어느 地域에 대한 事實상의 계속적인 統治는 그 國家性 또는 合法的 權威를 가정사실로 상호수락할 수 있는 충분한 理由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받아들임으로써 똑같이 相對方的 同等한 地位를 인정하는 경우이다. 월남의 경우나 「브란트」의 東方政策以後 東·서독관계가 이에 해당된다. 越南과 越盟의 경우는 全越南을 누가 통치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相互見解가 다르지만 相互 別個의 統治單位로 相對하고 있으며 각각 法律的 獨立性을 용인하고 있다. 西獨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部分國家論的 接近을 견지하고 法律上 “두 國家”原理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東·西獨基本 條約이 체결됨에 따라 兩獨間에 是 政府 또는 國境線에 대한 상호 인정이 이루어지고 同時「유엔」加入을 실현하고 있는 점에서 불매 原則的인 說明을 초월하여 事實상 相互 國家承認의 패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2. 越南의 統一問題

越南戰은 軍事의 問題와 政治的 問題의 二元的 次元에서 解決이 摸索되고 있다. 軍事的 問題와 政治的 問題의 解決이 相互 密接한 函數關係에 依함은 勿論이다. 南北越南(越盟과 越南)의 統一은 越南戰에 따른 越國內의 政治的 問題가 解決된 後에 擧論될 것임으로 第2次的 課題이나, 越南戰의 政治的 問題의 解決方式에 따라 南北越南의 統一方法 및 時期의 短縮과 遲延이 決定될 것이라는 點에서 越南統一問題의 歷史的 特殊性이 있다. 즉 越南戰의 政治的 問題의 解決過程은 統一問題解決의 過程으로 分析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越南戰의 政治的 問題의 意味는 「프랑스」植民政策으로 부터 登場을 본 越南의 政治史的 背景에서 理解되어야 한다.

「프랑스」는 1858年 「나포레옹」 3세때 宣教師殉刑에 對한 報復의 名目으로 「다낭」에 對한 艦砲射擊을 開始한 以來 1884年頃에 이르러 越南을 「통킨」(北部) 「안남」(中部), 「코친차이나」(南部)로 3分하고 完全保護領化하여 植民政策을 遂行하였다.

이에 反仏鬪爭의 先頭에 나선 胡志明은 1930年 香港에서 「베트남」 共産黨(當時 印度支那共産黨)을 結成하였고, 1940年 9月 第2次 世界大戰中 日本軍이 北部 仏領印度支那에 進駐하자 「胡」는 1941年 5月 19日 抗日抗仏獨立을 標榜하여 「베트남」獨立同盟(「베트민」)을 結成하여 中國國境地區를 根拠地로 하여 「게릴라」活動을 展開하였으며 大戰終戰直後 軍事的 空白狀態下에서 「베트민」은 全土에서 蜂起하여 1945年 9月 2日 「「베트남」 民主共和國」의 樹立을 宣言하였다. 그러나 第2次 世界大戰의 苦境에서 벗어난 「프랑스」는 「베트남」에의 再進出을 斷念하지 못하였다.

「프랑스」는 1946年 3月 6日 「「하노이」 協定」을 通하여 「베트남」

民主共和國를 仏聯合內의 한 自由國으로 承認하였으나, 가장 肥沃한 高  
차이나」를 斷念하지 못하고 1946年6月 「高차이나 共和國臨時政府」  
를 樹立하므로써 越盟과 妥協을 이루지 못하여 마침내 1946年 12月  
19日 「프랑스」軍은 越盟에 對하여 全面攻撃을 開始함으로써 7年8個  
月間의 印支戰爭을 誘發시켰다. 戰局은 처음 「프랑스」側에 有利 하게  
展開되어 「베트남」은 「하노이」를 버리고 山岳地帶에서 「게릴라」戰을  
겨우 維持하는 形便이었으나 1949年10月 中央政權의 樹立과 더불어 情  
勢는 急變하여 中共으로부터 武器援助와 心理的支援을 받는 「베트남」은  
1950年9月 中國國境地域作戰의 勝利를 契機로 防禦戰으로부터 攻撃戰으  
로 轉向하였고 이어 戰爭主導權을 掌握한 「베트남」은 各地에서 「프랑  
스」軍을 擊破시켰다. 最後의 決戰을 企圖한 「나바르」最高司令官下 의  
「프랑스」軍은 1954年5月7日 「디엔비엔푸」激戰에서 死傷·捕虜合計,  
7万6,200名의 人命損失을 내고 決定的敗戰의 苦杯를 마셨다.

以上の 軍事情勢는 「프랑스」本國의 反戰構運의 增大와 더불어 1954  
年 7月 20日의 休戰協定成立, 21日의 最終宣言의 採択等 「제네바」  
協定締結로 發展하여 印支戰이 終結되었다.

越南戰解決의 基礎가 된 「제네바」協定은 同時 南北越南統一의 問題解  
決의 基礎가 된다. 「제네바」會談에는 越盟, 越南(바오다이 政權),  
「캄보디아」, 라오스 및 英, 美, 仏, 蘇, 中共의 9個國이 參與하였고 休  
戰協定은 「프랑스」와 越盟, 「라오스」 및 「캄보디아」 各國間의 兩者  
協定으로 成立되었으며 印支全域의 國際的 中立保障을 宣言한 最終宣言에  
는 美國과 越南은 直接 署名하지않고 다만 이를 支持한다는 单独声明을  
發表하였다.

「제네바協定」은 (1) 北緯 17度 軍事境界線은 어디까지나 暫定的인 것  
으로써 如何한 意味로서도 繼續的 政治的 或은 領土的 境界를 設定한것  
이 아니며 (同協定 6項), (2) 越南의 總選舉(南地「베트남」統一)는 「제

네바」協定이 規定한 國際監視委員團의 監視와 管理下에 1956年7月에 實施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同協定7項), 그러나 이 越南의 統一을 實現시킬 수 있었던 唯一한 總選舉는 그后 越南 및 印支事態가 單純한 植民地 解放戰의 次元을 넘어 東西冷戰體制間의 對立樣相으로 變貌함으로써 實施되지 못하였다. 傳統的植民政策에 批判的 態度를 取하여온 美國은 越南事態의 性格轉換에 따라 「제네바」協定締結直后인 1954年 9月8日 「東南亞條約機構」(SEATO)의 창설과 더불어 越南의 「고·딘·디엠」政權에 대한 軍事·經濟援助를 始作하였고 軍事顧問團을 直接 派遣하여 越南軍의 強化를 企圖했다.

이와같은 情勢變化의 背景 밑에서 「디엠」政權은 越盟에서는 自由選舉가 實施될 수 있다는 理由로 「제네바」協定이 規定한 南北統一選舉를 拒否하므로서 暫定的으로 「베트남」의 分斷이 固定化되었다.

## 나. 統一戰略

國際共產主義의 前衛로 登場한 越盟은 越南戰遂行過程에서 數次 「越南에 樹立될 새로운 政權과의 協商을 通하여 平和的 方法으로 南北越南의 統一을 實現시킨다」라고 標榜하고 있다.

越南戰은 共產側의 軍事的劣勢속에서 이른바 「越南人民을 掌握」하므로서 窮極的으로 越南의 赤化를 企圖하고 있다는 点에서 共產主義的 統一戰略遂行의 標本이 되고있다.

越南戰遂行上 共產側統一戰略의 核心은 (1). 軍事的으로 對敵할수 없는 外國勢力(美國)을 外交·協商·政治·心理戰 等 主로 非軍事的 術策으로 逐出し키고, (2) 越南政權의 政治的 混亂을 造成하고 民族勢力을 包摂하여 共產主義同調勢力을 拡張하고, (3) 于先 第1段階로 越南政府와 「베트남」의 對內外的 同格化를 實現시켜 越南에 聯立政府를 樹立시키고 第2段階로 完全赤化를 이루어 窮極的으로 南北越南을 統一시킨다는 基本構想에서 出發

하고 있다.

첫째로 軍事戰略面에서 美國은 1964年 8月 「통킹」만事態에 따른 上下兩院의 大統領戰爭遂行權限付條로 越南戰에 軍事介入을 斷行한 以來, 1968年頃에 53萬名規模의 最高水準兵力을 維持하였으며, 1965年 開始된 北爆은 「하노이」의 中心街 「하이퐁」港 主要 埠頭 「紅河」堤防等 몇몇 聖域을 除外한 越盟全城에 擴大되어 이미 1967年 8月 美上院軍備小委員會 報告에 依하면 越盟發電能力의 85%, 石油貯藏의 90%, 「레이다」網의 80%를 破壞시켰다. 따라서 越南人民의 2/3, 國土의 4/5를 所謂 解放시켰다고 宣傳하고 있는 共產側은 100餘萬의 死傷者를 내고 事實上 軍事作戰持統能力을 喪失하고 美國民의 反戰輿論의 利用等 主로 非軍事的인 政治·外交的 術策에 依하여 駐越美軍의 撤収를 貫徹시켰다.

그러나 駐越美軍의 撤収를 美軍의 一方的인 后退가 아니고 「越南戰化計劃」의 前進等 美國의 새로운 越南戰 戰略에 不過하다는 點을 想起하여야 한다.

둘째로 政治戰略面에서 「제네바」協定締結后 「고·딘·디엠」越南大統領은 反共獨裁體制를 確立하고 同族政治와 「카톨릭」우대政策으로 國民의約 80%를 占하는 仏教徒들의 反政府運動을 刺戟시켰다.

1963年 5月 8日 「고·딘·디엠」政權은 「후에市」 悤誕紀念日의 仏教徒集會에 對한 發砲를 契機로 全國적으로 擴大된 激烈한 反政府鬭爭에 부딪쳐 마침내 11月 1日 「두옹·반·민」將軍의 軍事「쿠테타」로 政權이 倒壞되었다.

以後 1964年 1月 30日 「구엔·칸」將軍의 「쿠테타」, 1965年 6月 19日 「구엔·카오·키」將軍의 政權掌握등등 前後 6回의 「쿠테타」의 連發로 越南政局은 激動을 거듭하여 오다가 1967年 新憲法에 따른 「구엔·반·티우」大統領 就任后 政治的 安定을 維持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다.

이와같은 政治的 安定을 維持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다.

이와같은 政治的 混亂과 併行하여 共產側은 1960年 12月 20日 「쿠엔·후토(前 「사이공」 弁護士)를 中央委幹部會議長으로 하는 이른바, 「越南民族解放戰線」(NLF)을 組織하여 越南에 對한 共產主義 침투를 強化하였다. 이 「民族解放戰線」은 民族의 獨立·中立 및 南北越南의 平和的 統一을 希求하는 越南의 모든 階層·勢力의 結集이라고 表明 하고

① 美國과 사이공政權을 打倒하여 民族民主聯立政府를 樹立하고

② 平和中立外交政策을 遂行하며

③ 南北關係의 正常化와 平和的 再統一의 現實을 主張하는 政治綱領을 標榜하고 있으며 특히 1968年 旧正攻勢直后 이른바 「民族民主平和勢力 聯合」을 組織하여 「사이공」政府에 反對하는 民族主義勢力의 대두 라고 主張하고 있으나 이것은 「統一戰線論」에 立脚한 共產主義的 偽裝戰術에 不過하다.

共產側은 이미 1969年 6月 8日 이른바 「越南臨時革命政府」를 樹立하여 國家承認의 劃策等 對內外的인 政治基盤擴大에 全力하고 있으며, 「① 平和·獨立·中立을 贊成하는 越南各階層人民 및 各政治勢力과 더불어 臨時聯立政府를 樹立하고, ② 이 臨時聯立政府 監視下에 總選舉를 實施하며 國會를 構成, 新憲法을 判定하고, ③ 이 憲法節次에 따라 聯立政府를 樹立한다」는 共產主義의 基本公式에 따라 戰略을 推進하고 있는 바, 共產側은 이와같은 戰略으로 越南이 赤化된 以後에 南北越南의 協商에 依한 全越南의 赤化統一을 構想하고 있다.

한편 1968年 5月以來 4年餘에 걸친 「파리」越南平和協商은 空轉을 거듭하다가 最近에 이루어진 美國·越盟間의 秘密交涉이 結實을 보아 마침내 1973年 1月 28日 「파리」越南平和協定이 調印되었다.

1954年 「제네바」協定이 共產側의 對南侵略의 時間的 餘裕를 提供하는데 不適하였다는 點에서 「파리」越南平和協定의 意味는 今後の 歷史가

判定할 것이나 于先 越南의 平和的 問題의 解決과 더불어 政治的 問題解決의 基盤을 構築하였다는 点에서 注目된다. ① 同協定 第9項B項은 南「베트남」國民은 國際監視下에 總選舉를 實施하여 南「베트남」의 政治的 將來를 決定하며 ②, 第12條는 3 個同等部分으로 「民族和解國民會議」를 構成하여 總選舉를 組織·實施토록 規定하였다.

여기서 「3 個同等部分」이란 現 越南政府勢力, 「베트콩」 및 「中立北力」을 指稱함은 勿論이다. 그리고 「民族和解國民會議」가 滿場一致制를 採択하고 있음은 注目할만하다. ③ 여하튼 이 協定은 끝으로 南北「베트남」의 統一은 外國의 干涉없이 南北「베트남」間의 協議를 거쳐 平和的 方法에 依하여 段階的으로 遂行한다고 規定하였다. 이 「파리」越南平和協定으로써 美國과 越南政府는 越南內의 政治問題解決方法으로 共產側이 主張하여 왔던 臨時聯立政府에 依한 總選舉實施 代身에 「民族和解國民會議」에 依한 總選舉實施를 受諾함으로써 共產側의 主張을 包容하고 있다.

이러한 立場은 共產側의 主張을 受諾하는듯 하면서 事實은 「베트콩」을 越南政治秩序속에 吸收하려는 巨視的 戰略이다. 「美國과 越南은 1954年 「제네바」 協定에 따른 17度軍事境界線의 回復을 主張하면서 南侵한 共產軍의 撤収를 要求하여 왔으며 이번 「파리」 越南平和協定에서 비록 越南의 軍事的 現狀凍結을 受諾하였지만 胡志明 「루-트」의 封鎖가 現實化될 경우 「베트콩」은 軍事的으로 無力化될 것이며 同時에 時間이 經過함에 따라 「베트콩」은 마침내 越南政治秩序에 吸收될 것이다.

이와같이 越南內의 政治的 問題가 解決된 다음 越南은 南北越南의 統一問題를 南北越南의 自由民主總選舉 實施라는 새로운 課題로 提起할 것이다.

### 3. 中國의 統一問題

#### 가. 歷史的 背景

中國의 統一問題는 1949年 共産党的 本土掌握을 契機로 비롯되지만, 實際적으로는 國共鬪爭時期까지 遡及되어야 한다.

1911年 辛亥革命에 의한 清朝崩壞后 新中國의 建設, 社會改造의 風潮가 高潮되고 列強의 反植民地狀態로 부터 解放되려는 運動이 急激히 일어나, 1919年 5月 14日 日本이 袁世凱政府에 強要한 이른바 「21個條 要求」에 反對하는 學生「메모」(5.4運動)가 勃發 中國近代化運動의 先驅들이 魯었다.

이와같은 過程에서 中國統一問題와 가장 밀접한 關係가 있는 事項은「國共合作」의 成立이다. 1921年 中國共産黨을 創立한 陳獨秀는 孫中山의 「聯蘇容共」政策에 따라 1922年 8月 國民黨에 入黨하여 「國民黨改造起草委員」으로 任命됨으로써 國共間의 實質的인「合作」이 成熟되어 1924年 1月 「國民黨 第1次 全國代表者大會」에서 마침내 國共合作이 結實을 보았다. 그러나 第1次 國共合作은 1927年 8月 中共黨이 「南昌」暴動을 勃發시키고 國際共産主義指令에 따라 「소비에트」政府 樹立을 企圖하자 「武漢政府」가 共産黨肅清을 實施함으로써 滿 5年만에 瓦解되었으며 1937年 第2次 國共合作이 成立될 때까지 9年間 流血鬪爭이 繼續되었다. 第1次 國共合作이 決裂되게 된 具體的過程은 極히 復雜하지만 基本的인 原因은 國民黨의 民族主義와 共産黨의 國際主義間의 革命의 主導權爭奪戰때문이다.

第2次 國共合作은 表面上 1937年 부터 1945年까지 8年間 繼續되었으며 이 동안에도 國共間의 摩擦이 繼續되었으므로 實質的으로는 1年間(1937 ~ 1938) 維持되었다.

第2次 國共合作의 成立原因은 1936年 12月 12日 「紅軍」 掃蕩戰部



\* 隊의 張學良과 楊虎城이 蔣介石을 抑留하고 紅軍掃蕩停止와 抗日 共同戰線形成을 要求하자 蔣介石은 當時 日本軍의 華北前方掠奪企圖를 감안하여 不得已 「先安內後攘外」政策을 變更하지 않을수 없었기 때문이며 한편 中共黨도 軍事的 劣勢뿐만 아니라 「反帝國主義人民戰線組織決議」 (1935年 7月 國際共產主義 第7次大會決議)에 따라 「抗日統一戰線」 構築을 要求하는 「國際共產主義」의 立場을 受諾한 때문이었다. 中共黨은 第2次國共合作에서 表面的으로 「소비에트」樹立과 「紅軍」의 名目을 버리고 階級鬭爭을 中止하였을뿐만 아니라 蔣委員長을 擁護하고 「三民主義」에의 服從을 公言하였으나 實質的으로는 「國際共產主義」의 指令에 表示된바와 같이 中國赤化를 爲한 戰略遂行에 腐心하였다.

以上과 같이 中國共產黨은 1921年 創立以來 無數한 挫折을 거듭하여 1949年 本土掌握에 成功하였으며 現在 國際情勢는 中共에게 極히 有利한 方向으로 急進展하고 있는바, 中共이 劣勢한 立場에서 推進된 國共合作의 歷史的 經驗이 中共이 優勢한 立場에서 展開될 中國統一問題에 어떻게 反映될는지 注目된다.

#### 나. 統一政策

中國의 統一問題는 한때 「유엔代表權」問題를 中心으로 國際輿論上에 「두個의 中國觀」이 拳論된바로 이지만 「하나의 中國觀」으로서 一貫되 어 왔다. 國府는 1945年 7月 台灣을 接收하였으며 1949年 12月 中共의 大陸制覇에 따라 臨時政府를 台北으로 옮긴以來 「大陸反攻」을 基本政策으로 하여 「하나의 中國觀」을 堅持하였다.

勿論 「大陸反攻」政策은 1954年 12月 調印된 「美華共同防衛條約」의 附屬覺書에 美國의 同意를 必要로 하는 事項이며 특히 1958年 10月의 蔣·「덜레스」共同聲明에 따라 武力行使는 制限받고 있음이 現實이 다.

그러나 台灣政府는 1954年 11月 1日 總選直轄機關으로 「大陸光復設計委

員會」를 設置하고 約 1,500名 規模의 國民代表와 行政院所屬設計委員 等 總 2,000名規模 (1969年 現在)의 汎國民的人士로 構成되어 大陸光復에 關한 다각적 諸方案을 研究하므로써 積極的인 統一政策을 追求하고 있다. 이와같은 努力에도 不拘하고 現在의 國際情勢로 보아 台灣政府의 「大陸反政」概念은 軍事的 概念이라기 보다는 中共內部指導層의 紛糾等 中國本土의 情勢變化에 期待를 걸고있다는 點에서 基本的으로 政治的 概念이다.

한편 中共의 統一政策도 「하나의 中國觀」에 立脚하고 있다. 다만 1955年頃을 고비로 「武力解放」政策에서 「平和解放」政策으로 統一戰略이 變化되었을 뿐이다. 1955年 「바르샤바」 美·中共會談을 前後하여 「平和解放論」이 대두된바 있으나 1970年 中共政治的의 左傾路線代表者인 陳伯達의 退脚 및 「周恩來外交路線」의 登場과 1971年 美·中共接近으로 中共의 統一戰線은 漸次 이른바 「平和解放戰略」으로 변모되고 있다.

中共指導層은 1945년부터 1949年間 이른바 內戰期에 「티베트」等 대만 以外의 여러地域을 戰爭없이 平和的으로 中共에 歸屬시킨 事實을 想起하여 이른바 第3次國共合作에 依하여 台灣을 中共主權下의 하나의 「自治區」로 만들려는 構想을 갖고있는 듯 하다.

事實 「하나의 中國觀」은 美·中共會談 過程에서 漸進的으로 浮刻되었다. 1955年 8月 1日 「바르샤바」會談에서 1972年 2月 27日 美·中共上海共同聲明에 이르기 까지 國際情勢는 中共側에 有利하게 움직여 「유엔」· 中國代表權問題가 解決되었으며 이른바 「台灣은 中國의 一部」이고 駐台美軍의 撤収에 關한 基本方向이 確定되었다.

여기서 「中國」은 반드시 中共을 指稱하는 것은 아니지만 美國이 「2個의 中國觀」 대신 「하나의 中國觀」을 確認한 것은 事實이며 美國은 「中共과 台灣間의 關係는 兩者의 協商으로 解決한다」는 基本立場을 取하되 되었다. 그리고 美國은 1973年 7月부터 시작되는 Fy '74에 台灣에 對하여 24年間 繼續되어온 軍事援助를 中斷할 豫定으로 있어 이로써

事實上 1954年 美·中相互防衛條約은 弱화될 것이다.

여기서 특히 注目되는 것은 이와같이 不利하게 움직이는 國際情勢와는 달리 台灣은 刮目할 經濟發展을 이루어 經濟的 獨立性을 確保함으로써 「유엔」脫退와는 對照的으로 國際經濟社會에서 重要な 位置를 維持하고 있다는 點이다.

中共은 1960年 ~ 1970年間 GNP 約 800億「달러」規模로 經濟成長이 停滯되어 있고 7億5,000萬人口는 年間1,500萬 規模로 增加하여 外援獲得의 約 1/3을 食糧과 肥料購入에 消費하고 있는 反面 台灣은 1960年 20億「달러」의 GNP가 1970년에 54億「달러」로 增額되어 年間 經濟成長率 10%를 나타냈을 뿐 아니라 同期間中 1人當 國民所得도 180「달러」에서 360「달러」로 增加하였고, 輸出도 1960年の 1億6,400萬「달러」에서 1970年の 12億4,800萬「달러」로 年間 約 25%의 上昇率을 나타내었다.

이와같은 台灣의 經濟的發展을 中國統一問題와 關聯하여 檢討할때 「中共은 台灣·香港 그리고 可能하다면 上海를 包含하여 輸出指向的인 自由貿易 經濟圈을 形成할 것이라는 極端論」도 있으나 이른바 台灣과 中共間에는, 「國防·外交分野는 中共이 掌握하고 相互 相異한 政治經濟體制를 維持하면서 政治的 宗主關係를 맺는 自治的國家類型」을 台灣이 受諾하지 않는 限 自由貿易圈形成論은 不可能할 것이며 台灣의 經濟的繁榮과 自立度가 強化될 수록 中共主導下의 統一中國의 實現은 어려워질 것이다.

## 4. 独逸의 統一問題

가. 独逸統一與件의 特殊性

· 独逸은 分斷 4 個國中 가장 本格的으로 東·西独 接觸을 維持해 왔으며 이미 基本條約을 締結하여 兩独關係를 正常化함으로서 새로운 次元에서 統一을 模索하고 있다.

西独은 「유럽」 共同体 (EC)의 核心國家로서 經濟力을 主軸으로 한 越等한 國力の 背景下에서 所謂 「東方政策」을 能動的으로 推進하고 있으며 東独 또한 「올브리히트」와 「호네카」의 平和的 政權交替 (1971年 5月), 人口 1,700萬中 200萬의 黨員을 確保한 唯一한 近代政黨인 「社會主義 統一黨 (共産黨)」의 長期執權에 依한 政治的 安定과, 1969年 ~ 1969年間 西独에 肉迫하는 經濟成長率의 達成 (西独의 4.8%, 東独은 4.5%) 東歐圈最高의 生活水準의 維持等 經濟的安定으로 그 나름대로 對西独接近의 餘裕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西·西独接近이 急進展될 수 있었던 보다 根本的인 要因은 「유럽」의 國際政治的 與件에 있다.

(1) 西独과 西方聯合國間의 「独逸條約」(1952. 5. 26)과 東独· 소 聯間 主權條約(1955. 9. 20)等 모든 聯合國協定에 依하여 美·英· 仏· 소等 4大戰勝國은 東西独에게 平和的 統一接近을 要求할 權利를 留保하고 있다. 「東·西独 基本條約」締結直前인 1972年 11月 5日 美·英· 仏· 소는 独逸에 對한 權利와 責任을 계속 保有한다고 宣言하였다.

(2) 「나토」와 「바르샤바」機構의 軍事的 勢力均衡에 依한 「武器 制限會談」의 進度, 「유럽 安全保障理事會」와 「相互均衡減軍會議」의 開催 및 「獨· 소不可侵條約」의 締結(1970年 8月 12日)은 「유럽」緊張 緩和의 制度化를 促進시키고 있다.

(3) 圈內 經濟統合을 急進展시키고 東·西兩陣營間 經濟障壁의 突破口를 發見하려는 「유럽」經濟現況은 東·西歐 緊張解消와 經濟的 接近의 加速化를 招來하였다.

「유럽共同市場」(EEC)은 1962年 工產品大量輸入制限措置撤廢以來 漸次 關稅同盟의 實現段階에 있으며 1978年頃에는 農業資金共同調達이 實現되고 1969年 「헤이그」 6個會員國 首腦會議는 經濟 및 通貨聯盟의 段階的 創設에 合意했다. 特히 「유럽共同市場」은 이미 「自由通商地域」과의 統合을 實現했다. 한편 東歐經濟體制인 「相互經濟援助 評議會」(COMECON)는 會員國 相互間의 雙務協定 締結에 依한 經濟協力の 實現과 會員國 相互間의 經濟發展段階의 隔差에 따른 市場統合과 關稅同盟組織 必要性的 회박等 共產主義經濟體制的 特異性에 따라 「歐共市」와 같은 水準의 經濟統合은 實現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1970年 5月 「코메콘」國際投資銀行設立을 契機로 國際的 社會主義 分業의 促進에 따른 經濟統合이 加速化 되었다. 이 같이 經濟統合으로 成長해온 東西經濟體制는 經濟的 繁榮을 持續시키기 爲한 政治的 安定을 要求할뿐 아니라 規範弘大의 經濟理論에 따라 東·西歐 經濟圈의 接近을 誘發하였다.

(4) 다음 具體적으로 美·소의 對「유럽」政策의 同調現象이 東西獨 接觸을 促進하였다.

첫째 政治的 側面에서 美國이 西獨의 對소 提携牽制政策과 소聯의 東歐支配權에서 妥結點을 發見하였으며, 둘째 軍事的側面에서 美國의 西歐駐屯美軍의 減縮政策과 소聯의 中·소 國境地帶와 「유럽地域에서 兩面戰線維持를 回避하려는 政策은 「유럽」의 緊張緩和를 招來하였다.

特히 中·소國境地帶에 全地上軍 160師團의 1/4인 44個師團을 配置하고 東歐에 31個 師團을 配置하브로서 軍事力을 分散시키고 있는 소聯은 「유럽」의 緊張緩和를 早速히 實現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經

濟的側面에서 美國은 東·西歐經濟의 接近을 支援하므로서 美國經濟의 對 東歐圈進出의 先導的 役割을 要求할뿐아니라 美·西歐間 經濟的 마찰을鈍化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소聯은 對西獨 經濟제휴로서 國內 經濟發展의 沈滯을 극복하려고 企圖하므로서 美·소는 東·西歐經濟結合에서 妥結點을發見 하였다. 特히 소聯은 西獨에 突然「가스」를 供給하고 西獨의 資本과 技術을 導入하고 있으며 1972年中 소聯, 西獨間 交易量은 10億「달러」로 急增하였다. 이와같은 「유럽」의 國際政治的 背景뿐만 아니라, 東·西獨은 戰后社會文化的, 經濟的 接觸을 維持하여 왔기때문에 1970年에 비로소 이루어진 東·西獨 頂上會談은 오히려 매늦은 感이 있었다. 1972年5月12日 東·西獨 通行에 關한 最初의 國家協定이 成立되기以前에도 西獨人은 年一回 4週間 東獨의 近親訪問이 許容되어 60年代中 盤期부터 每年約 100餘萬規模의 西獨人이 每年 東獨을 來往하였다. 그러나 東獨人의 西獨 訪問者數는 1957年以來 旅行制限強化로 65歲 以上の 年金生活者에 局限되어 年間 約 2萬名 規模이었다. 이 人的交流以外에도 東·西獨間에 經濟交流가 持續되어 왔다.

일찍기 1945年8月 「포스담」協定은 獨逸을 單一經濟圈으로 規定하였으며 1949年 別個의 東·西獨政府가 樹立된 以後에도 西伯林的 「東西交易信託所」와 東獨의 「對外 經濟省」에 物資交易이 持續되어 1951年 「占領地域의 交易協定」(伯林協定)締結로 發展하였으며 東·西交易規模는 1970年 45億 4,800萬「마르크」에 達하였다.

다만 西獨은 東獨의 主要通商對象國으로서 東·西獨交易은 東獨 總交易量의 10%로 2位를 占하고 있으나(소聯이 40%로 1位) 西獨의 立場에서 보면 2%를 占하여 11位에 이르고 있다. 如何든 東·西獨間의 人的交流를 비롯한 모든 社會文化的 交流와 經濟交流는 東·西獨間의 段階的 接近을 實現시킨 結果가 되어 1970年의 政治的 接近을 順調롭게 하였다.

## 나. 統一政策

東獨의 具體的 統一方案은 1956年 「울브리히트」의 提議로 發端을 보아 大體로 1960年頃까지 公式的으로 主張되었던 「國家聯合」案 이며 戰略的으로는 國際法上 西獨과의 地位同格化獲得企圖이었다.

1950年 東獨 「폴란드」條約에서 「오렐」~「나이제」境界線을 確定한 것이나 1968年 東獨의 新憲法이 「東獨을 獨逸民族의 社會主義國家」로 規定한것은 國際的 國內的으로 東·西獨의 地位同格化를 위한 戰略的 陰謀가 內包되어있다. 卽 東獨의 基本統一戰略은 「國家聯合」案이나 이를 貫徹하기 위한 前단계로서 東·西獨의 地位同格化作業이 要望되었다. 東西獨은 「國家聯合」을 統一의 中間解決形態로 規定하였으며 「國家聯合」下의 東·西獨은 相互主權不干涉原則이. 適用된다고 主張하였는 바, 여기서 「國際法的條約」이나 「主權不干涉」云云은 亦是 東西獨 地位同格化를 爲한 意圖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東獨은 國家聯合構成의 前提條件으로서 東·西獨의 非核化, 「나토」와 「바르샤바」條約機構로부터 東·西獨의 脫退·東西獨間 同水準의 減軍 및 外國軍의 卽刻 或은 段階的 撤收實現을 爲한 努力等 軍事的 問題의 先決을 主張함으로써 當時 中歐의 軍事的 中立化를 企圖한 蘇聯의 立場을 反影하고 있다.

여 하튼 軍事的問題가 解決되면 「國家聯合」의 政府機能을 担当하는 「全獨委員會」를 構成하고 關稅·通貨聯盟의 創設을 비롯한 各分野의 交流를 「段階的」으로 擴大하여 統一與件을 造成하고 「全獨議會」構成을 爲한全獨 單一選舉를 實施하여 獨逸統一을 實現하자는 要旨이다.

한편 東獨의 統一政策은 1949年부터 1965年頃까지 西獨의 單獨代表權主張, 東獨의 合併孤立化, 自由選舉實施主張等 「힘의政策」을 堅持하여오다가 대체로 1966年 基民·社民聯立政權樹立后부터 「接觸을 통한 東獨

變化論」에 立脚한 平和統一政策으로 轉換하여 1969年 社民·自民聯立政府에 이르러 「브란트」西獨首相의 有名한 「東方政策」에 따라 「事實上의 東獨承認」 「規制된 共存概念」適用에 依한 劃期的統一政策을 推進하고 있다. 「브란트」首相의 「東方政策」은 獨蘇不可侵條約을 締結하여統獨推進의 國際的與件을 造成하고 東獨의 「事實上承認」東西獨間의 現存境界線認定 및 變更禁止等 現實認定政策으로 부터 出發하여 戰爭再發禁止와 東西獨 相互間 國內最高權不干涉에 立脚하여 兩獨關係를 規制하는 「基本條約」을 締結함으로써 이른바 「單一獨逸民族의 二個獨逸國家」概念을 適用한 새로운 哲學에 따른 統一接近方法이다.

即, 統一을 實現하기 爲하여 東西獨分斷을 잠정적으로 固定化시킨 逆說的 統一接近方法으로써 다만 東·西獨分斷의 永久的 固定化를 防止하기 爲하여 東獨을 「事實上」 承認하면서도, 「國際法的承認」을 絶對反對하고 東西獨關係를 「國際法上國家關係」가 아닌 「特殊關係」라고 規定하였다.

여 하든 「東方政策」의 統獨論理는 東西獨分斷現實을 認定하고 相互 交流 擴大에 依한 統獨接近의 「段階的實現」에 있는바 第1段階는 東西獨相互 共存段階이며 第2段階는 東西獨交流增進에 따른 東西獨共同社會(community) 形成段階으로써 이 段階에서 社會文化的 「統合」에 基礎한 「政權統合」으로서의 統一을 實現할 수 있다는 것이다.

以上과같이 「國家聯合」案에 立脚하여 現實적으로 國際法的 東·西獨 同格化를 企圖하는 東獨의 統一接近과 東獨의 事實上 承認에 基礎하여 「交流」擴大로 東獨社會變質을 企圖한 西獨의 統一接近論理는 關係正常化를 爲한 東西獨政治接近의 妥結點을 마련하여 1970年 3月과 5月の 東獨의 「에어프르트」와 西獨의 「캄셀」에서 西獨「브란트」首相과 東獨「슈토프」首相間의 兩次頂上會談을 實現시켰으며 마침내 1972年 11月 8日 「東西獨基本條約」의 締結로 一段落되었다.

이 基本條約은 ① 어느一方이 他方을 國際적으로 代表할 수 없으며 主



權不干涉等 同等權의 基礎위에서 善隣關係를 增進하며, (2) 東西獨間 見解 差를 平和的方法으로 解決하고 現存國境線을 侵害하지 않고 相互 減軍과軍 備減縮을 爲해 努力하며, (3) 經濟 科學 技術 交通等 諸分野의 努力을 強化한다는 內容이다.

이 基本條約은 첫째로 「나토」와 「바르샤바」條約機構로 부터의 脫退問題를 拳論하지 않음으로써 相互國家安保問題를 沮害하고 있지않으며, 둘째로 東西獨統一方案에 對하여 具體적으로 言及하고 있지않다는 基本的特徵을 갖고 있다.

그러나 西獨은 基本條約이 東西獨의 現狀을 事實上 認定하고 諸般分野의 交流를 實現시킬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는 點에서 自身の 統一接近原則이 貫徹되었다고 解釋할 것이고 東獨은 基本條約을 國際法的 條約締結에依한 東西獨 同格化의 實現으로 간주하고 「國家聯合」으로 가는 過程으로 생각하여 自身の 統一接近原則이 貫徹된 것으로 解釋할 것이다.

여하튼 이와같은 東·西獨의 迂廻的 統一接近方式은 統一을 事實上 拋棄한 消極的 政策이라고 評價할는지 모르나 異質的 政治·社會·文化體制로固着된 斷絶社會를 連結하는 「community」의 形成이 前提되지 않고는 統一이 不可能하다는 點에서 가장 合理的이며 最短의 統一實現方法이 될는지 모른다.

## 5. 分断国 統一方式의 韓半島 援用 可能性과 限界

以上에서 越南, 中国 그리고 独逸의 統一問題를 分析檢討하면서 특히 共産側의 統一政策은 政治的 与件의 차이에 따라 多様な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赤化目的 達成을 위한 戰略·戰術上의 差異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韓半島의 統一与件은 南北韓이 대체로 相互勢力均衡狀態에 있고 周辺強大국이 現狀維持를 追求하고 있다는 점에서 独逸類型이 가장 類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라도 韓半島와 独逸의 統一問題는 基本的인 差異가 있으며 각각 与件과 政策上의 特殊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独逸方式을 韓半島에 適用하기에는 많은 限界點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韓半島의 특수성에 비추어 본 独逸方式의 援用可能性과 限界는 어떠한 것인가?

韓半島는 7.4 南北共同聲明이후 政治的水準의 南北對話를 개시함으로써 「基本條約」을 체결하여 分断의 問題를 일단 解結한 東·西獨의 「모델」에 接近하고 있다.

그러나 韓·獨兩國間에는 統一与件의 相違點이 허다함을 想起할 필요가 있다. 몇가지 例示를 하면 다음과 같다.

(1) 独逸은 民族的單一性を 견지하면서, 복수국가를 유지하여온 역사적경험을 갖고 있으나 한반도는 三國統一이후 民族과 國家的單一性を 固守하여 왔으므로 統一에 대한 民族的熱望은 극치에 이르고 있다.

(2) 統獨政策의 背景으로서의 歐洲는 동서구 「뿌력」간의 軍事的勢力均衡으로 體制간의 安定이 現實적으로 확보되어 있으며 특히 西獨과 소련은 일찍부터 外交關係를 유지하여 왔을뿐만 아니라 최근 獨·蘇, 獨·波條約(사실상 不可侵條約)의 체결과 더불어 「歐洲安保會議」와 「相互均衡減軍會議」가 개최되어 東·西獨간의 軍事的衝突可能性은 거의 없게 되었다.

반면 極東地域은 朝蘇·朝中 軍事同盟体制과 自由陣營의 韓美相互 防衛 條約과 美日安保條約의 三角防衛同盟体制間에 軍事的均衡이 條約文上, 表面的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는듯 하나 日本의 軍事政策은 아직 未知數이며 특히 北韓의 好戰的인 赤化統一政策이 사라지지 않는限 極東地域의 軍事的緊張은 계속될 것이다.

(3) 東獨의 西獨에 대한 戰略概念은 한때 攻勢的인 聯邦論을 주장한 적이 있으나 최근에는 蘇聯의 歐洲現狀凍結政策概念의 範圍內에서 西獨으로 부터의 國家承認獲得에 집착되어 國際法的承認 및 東西獨의 즉시 「유엔」加入을 要求하므로써 對西獨政策目的이 制限되고 守勢的 이었다.

이와 반대로 北韓當局은 國際法上承認要求를 前面에 내세우고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른바 「大民族會議」의 構成, 南北聯邦制의 실시, 南北韓 政治協商會議의 開催등 分斷의 現단계에서 도저히 實現할 수 없는 非現實的이며 非合理的인 提案을 單純히 政治心理戰的 目的에서 제기하고 있다.

(4) 東西獨은 分斷 以後 勿論 緊張고조시 일시 중단은 있었지만 經濟를 비롯하여 非政治分野의 交流를 계속 維持하여 왔다. 이와 같은 基盤위에서 東西獨은 70年代에 들어와 順調롭게 政治的 接觸을 할 수 있었으나 南北韓關係는 對話 以前까지 完全히 단절상태에 있었다.

以上과 같은 몇個의 与件分析으로 韓半島는 아직 獨逸方式이 適用될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獨逸에 대한 모든 与件은 共存指向的인데 반하여 韓半島의 경우를 統一指向的이다.

美·蘇·英·仏등 獨逸問題에 영향을 미치는 強大國은 1,2次大戰의 經驗을 통하여 統一된 獨逸의 출현을 실제상 원하지 않는 實情이나 美·蘇·中共·日本등 韓半島 問題에 影響을 미치는 強大國은 韓半島의 統一을 反對할 決定的인 理由는 없다.

뿐만 아니라 7.4 南北共同声明에서 自主平和民族的 大團結 등 統一三原則에 합의한 南北韓은 1,300 余年의 統一國家를 유지해 온 民族史的 經驗이나 統一指向的인 國民意識構造로 보아서도 統一에 對한 一言半句의 언급도 없는 東西獨 基本條約類型의 解決方式은 受諾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韓半島의 경우에는 獨逸方式이 원형 그대로 適用될 수는 없고 보다 統一指向的인 平和共存의 새로운 方式이 개발되어야 한다.



## 第四部 韓國의 統一政策

1. 韓國統一方案의 變遷過程
2. 平和統一의 中長期 構想
3. 政府의 平和統一 努力
4. UN을 통한 統一에의 接近
5. 非政治分野 優先主張의 內容
6. 不可侵協定 提議의 正當性
7. 政府의 統一政策의 理論的 背景

## 1. 韓國統一方案의 變遷過程

大韓民國政府는 政府樹立以來 統一問題를 國家政策의 基本으로 삼고 여러 가지 可能한 方案등을 모색해왔다. 大韓民國 政府樹立以後 政府가 제시해 온 統一政策의 變遷과정은 편의상 ①政府樹立後 動亂休戰까지, ②「제네바」會談以後 4.19까지, ③4.19以後 5.16까지, ④5.16以後 10月維新까지 四段階로 나누어 考察해볼 수 있다.

### ① 政府樹立後 動亂休戰까지

大韓民國政府는 1948年 8月15日 獨立政府樹立을 内外에 宣布하고, 統一을 實現하기 위한 方案으로 다음과 같은 內容을 闡明하였다. 즉

①大韓民國政府는 憲法의 規定에 따라 全韓半島에 걸쳐 主權을 갖는 唯一合法政府임을 선언하고, ②選舉가 保留된 北韓에서 조속히 民主的 選舉를 실시하여 國會에 空席으로 남겨둔 100席의 議席을 채우도록 促求하며, ③北韓收復은 北韓同胞들의 자발적 意思에 의하여 성취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北韓住民의 自由意思가 계속 封鎖되는 경우에는 武力에 의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主權을 回復할 권한이 있음을 명백히 뒀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와같은 統一方案은 먼저 平和的 方法에 의한 統一을 모색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는 武力에 의한 統一도 不辭한다는 것으로 大韓民國이 韓半島의 唯一合法政府라는 主張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러한 兩面的 手段에 의한 統韓原則은 1960年 4月革命에 이르기까지 自由黨 政府의 基本立場으로 고수돼왔으나 그 內容은 다소 修正되었다.

韓國政府는 1948年 12月12日 3次「유엔」총회결의에 의해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政府로 공인되었고 전한반도의 完全獨立과 自由選舉에 의한

統一政府樹立을 지원하려는 「유엔」의 目的을 존중하여 南韓內 「유엔」의 活動에 적극 협조하였다.

1950年 6月 25日 北韓共產主義者들은 武力南侵을 實施하여 “平和統一”이라는 美名으로 위장된 武力統一의 野慾을 들어내게 되자 動亂中 韓國政府는 “憲法節次에 의한 統一”을 “武力에 의한 統一”로 일시 政策轉換을 하였다. 1950年 10月 李大統領은 收復된 北韓地域에 대한 行政權을 大韓民國이 行使해야 한다는 見解를 表明하였고 第六次 「유엔」總會에서는 北韓에서만 「유엔」監視下自由選舉를 實施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후 休戰協商의 기운이 沈沈해지자 李大統領은 어떤 休戰도 反對하며 北進統一을 爲한 單獨戰鬪의 결의를 淸명하였으나 1953年 7月 28日 다시 “「유엔」과의 協助에 의한 統一”로 태도를 바꾸어 다시 「유엔」을 통한 統轄原則으로 복귀하였다. 한편 同年 11月 23日 李大統領은 特別聲明을 통하여 “北韓만의 選舉로 國會의 殘余議席을 채우는 것이 原則이나 北韓住民이 願한다면 全國總選舉를 받아들일 用意가 있다”고 밝혀, “北韓地域만의 選舉”로부터 “全國總選”으로의 政策的인 전환을 보여 주었다.

## ② 「제네바」會談以後 4.19까지

休戰協定에 따라 韓國問題의 平和的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高位政治會談이 1954年 4月부터 6月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이 會議에 參席한 당시 外務長官 卞榮泰氏는 韓國統一에 關한 14個項目의 綜合的 提案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① 6個月內에 「유엔」감시하에 大韓民國憲法節次에 따라 비밀, 보통 투표에 의한 남북한을 통한 자유선거 실시



- ② 選舉區의 正確한 人口比例에 따라 새로 國會議員數를 定하기 위해 「유엔」감시하에 國勢調査를 실시
  - ③ 「유엔」감시단원 및 立候補者의 活動 및 言論에 관한 完全한 自由保障
  - ④ 總選後 서울에서 개최될 全韓國立法府가 새로 憲法을 改正하기까지는 大韓民國憲法이 계속 효력 유지
  - ⑤ 選舉日字 1個月前까지 中共軍의 완전 철수
  - ⑥ 「유엔」軍의 철수개시. 단 「유엔」軍의 철수는 統一政府가 全韓國에 대한 完全統治를 달성하고 이를 「유엔」이 확인할 때 종료
- 以上과 같은 建設的 提案에 대해서 北韓側은 「유엔」의 감시역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면적인 거부태도로 일관하고 터무니없는 “平和的 解決”云云하면서 會談을 상습적인 선전의 場所로 惡利用하였다. 「제네바」會談이 2개월간의 討議를 거치면서도 아무런 성과를 견지 못하고 결렬되자. 韓國側은 共產主義者들과의 協商이 無益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한편으로 休戰協定의 파기와 戰爭再開論과 같은 강경한 立場까지 대두되어 “單獨北進統一論”과 “「유엔」감시하 北韓만의 選舉論”이 다시 主張되게 되었다.

한마더로 李承晚 自由黨政府의 통일방안은 「유엔」에 의한 統一이라는 명분을 철회하지는 않았으나 실제로 武力的 方法에 의한 北韓地域收復이라는 강경입장을 유지하여 사실상 平和的 統一方案을 不信하는 입장이었다. 이와같은 自由黨政府의 통일방안은 국제정세가 冷戰에 의한 東西兩陣營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어 있던 狀況과 특히 動亂中과 같이 統一을 實現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 時期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一面 수궁이 가지만 지나친 武力依存論은 오히려 世界여론에 好戰的이라는 인상을 줌으로서. 友邦 美國으로 부터도 武力統一方案의 포기를 강력히

종용받는 처지였다.

### ③ 4.19以後 5.16까지

4.19革命에 의해서 政權을 引受하게 된 民主黨政府의 統一方案은 自由黨의 完고한 武力統一論을 철회하고 “南北總選舉에 의한 平和統一”이라는 「제네바」原則을 따르게 되었다. 이와같은 立場에서 民主黨政府는 1960年 8월에 發表된 外交施政方針에서 “北進統一과 같은 무모하고 무계획적인 「슬로전」을 止揚하고, 「유엔」決議를 존중하며 「유엔」監視下에 南北韓을 통한 選舉에 의한 統韓政策을 수행한다”고 천명하였다. 이러한 民主黨政府의 政策表現 가운데 自由黨政府와 달라진 것은 “「유엔」決議에 의한”이란 文句를 “「유엔」決議를 尊重하며”로 바꾼 점이다. 이는 亞·阿新生國들이 대거 「유엔」會員國으로 加入함에 따라 「유엔」會員國 수가 근 100余個國으로 증가한 現實을 고려한 대 처였다.

4.19以後의 혼란속에서는 또 한편 「맨스필드」美上院議員의 中立化統一論과 美·日등의 一部 海外僑胞들의 主張들이 國內에 波及되어 革新系와 保守野黨一角에서까지 南北交流, 中立化統一論을 공공연히 주장하기에 이르렀고, 一部 言論 및 學生·青年團體들이 이에 동조하여 民間의 統一論議는 혼란상을 면치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政府는 中立化統一의 非現實성과 共產主義者들의 기본적인 意圖를 경각시키면서 中立化統一方案에 대한 反對의 立場을 분명히 하였다. 民主黨政府는 결국 短命으로 因하여 구체적이고 實踐的인 統一政策을 실시하지 못한채 5.16을 맞게 되었다.

#### ④ 5.16以後 10月維新까지

軍事革命政府가 統一問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취한 조치는 극도에 달하는 國內政局의 혼란과 反共体制의 弱化, 統一論議의 無秩序를 극복하고 國論의 一致를 도모하는 일이었다. 이와같은 軍事革命政府의 努力은 民政移讓後 共和黨政府에 의해 그대로 계승되어 “先建設 後統一”이라는 口號아래 統一方案의 論議보다는 統一을 위한 力量의 培養에 重點을 두는 方向으로 進展되었다. 60年代를 통해서도 이와같은 統一問題에 대한 기본입장은 일관되게 견지되어 感像的인 空論이나 非現實的인 統一論議가 배격되었고 본격적인 勝共統一政策推進을 위한 卓실한 준비가 이루어졌다.

對「유엔」政策은 종래까지의 「유엔」감시하 自由總選舉라는 統韓原則이 고수되었으나 1968年 제 23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유엔」의 現實에 맞추어 종래 韓國問題의 自動上程方式을 裁量上程方式으로 전환하여 「유엔」을 통한 統一接近 전략에 다소 융통성있는 變化를 보여 주었다. 國內적으로는 國民들의 上昇하는 統一與論에 부응하면서 長期的이고 組織的인 統一問題研究를 위해 1969年 3月 1日 國土統一院을 發足시키는 등 國內정치의 安定과 經濟發展의 기반위에서 새로운 統一의 希望을 고무하였다.

1970年代 들어서면서 政府는 平和統一을 위한 實踐的 方案을 더욱 具體化하고 積極的인 統一意志를 다짐하게 되었다. 朴大統領이 1970年 8.15 慶祝辭를 통하여 平和的 祖國統一이라는 命題를 제시하고, 北韓側에 대하여 善意의 体制競争에 나서도록 촉구한 것을 계기로 政府의 統韓政策은 획기적인 轉換을 보게 되었다. 이와같은 8.15 平和統一構想은 이듬해 8月 12日 南北赤十字會談提議로 具體化되면서 平和統一 政策은 南北間의 人道的 接觸, 非政治的 交流, 政治的 對話라는 三段階統一接近

方案으로 公式化되었다.

이와같이 70년에 들어서 平和統一構想을 具體化하게 된 배경으로는 국제적인 긴장완화의 진전과 주변정세의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려는 韓國政府의 적극적인 의지가 크게 작용하였다. 政府는 1972年 7月 4日 平和, 自主, 民族大同團結이라는 統一基本原則에 대한 南北間 合意를 達成하여 歴史的인 共同聲明을 發表하게 된 것을 계기로 本格的으로 南北對話를 主導하고 “對話를 통한 接近”, “對話를 통한 平和” “對話를 통한 統一”을 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對話努力에 보조를 맞추고 國際的인 環境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朴大統領은 1973年 6月 23日 “平和統一 外交政策에 관한 大統領 特別 宣言”을 發表함으로써 祖國統一에 관한 一貫된 意志를 천명하고 “先平和後統一”이라는 現實的인 方案을 구축하였다. 6.23 宣言에서 제시된 7個項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 ① 祖國의 平和的統一은 民族의 至上課題이다.
- ② 韓半島의 平和는 반드시 維持되어야 하며, 南北韓은 서로 內政에 간섭하거나 侵略하지 말아야 한다.
- ③ 南北對話의 구체적인 성과를 위해 인내와 성실로써 계속 노력해야 한다.
- ④ 北韓이 國際機構에 참여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
- ⑤ 北韓과 함께 「유엔」에 加入하거나 동시 초청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
- ⑥ 大韓民國은 호혜평등원칙하에 이념, 체제를 달리하는 모든 국가와도 文호를 相互 開放할 것을 촉구한다.
- ⑦ 대한민국 外交政策의 基本은 平和善隣이며 友邦과의 유대는 더욱 공고히 해갈 것이다.

以上과 같은 6.23 宣言은 7.4 南北共同聲明의 精神을 再確認하고, 그 바

타당위에서 祖國의 統一을 성취할 때까지 과도적, 잠정적인 조치로서 南北韓間에 平和的 關係를 定着시킬 수 있는 現實的 方案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一貫된 韓半島 平和追求政策은 1974年 1月 朴大統領의 年頭記者會見에서 發表된 南北韓不可侵協定提議에서도 具體적으로 表現되었다.

이와같이 南北對話開始以後 政府가 一貫되게 추구해 온 平和統一方案은 1974年 8月 15日 제 29주년 광복절 朴大統領 경축사에서 “平和統一基本三原則”으로 定着되었다. 朴大統領은 同 경축사에서 7.4 남북공동성명과 6.23 평화를 일의고선언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남북대화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북한공산주의자들에게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화통일의 기본원칙을 천명하였다.

- ① 南北韓은 相互不可侵協定을 체결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 ② 남·북대화를 성실히 진행시켜야 하며, 남북간에 상호 문호를 개방, 다각적인 交流와 協力 등으로 상호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 ③ 이상과 같은 바탕위에서 공정한 選舉管理와 감시하에 土着人口比例에 의한 南北韓 自由總選舉를 실시하여 統一을 이룩한다.

以上과 같은 平和統一을 위한 三大原則은 “先平和後統一”이라는 實踐段階를 再確認한 것이다.

## 2. 平和統一의 長期構想

第二次世界大戰以後 東西世界の 「이데올로기」의 分極化 過程에서 國土가 兩斷된 分斷國으로써 分斷을 克服하고 統一을 이룩하는데 成功한 國家는 하나도 없다. 東西間에 冷戰이 激化하던 時期에는 武力이 統一手段 乃至 領土併合의 手段으로 登場하기 欲했지만 東西間의 冷戰的 對決關係에서 武力行使를 通해 統一을 成就하는데 成功한 事例도 없다.

1950年代의 6.25動亂은 北韓側이 武力에 依하여 韓半島 全域을 共產化 統一하기 爲해 挑發한 戰爭이었다.

그러나 共產側의 이같은 企圖는 「유엔」旗幟下에 盟軍 自由陣營의 參戰으로 沮止되었고 國軍과 UN軍이 38度線以北으로 反擊作戰을 擴大하여 統一의 展望이 보였으나 中共의 介入으로 目的을 達成치 못했다.

따라서 武力行使가 統一의 手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第二次大戰以後의 東西關係가 展開되어온 力學의 論理에서 證明되었다고 보아도 過言은 아니다.

그러면 武力行使와 같은 軍事的 征服을 前提하지 않는 統一接近方法은 存在할 수 없을 것인가? 이 說問은 바꾸어 말하면 平和的 手段에 依한 統一은 可能할 것인가에 關한 說問이다. 이에 對한 應答은 共產主義者들에게서는 容易하게 도출될 수 있다. 그들은 「레닌」의 平和共存理論, 毛澤東의 人民革命理論의 戰略戰術化에 依하여 平和的 方法으로 赤化統一이 可能하다고 主張할 것이다.

그러나 不幸히도 民主陣營에서는 「이데올로기」的으로 敵對하고 있는 分斷國家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体系的 理論의 整備가 없고 西歐 社會學者들이 抱括적으로 取扱한 統合理論(Integration theory) 가운데도 自由·共產의 「이데올로기」가 對立하고 있는 分斷國들의 平和的인 政治

統合의 問題는 取扱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最近에 이르러 東西間에 冷戰이 解氷되고 緊張緩和趨勢가 登場함에 따라 東西間에 造成되는 緊張緩和, 和解(detente) 그리고 協力の 論理를 分斷國의 平和的 政治統合의 課題에 代入시키려는 理論的 試圖가 行해지기 시작됐다.

美國 「콜롬비아」大學 教授 「즈비그뉴·브르제진스키」(Zbigniew Brzezinski)가 發表한 4段階 平和統一方案은 이같은 理論的인 試圖의 代表的 例이다. 「부르제진스키」는 「이데올로기」的으로 對立하고 있는 韓半島가 平和적으로 統合되기 爲해서는 南北關係가 다음 4段階로 變遷될 수 있어야 한다고 展望했다.

即 第一段階는 直接的 對決關係, 第2段階는 衝突과 경쟁의 混合關係, 이 段階를 거쳐 第三段階는 制限된 協調關係, 맨 마지막으로 第4段階는 廣凡한 協助關係인 바 적어도 南北韓이 現在의 不和와 體制差異에도 不拘하고 平和적으로 統合되기 爲해서는 이같은 4段階의 變遷을 거쳐야 한다고 主張했다.

東西關係의 解氷的 進化過程에서 推論된 이 理論은 그 成果가 實證되지 않는 하나의 假說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假說은 다음 세가지의 事實과 關聯하여 政府의 平和統一을 爲한 中長期構想說定의 理論的 基礎로 活用될 수 있다.

첫째로 70年代의 韓半島 周邇情勢가 武力에 依한 韓半島의 現狀打破를 希望하지 않으며 萬一 統一을 爲한 武力對決의 可能性이 增加된 경우 韓半島의 統一보다는 分斷의 現狀固定化를 強要할 國際關係가 發展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둘째는 「유엔」의 勸告에 기초한 韓半島의 平和統一可能性이 全無해졌다는 事實이다.

北韓이 「유엔」總會의 勸告를 거부하는限 「유엔」의 統韓決議案은 實效를 見할수 없는 것이며 實사 北韓이 「유엔」의 勸告를 受諾하다고 해도 南北韓이 50年代의 動亂以來 休戰線을 中心으로 높은 軍事障壁을 쌓은 가운데 4 반세기 동안 相互異質化의 過程을 걸어왔기 때문에 南北間에 가로놓인 이같은 制度上의 差異가 土着人口比例에 기초한 自由總選舉만 實施하면 奇蹟과 같이 解消될 수 있다는 것이 證明되지 않는限 平和的인 政治統合의 結果를 가져온다고 期待할 수 없는 時点과 狀況에 놓여 있는 것이다.

세 제는 政府가 以上 두가지 判斷에 비추어 韓半島의 統一을 平和的으로 成就하기 爲해 南北間의 相互武力行使拋棄를 提案하는 8.15宣言을 發表했다는 事實이다.

따라서 政府는 이같은 段階說을 平和統一을 爲한 南北關係 展開의 可能한 論理로 判斷하고 이에 立脚하여 南北關係 展開의 四段階 構想을 定立했다.

即 第1段階는 對立關係로서 50年代와 60年代의 南北關係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第二段階는 南北間의 衝突과 競争이 混合되는 關係로서 現時点의 南北韓關係를 予想했으며, 第二段階는 交流關係로서 南北間의 對話가 열리고 共榮에 對한 合意가 이루어짐으로써 諸般分野의 交流가 促進되어 國土分断에 起因하는 民族的 苦痛과 不便이 輕減되는 時期로 보았으며 第四段階는 南北間의 分野別 協力과 交流가 增進되고 南北間에 異質的 要素가 縮少되는 反面 民族的 同質性의 영역이 擴大됨으로써 南北이 平和的으로 統合될 關係가 整備되는 段階로 보았다.

結局 統一은 이 第4段階以後에 解決될 것으로 展望했다. 그리고 南北關係 變遷의 諸段階는 狀況要素를 中心으로 可變性을 지니기 때문에 將來에 關한 限 具體的 時期判斷을 留保했다.



### 3. 政府의 平和統一努力

70年代 접어들면서 現狀維持를 基調로 하는 緊張緩和와 平和共存의 方向으로 展開되고 있는 情勢變化는 東北亞의 國際關係에 있어서 現狀變更要因으로 評價될 수 있는 韓半島의 統一에 대해 否定的 분위기를 造成한다. 다시 말해서 강대국들은 한반도의 統一보다는 分斷의 現狀固定化에 關心 갖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러한 주변정세속에서 우리는 統一에 對한 希望보다는 統一에 대한 希望을 상실당할 위기요소를 엿보게 됐던 것이다. 더욱 不幸한 것은 休戰期間을 利用하여 武力增強을 서둘러온 北韓이 도발적 책동으로 韓半島의 긴장이 고조되고 우리는 그러한 北韓의 南侵可能性에 對備하여 總力安保態勢를 가다듬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不幸한 狀況속에서도 우리는 統一을 이룩하기 위해서 새로운 選擇을 필요로 하였다. 1970年 8月 15日 朴大統領은 다음과 같은 平和統一構想을 發表했다.

- ① 統一은 반드시 平和的으로 이룩해야 한다. 統一이 時急을 要하는 民族의 至上課題라고 하더라도 同族相殘의 戰爭은 反對해야 한다.
- ② 北韓은 무장공비의 南派등 모든 戰爭挑發行爲를 즉각 中止하고 戰力에 의한 赤化統一企圖의 拋棄를 内外에 천명하고 이를 行動으로 實證해야 한다.
- ③ 이러한 우리의 要求를 北韓이 수락한다면 南北間에 가로놓인 人爲的 장벽을 段階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도 現實的인 方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
- ④ 北韓은 더 이상 무고한 北韓同胞의 民生을 犠牲시키면서에 광분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고 보다 善意의 競爭, 共産獨裁 어느 體制가 國民을 더 잘살 수 있게 할지 더 잘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社會인가를 立證하

과 創造의 競爭에 나설 것을 제의한다.

이와같은 朴大統領의 8.15構想을 起點으로 우리는 1971年 8月 12日에 南北赤十字會談을 제의하여 南北關係를 對決의 構造에서 對話의 構造로 전환시켰고 다시 朴大統領은 南北間의 理解를 增進하기 위해서는 모든 問題에 관한 의견을 交換하는 對話의 門을 여는 것이 必要하다고 判斷하여 1972.5.2.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北韓에 보내어 歷史的인 7.4 南北共同聲明을 실현하는등 南北對話開設을 주도하였다.

平和統一은 一方에 의한 他方の 征服이나 一方의 原則을 他方に 強要하는 論理로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政府에서는 十月維新을 통하여 憲法上의 取復條項을 削除함으로써 平和統一에 대한 우리의 立場을 制度化하고 漸進的이고 段階的으로 統一을 성취한다는 方針을 立案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우리 政府의 方針은 다음과 같은 狀況判斷에 기인한다.

첫째로 現在의 南北韓은 理念과 體制가 相異하기 때문에 一舉에 政治的인 統一을 期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統一을 지향하는 過程으로서 民族的 同質性을 回復하고 體制收斂의 與件을 擴大해 가는 일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南北間에는 50年代의 武力對決과 그에 뒤이어 不和가 계속 심화돼왔기 때문에 統一에 關한 原則合意가 具體化되기 위해서는 상호신뢰성 회복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 相互間의 접촉과 교류가 성과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남북간에 해결해야 할 懸案問題의 성격을 現實的 基礎위에서 재평가하여 가능한 해결을 모색하고 문제의 難易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判斷에 기초하여 우리 政府는 통일문제를 漸進的, 段階的

으로 해결한다는 立場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立場에서 分斷으로 困한 民族的 苦痛과 不便을 하나씩 해결하기 용이한 것부터 해결해 나가면서 그러한 過程에서 適對感을 완화하고 相互信賴 분위기를 조성하고, 民族同質性回復을 期함으로써 平和的 統一을 成就한다는 現實的 方案을 정립했던 것이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北韓은 이와같은 우리측의 現實的 統一接近方法에 適應할 수 있는 體制內的 準備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아니라 모든 것이 武力에 의한 對南赤化를 위한 兵營體制이며 경직된 閉鎖體制이기 때문에 南北對話도 그들의 赤化統一 目的에 봉사하지 않는 限 對話의 교착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었다.

따라서 우리 政府는 2年間의 對話經驗을 기초로 하여 北韓의 체제적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없이는 對話에 의한 統一接近이 곤란하다고 判斷하고 1973年 6月 23日 平和統一外交政策을 宣言하였던 것이다. 同宣言으로 우리는 南北關係의 歷史的 現實을 現實대로 認定하는 토대위에서 平和적으로 統一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北韓에 대한 封鎖政策을 해제하여 그들로 하여금 外部情勢를 意識케 함으로써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企圖의 무모성을 자각케 하고 우리의 점진적 平和統一接近 方案에 호응하도록 유도한다는 정책적 입장을 취하였다.

6.23宣言은 現段階에서 우리의 平和統一原則을 集約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① 民族의 至上念願으로서 祖國統一은 반드시 平和的 方法에 의해 自主적으로 성취해야 한다.
- ② 南北韓은 統一이 성취될 때까지 過渡적으로 「유엔」에 同時加入 함으로써 「유엔」憲章體制下에서 서로 侵略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 조건에서 平和統一을 성취할 수 있는 南北關係를 定立한다.

③ 조국통일의 現實的 障礙要因인 南北間의 체제차이는 民族史的 正統性에 立脚해서 극복돼야 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신뢰의 발판을 넓혀 民族的 同質性을 回復하여 통일조건을 실질적 개선을 이룩한다.

④ 南北韓間에 가로놓여 있는 諸般問題를 成功的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現在의 南北關係에서 해결하기 용이한 문제부터 시작하여 점차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指向하는 단계적이며 점진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⑤ 祖國統一을 위한 國際的 環境을 助成하기 위해 우리는 理念과 体制를 달리하는 國家와도 互惠平等의 원칙하에 門戶를 開放한다.

이러한 原則을 具体化하는 조치로서 朴大統領은 1974年 1月 年頭記者會見에서 南北韓不可侵協定을 제의하여 韓半島平和關係 樹立을 위한 現實的 代案을 제시한 바 있으며 더우기 1974年 8月 15日 제 29차 광복절에서는 平和를 우리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첫째 ; 韓半島에 平和를 정착시켜야하며 이를 위해 南北은 상호불가침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둘째 ; 南北間에 相互門戶를 開放하고 信賴를 回復해야하며 이를 위해 南北對話를 성실히 進行시켜야 하며 多角的인 交流와 協力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 이 바탕위에서 公정한 선거관리와 감시하여 土着人口 비례에 의한 南北韓自由總選舉를 실시하여 統一을 이룩하여야 한다.

#### 4. UN을 통한 統一에의 接近

70年代에 들어와서 南北間에는 UN加入問題를 重要하고 切實한 大論爭을 전개하고 있다. 즉 韓國이 朴大統領의 6.23 特別宣言을 통해서 「國際聯合의 多數會員國의 뜻이라면 統一에 障礙가 되지않는다는 前提下에 우리는 北韓과 함께 國際聯合에 加入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고 闡明한데 대하여 北韓 金日成은 「高麗聯邦共和國」과 같은 國號下의 單一加入을 主張하면서 南北UN同時加入의 民族永久 分斷論을 제기하고 있다.

現在까지 나타난 金日成의 主張을 종합해 보면 ① 南北韓同時UN加入은 韓半島의 永久分斷과 關聯되는 것이므로 絶對反對하며 ② UN에 「음서버」代表部를 설치하는 것과 UN加入問題는 別個의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즉 北韓은 UN本部에 代表部를 設置하고 UN專問機關에 韓國과 同時 參與함으로써 同時加入 아닌 事實上的 同時加入狀況속에서 單一加入을 主張하는 策略一辺倒의 心理戰攻勢를 전개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과연 北韓側主張과 같이 UN同時加入이 民族分斷을 永久化하느냐 하는 점이다. UN歷史는 加入과 民族내지 國家分斷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① 소련은 對外的으로 엄연히 하나의 主權國家임에도 불구하고 UN에서는 蘇聯, 白「러시아」, 「우크라이나」의 3 3個代表權을 차지하고 있으며 ② 東西獨이 동시에 UN에 加入되었어도 兩獨은 UN加入을 결코 統獨의 拋棄로 看做하지 않으며, 한편 UN도 兩獨의 UN加入을 受諾함에 있어 굳이 「하나의 獨逸」 또는 「두個의 獨逸」與否에 관한 有權的結論을 내리지 않았다. ③ 「탄가니카」와 「잔지바르」가 「탄자니아」라는 單一國家로 統合됨에 따라 UN代表權도 單一화된 先例가 있으며 ④ 「싱가폴」은 「말레이시아」聯邦으로 부터 獨立함으로써 別途의 UN代表權을 보유하게 되었다. ⑤ 뿐만아니라

埃及과 「시리아」의 境遇는 2個의 國家가 2個의 代表權을 보유하다 하나의 國家 하나의 代表權으로 統合되고 다시 2個의 國家, 2個의 代表權으로 分離되었다.

以上과 같이 UN은 憲章에 규정된 義務를 수락하고 UN에 의하여 同義務를 수행할 能力과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平和愛護國에 加入의 門戶가 開放( 憲章第 4條 1項 ) 되나 UN의 加入이 바로 加入國에 대한 모든 會員國의 承認을 意味할 수는 없다. 이상과 같은 客觀的 狀況을 韓半島에 적용시켜 볼 때 ① 南北韓의 UN加入이 바로 雙方間의 承認이나 分断永久化의 意味로 解釋될 수 없으며 ② 어떠한 形態로든 統韓만 되면 UN代表權의 單一化는 극히 간단한 節次에 不過하므로 ③ 金日成이 聯邦制를 一方的으로 主張하면서 「聯邦制에 의한 單一加入이 아닌 同時加入은 分断을 永久化시킨다」고 固執하는 것은 國際關係의 現實을 외면한 억설에 불과한 것이다.

南北韓의 同時UN加入은 北韓의 主張과는 반대로 韓半島緊張緩和의 國際的 與件을 조성하므로써 統一을 앞당기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獨斷과 我執에 사로잡혀 戰爭準備에 광분하고 있는 北韓이 UN憲章秩序에 편입된다면 現國際情勢 밑에서 戰爭挑發이 얼마나 무모한 行爲인가를 실감할 것이 때문이다.

「分断國家一般理論」의 立場에서 보아서도 南北韓同時加入은 能을 수행한다. 基本的으로 分断國家는 分断地域雙方이 國家的正統性을 主張하므로써 緊張이 高潮되고 있다.

따라서 UN同時加入이 實現되면 相對方의 法的承認問題는 차치하고라도 우선 國際的 正統性競爭이 緩和내지 消滅되므로 緊張要因이 除去되며 相互交流와 協力の 國際的與件이 조성되게 될 것이다. 동시에 國際的側面에서의 南北韓交流와 協力の 強化는 國內的側面에서의 相應하는 交流와 協力を 誘發하게 될 것이며, 이는 緊張緩和의 國際潮流속에서 民族의 威信과 긍지를 드높이면서 祖國의 平和統一을 促進하는 實質的인 지름길이 될 것임에 틀림 없다.

## 5. 非政治分野 優先主張의 內容

우리側은 6·25와 같은 同族의 비극이 再現되는 것을 防止하고, 人爲的 장벽으로 南北이 分斷됨으로써 겪고 있는 民族的 苦痛을 완화내지 解消시킬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로서 平和的 統一을 成就하기 위하여, 비상한 國際的 關心과 뜨거운 國民의 성원아래 北韓과의 對話를 開始하였다.

解放이후 계속되어온 南北間의 斷切로 인하여 南北韓의 現實은 매우 相異한 것으로 發展되어 왔으며, 斷切의 時代에 대한 終止符를 찍고 統一을 成就시키기 위한 南北韓의 접촉擴大方案도 서로 相反된 主張으로 나타나게 됨을 그간의 적십자 會談과 調節委會談을 통하여 똑똑히 알게 되었다.

北韓側은 무엇보다도 南北韓이 고려 聯邦制를 실시하여야 된다는 것을 내세워 政治協商을 優先해야 된다는 立場을 強調했으며, 또한 美軍의 철수, 南北韓의 兵力강축, 軍需物資導入 中止등을 내세워 軍事協商을 先行시켜야 한다는 先政治軍事協商, 後非政治分野 交流를 主張하였다.

이에 反하여 우리側은 南北韓間의 접촉은 우선 人道的이며, 社會文化的 經濟的 交流등과 같은 非政治的分野부터 始作하여, 南北間의 信賴분위기를 이루고 난 以後에 政治軍事的 協商이 行하여져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先非政治分野交涉 後政治協商을 主張하였고, 南北間의 基本立場이 이와같이 예민하게 對立됨에 따라서 南北韓間의 意見의 一致가 곤란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側이 내세우는 非政治分野우선 交流案에 있어서의 非政治分野로서 1973年 6月 12日에서 6月 14일까지 계속된 南北調節委員會 第三次會議에서 이후락委員長이 다음과 같은 15개항의 交流를 제안하였다.



즉 經濟分野로서 ①經濟人 交流 ②物資의 交流 ③科學 技術의 交流 ④資源의 共同開發 ⑤商品展示會의 交換開催 ⑥商品의 交換常駐등을 논의 하여 經濟的 相互利益을 追求할 것을 主張했으며, 社會文化 分野로서 ⑦學術, 文化 分野의 交流 ⑧體育分野의 交流와 國際競技 單一팀의 構成 ⑨映畫 무대藝術의 交流 ⑩考古學과 民族史의 共同 研究와 開發 ⑪固有 言語의 保存을 위한 研究 ⑫各種 社會人士와 團體의 交流 ⑬記者의 交流와 常駐 ⑭書信전화, 전보등 通信의 交流 ⑮觀光 分野의 交流등을 提案하였다.

우리側이 主張하는 非政治分野 우선交流案에 있어서의 非政治分野에는 이委員長이 主張한 15個 項目이외에도 적십자會談에서 論議되는 人道的 次元의 家族찾기도 이에 포함됨은 물론이다.

그밖에도 經濟的 分野로서 可能한 交流型態로서 南北韓 共同어로가 提起될 수 있으며, 또한 비무장지대의 多目的 開發등을 南北이 協力하여 推進함으로써 相當한 經濟的 利益이 追求될 수 있을 것이다.

要컨데 우리側의 非政治分野 우선交流는 李 厚洛委員長의 提議에서 밝혔듯이 까다로운 政治體制에 관한 論議나 軍事的 問題에 관한 論議는 南北이 서로 믿을 수 있게 되는 狀態에 도달하기까지 연기하고, 政治軍事 問題以外的 모든 分野에서의 南北交流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側은 南北 社會의 完全한 相互開放을 과감히 主張 하였던 것이다.

南北 社會의 完全한 相互開放 提案은 政治 軍事的 面이외의 모든 分野에서의 南北交流를 實現시키겠다는 우리側의 決意를 反映하고 있는 것이다.

## 6. 不可侵協定協議의 正当性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하고 祖国의 平和統一을 成就하기 爲해서는 南北이 서로 敵對해서 相對方을 실력으로 公략하려 든다든지 相對方의 內政에 간섭하여 이러쿵 저러쿵 시비를 건다든지 또는 現在 南北關係를 規律하고 있는 休戰協定을 無視한다든지 하는 行爲를 막는 것이 先決問題이다.

74年 1月 18. 年頭記者會見에서 朴大統領이 提議한 南北間 相互不可侵 協定은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다.

朴大統領이 提示한 不可侵協定の 內容을 보면 그點을 더욱 分明히 이해할수 있다.

첫째 「南北이 서로 絶대로 武力侵犯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滿天하에 약속한것」이라는 내용은 戰爭을 抑制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말하는 것이다.

北韓側은 「총이 있으니까 총격사건이 나고 서로 武力을 增強하고 있기 때문에 戰爭이 일어날 要因이 증대되며 긴장상태가 조장된다」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戰爭을 抑制하기 위해서는 서로 軍비를 축소하고 兵力을 감축하는 등 武力을 줄이는 努力이 앞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러한 말을 이치에도 닿지 않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식의 논리를 전개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兵器는 勿論, 人命을 殺害할수 있는 一切의 기구는 다 없애고 兵力化할수 있는 軍人이나 警察관등을 완전히 없애야만 戰爭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주장하는대로 現在의 軍비를 다소 감축한다든지 兵力을 10萬名 정도 씩으로 줄인다든지 하더라도 戰爭이 일어 날수 있는 요인은 扠拭될

수는 없을 것이다.

戰爭이 일어 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問題는 兵力이나 軍備의 多寡보다는 서로의 세력균형이 유지되느냐 깨지느냐하는 問題와 더 원천적으로는 武力 侵犯을 할 意思를 가지고 그런 方向으로 힘을 기울이느냐 안 하느냐 하는데 달려 있는 것이다.

만약 南北이 서로 武力侵犯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굳게 約束하고 그를 萬天下에 공표해서 서로가 절대로 상대방을 武力侵犯하지 않는다는 보장만 선다면 韓半島에는 반드시 平和가 定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保障이 섰을 때에는 피차가 막대한 經濟力과 努力을 경주하면서 까지 軍備를 감축한다든지 兵力을 줄인다든지 相互間의 세력균형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武力을 감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北韓側이 主張하는 軍備縮小 兵力減縮보다도 앞서서 해야 할 일은 바로 南北이 서로 武力侵犯을 하지 않겠다는 相互不可侵犯의 約束을 굳게 다짐하는 일인 것이다.

이러한 約束은 오늘날의 南北關係에 있어서 現實적으로 가장 要望되는 일이며 또한 가장 바람직한 일로서 우리는 여기서 不可侵犯協定 提議의 現實성과 正當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南北은 相互 內政干涉을 하지 말것」이라는 內容은 앞에서 설명한 바대로 南北이 서로 相對方의 存在權을 自己側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同等하게 認定하고 平和적으로 共存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前提로서 必要한 要件이다.

비록 武力에 의해서 直接 侵犯하는 일은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존재권을 인정하지 않고 「相對方은 언젠가는 우리 側에 병합시키거나 흡수해야 할 存在」라는 意識을 가지고 相對方의 理念이나 體制 또는

諸般 施策과 社会 狀況등을 일일히 干涉하고 그를 비방 비난하며 시비를 일삼는다면 그것은 政治的 文化的 社会的인 間接的인 方法으로 相對方의 權益을 侵犯하는 것이기 때문에 紛爭要因이나 緊張要因을 增大시키는 結果가 될 것이다.

그것은 結局 直接 침략의 길은 막혔다 하더라도 뒷문으로 間接侵略을 할 수 있는 길은 트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不可侵協定을 締結하는 根本精神에는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不可侵協定은 直接侵略이나 間接侵略이나 간에 모든 侵略的 要因을 배제하는 것이 그 核心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相互武力侵犯의 포기도 直接的인 戰爭要因을 제거 하는 同時에 相互內政不干涉原則의 約束으로 紛爭과 긴장 조장 요인인 間接侵略의 危險性을 제거하는 것이 오늘날 南北間의 不信과 긴장상태를 完化하는데 가장 金요한 일이며 따라서 그것은 平和統一을 위해서도 크게 기여하는 길이기. 때문에 不可侵協定의 체결이야 말로 오늘날 南北關係의 改善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세계 「여하한 경우라도 現行 休戰協定은 그 효력을 존속시킬것」이라는 內容은 南北 相互間의 敵對關係의 포기와 武力 증강의 중지 및 侵略的 도발행위의 금지등으로 相互충돌의 要因을 제거하고 戰爭再發의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現在 南北은 政治的으로나 法的인 意味에 있어서 休戰狀態로서 熱戰狀態를 잠시 중단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이러한 休戰協定을 파기 한다거나 또는 그 協定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休戰協定의 効力을 認定하지 않는다면 政治的으로나 法的인 面에 있어서는 다시 熱戰狀態로 돌아 가는것을 意味하기 때문에 어느側이든

挑発行為를 자행 한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하등 알가 알부 할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相互武力侵犯의 禁止나 內政干涉의 단절을 約束했다 하더라도 休戰協定の 効力を 인정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戰爭의 위협성을 제거하는데 있어서는 不充分的 점이 많은 것이다

한 例를 든다면 현재의 南北分界線인 休戰線은 休戰協定에 의해 規定되어 있는 境界線인데 만약 休戰協定이 効력을 상실한다면 그 分界線에 대한 是非가 일어 날수 있는 위협성은 얼마든지 있을수 있는 것이다.

최근 白翎島등 우리나라의 西海 5島 水域에 대해 北韓側이 休戰後 20年 이상이나 認定해 왔던 우리의 水域을 자기의 領海라고 생떼를 부리면서 武力侵犯을 자행한것만 보더라도 그점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 할수 있는 것이다.

休戰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北韓은 무려 17000여건에 달하는 大小 休戰協定 違反事件을 저질러 왔고 심지어는 비무장 지대에 까지 공격용 요새와 兵器 및 精銳 兵力을 投入 設置하기 까지 에 이르렀는데 이와 같은 休戰協定の 違反은 韓半島의 平和를 威脅하는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로서 이제부터라도 이 休戰協定을 철저히 준수되어야만 韓半島의 平和는 保障될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休戰協定の 준수를 促求하고 그 効力の 계속을 인정할것을 다짐하는 不可侵協定은 南北間의 平和的關係의 유지를 위해서 시급하고도 긴요한 일로서 朴大統領이 그를 계의한것은 매우 時宜 適切하고 正當한 것이다 아니할수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朴大統領의 南北相互不可侵協定 提議는 그 目的이나 內容 및 時期에 있어서 매우 적절하고 正當한것으로서 그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朴大統이 지적한대로 統一이 될때까지 南北이 平和共存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方便이며 기본요건이라고 말할수 있는 것이다.

## 7. 政府의 統一政策의 理論的 背景

百餘萬의 民族相殘의 비극을 초래하였던 한국동란의 經驗에 비추어 이 땅에서 다시는 戰爭이 발발되어서는 안되며, 統一이 아무리 時急하여도 武力을 使用 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政府는 1970年 8.15 平和統一 이 宣言이래 일련의 對北提議를 통하여 平和統一 政策을 具體적으로 推進하고 있다.

平和統一 政策은 優先 韓半島에서 戰爭 발발을 방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平和定着을 實現시키는 것이다. 政府는 平和定着 實現方案으로서 北韓의 「유엔」加入을 구태여 反對하지 않으며, 共產圈에 對해서도 門戶를 開放할 뜻을 明白히 한 6.23 平和 統一外交政策宣言을 發表하여 平和定着의 國際的與件造成에 努力하는 한편, 不可侵約束, 相互內政不干涉 및 休戰協定の 効力 維持를 內容으로하는 不可侵協定을 提議하여 南北韓 平和定着의 具體的 方案을 제시 하였다.

現在 韓半島의 平和는 南北韓 軍事力의 現狀凍結과 「유엔」軍의 韓半島安全保障을 骨者로 하는 이른바 「休戰協定體制」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維持되고 있는 實情이다. 休戰協定은 南北韓間의 政治的 問題를 앞으로 解決해야할 과제로 제시하였고, 또 우리는 北韓의 軍事挑發을 응징하는 의미에서 休戰協定에 서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엔」軍에 의한 韓半島安全保障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韓半島平和定着의 잠정적인 方案에 불과한것이다. 따라서 不完全한 休戰協定體制는 南北韓 相互 不可侵協定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反面 ①武力增強·軍備競爭中止 ②南北韓兵力을 각각 10萬以下로 減軍 ③ 무기 및 軍수물자반입 중지 ④ 駐韓外國軍撤遂 및 ⑤以上을 保障하는

平和協定の 締結을 主張하는 北韓側の 소위 軍事 5 個項은 基本的으로 韓國軍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므로서 南北韓의 軍事力不均衡을 초래시키려는 한국赤化戰略이 음폐되어있으므로 韓半島 平和定着의 실질적 방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不可侵協定에 의하여 韓半島의 軍事的 안정화가 일단 성립되면 다음으로 南北韓間에는 계반분야의 交流와 協力이 推進되어야 한다. 현대 社会科学은 理念의 制度의 差異를 초월하여 이른바 「機能分野間」의 交流와 協力이 可能함을 입증하고 있다. 「데이비드·미트라니」(David Mitrany)에 依하여 定說화된 機能主義(Functionalism)는 体制와 理念의 차이에 관계없이 理念的制約이 적은 機能分野間의 協力이 相異한 体制間에 可能함을 역설하였다. 이같이 非政治分野에서 조그마한 形態의 交流와 協力이 이루어지면 이 交流와 協力は 보다 큰 交流와 協力を 生産하는 波及 効果(이른바 雪人効果—Smond Ball Effect—)를 갖어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交流와 協力이 과연 体制와 理念差異에서 發源하는 모든 葛藤나 緊張을 극복하고 하나의 秩序에로의 統合을 성취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分명한 해답이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60年代 初半부터 하나의 假說로 등장한 收斂理論(Convergence theory)은 機能主義의 限界性내지 悲觀的局面을 극복할 可能性을 시사하고 있다. 수렴이론가들은 현대의 産業社會는 「이데오르기」의 制約을 벗어나서 점차 工業化와 都市化에 副應하는 方向으로 社會制度의 收斂이 이루어지며, 共產主義政黨은 그 社會와 國家가 工業化에 成功하여 需를 공급할수 있는한, 그 「이데오르기」의 使命은 終了되고 다만 工業化의 要求에 副應하는 「管理者의 役割」을 맡게될것으로 展望하면서

移轉現象은 처음에는 産業構造와 管理등 下部構造에서 나타나지만 이것이 普通化될 境遇 政治体制에서도 収斂化的 變化가 期待된다고 또한 展望하고 있다. 그러나 이 理論도 政策의 實踐原理로 採択하는 데는 限界가 있다. 첫째 經驗의 世界에서 예측가능한 推論이기는 하지만 事實로서 證明된것은 아니며, 둘째 모든 國家의 發展經路와 目標을 單一化시키고 있다는 點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南北關係처럼 競爭의共存이 잠정적이거나 불가피하게 도래될 狀況下에서는 収斂化的 變化를 期待하지 않을수 없다. 특히 우리 韓半島의 境遇는 新羅統一이래 1,900여년의 民族的 統一을 維持하여 왔으므로 南北韓間에 交流와 協力の 문이열릴경우 구차스런 機能主義理論이나 収斂理論의 論理를 빌릴 필요조차 없이 民族文化를 背景으로한 民族的 同質化는 南北韓間에 加속적으로 進行될것으로 予想된다 이와같은 狀態가 이루어질 境遇, 分斷으로 인한 모든 民族的 苦痛은 輕감되고 실질상 政府의 統合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統一된 狀態와 유사한 狀況이 展開될 것이다. 이와같은 段階에 이르면 南北 韓國民의 意思에 따라 統一政府樹立問題를 具體化시킬수 있을 것이다.



## 第五部 北韓의 統一政策

1. 對南戰略의 變遷過程
2. 對南赤化 戰略·戰術
3. 北韓의 對UN 政策
4. 平和協定 提議의 底意
5. 軍縮提議의 底意
6. 聯邦制 提議의 虛構性

① 1. 2. 3. 4. 5. 6.

② 8. 1. 2. 3.

## 1. 對南戰略의 變遷過程

北韓은 그들의 基本目標인 赤化統一을 達成하기 爲해서 對內外的인 與件이 許容하는 範圍內에서 늘 可變的인 政策을 驅使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北韓의 統一政策의 多樣性和 變化무상은 決코 유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時代的 狀況에 對한 論理的인 判斷에 立脚하고 있는 것이다.

變遷된 北韓의 統一政策은 第一段階는 武力合併戰, 第二段階는 形式的인 心理戰, 第3段階는 實用的 政治戰, 第4段階는 暴力的 革命誘導戰, 第5段階는 實用的 協商戰으로 規定될 수 있다.

### (1) 武力合併政策 (1948 ~ 1953年)

이 當時 南北間에는 政治, 經濟, 軍事, 對外關係等의 諸側面에서 顯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恆時 軍事援助를 迅速하게 供與할 수 있는 中共과 蘇聯의 共產大國을 隣接하고 있는 戰略上의 好條件은 南韓의 그것에 比較해서 相當히 有利했으며 게다가 蘇聯의 衛星國擴大政策은 北韓爲政者들의 強力한 保墨가 되었다는 點이다.

둘째 南韓은 北韓과는 正反對로 美軍이 全面撤収하여 軍事的 空白狀態가 惹起되었으며 게다가 國防軍의 兵力, 장비는 北韓과는 對照할 수 없는 弱勢에 놓여 있었다.

셋째 南韓國民들의 對共警戒心은 極度로 취약하여 南勞黨을 비롯한 各種 共產地下組織들의 活躍이 活潑히 展開될 수가 있었다.

이러한 南北間의 狀況의 顯격한 差異는 強大國의 戰後處理過程上의 兩分

配協商이라는 國際情勢에 편승하여 마침내 6.25 事變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같은 與件에 기인하여 北韓은 1950年 5月 19日 非公式軍事會議에서 武力에 의한 南韓進攻이라는 軍事政策을 決定하게 된 것이다.

## (2) 形式的 心理戰政策 (1954 ~ 1960.4)

이 當時의 國際間的 勢力構造는 美蘇間的 공포의 勢力均衡化政策으로 因한 (Balance of Power) 兩極體制로 緊張이 極度로 高潮化되어 있었다.

同時期에 北韓은 暴力을 止揚하고 心理的이고 政治的인 路線을 採択했다.

이러한 金日成의 政策路線은 南日이가 1954年 6月 15日 「제네바」會談에서 提案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이러한 北韓의 統一政策의 轉換에 動機가 된것으로는 주로 韓國內部情勢와 北韓 및 共產圈情勢라는 두가지 변수에 起因한다고 볼수 있다.

韓國內部情勢로서 들수 있는 것으로는

- ① 6.25 事變以後 國民의 對北憎惡感과 對共警戒心이 高潮되어 갔다는 點. 따라서 共產黨의 地下組織이 拍滅되었으며
- ② UN軍의 계속주둔과 韓美相互防衛條約의 實踐的 強化와
- ③ UNCURK를 위시한 各種國際的 協力機構의 支援下에 戰災復旧가 착실히 進行되었다는 點이다.

北韓 및 共產圈情勢로서는

- ① 北韓은 戰後復旧事業 3個年 經濟計劃에 전념함으로써 實踐可能的한 統一政策에 신경쓸 餘力이 없었으며
- ② 따라서 北韓은 休戰期間을 革命力量의 強化를 爲한 蓄力期로써 活用하려고 하였고

③ 中共은 韓國事變으로 因하여 莫大한 戰爭損失을 당렸었고 또한 人民公事가 失敗함에 따라 北韓에 對하여 실질적인 援助를 계속 할 수가 없었고

④ 「후르시초프」의 「스탈린」格下運動은 一人支配體制를 強化, 固守 하려던 金日成과 教條主義路線을 取하던 中共의 심한 반발을 일으켜 共產圈內部가 分裂되었던 것이다.

### (3) 實用的 心理戰 政策 (1960 ~ 1961年)

1960年 4.19 학생 의거와 더불어 北韓은 그들의 對南政策에서 重大한 轉換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以前에 取했던 악독한 선전술을 中止하고 南北韓國民에게 「어필」할 수 있는 一連의 平和統一案을 提示하면서 南韓內의 輿論을 환기시키려고 했다.

北韓은 60年 4月 27日 駐韓外國軍撤収, 外勢干涉없는 南北韓總選 統一을 爲한 南北韓의 政黨, 社會團體等의 會議 開催 등을 提議하였고, 그 해 8月 14日 金日成은 南北韓의 聯邦制를 提議하였다.

이러한 政策이 導出되게 된 原因은 勿論 그들의 소위 혁명의 時期가 到來하여 이 땅에 革命의 기운이 成熟했다는 판단에 立脚했던 것이다.

그들은 南韓의 內部情勢에 着眼하여 學生들의 소요를 「에스카레이트」함으로써 南北關係를 協商「무드」로 전환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統一政策의 轉換에 動機가 된것으로는 60年代에 들어와서 東西間에 緊張이 解氷됨에 따라서 나타나게 된것 以外에 다음의 두가지 事項으로 크게 分類해 볼 수 있겠다.

첫째, 北韓 및 共產圈內部情勢의 추세에서 보면 ① 北韓의 戰災復旧 3個年計劃事業의 完了 ② 속청을 통한 政治的 不安要素 除去 등을

들수 있으며 이러한 要因은 그들이 對南政策에서 일사불란한 動員과 힘 (Power)을 과시하는데 確信을 주게된 것이다.

둘째. 韓國內部情勢의 추세에서 보면 ① 계속되는 학생소요. ② 經濟 침체. ③ 政治的 混亂. ④ 急進的 (中立的) 統一論 대두. ⑤ 政治的 「리더쉽」 脆弱. ⑥ UN軍의 계속주둔 등을 들수 있다.

上記 이러한 韓國側 要因은 北韓으로 하여금 軍事的 도발을 통한 赤化統一은 不可能하게 하지만 平和的인 政治的 手段을 통해서는 그들의 赤化統一을 可能하게 할수 있는 要因이 될수 있는 것이다.

#### (4) 暴力的 革命誘導政策 (1962 ~ 1970)

이 段階에 와서는 聯邦制와 協商에 두었던 주안점을 다시 전환시켜 硬直的인 理念的 修辭를 使用하면서 南韓內部에 地下革命黨을 強化시켜 政治的 社會的 不安을 造成하여 南韓內部에 暴力的 革命을 誘導하려는 方向으로 政策을 取했다.

이러한 北韓이 暴力的 革命誘導政策에 動機를 提供했던 事項으로서는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分類하여 볼 수 있다.

첫째. 國際間에 있어서는 60年代에 들어와서 殆動하기 始作한 東·西解氷霧圍氣가 「케네디·호르시초프」間的 平和共存政策指向으로 더욱 發展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北韓 및 共產圈內의 情勢로서 들수 있는 點은

① 朝·蘇, 朝·中共 相互協力條約이 1953年 9월에 締結됨에 따라 過去보다 더욱 軍事的으로 安定感을 가지게 되었다는 點과

② 計劃經濟事業 (第1次 5個年計劃: 1957 ~ 1960, 7個年計劃: 1961 ~ 1970, 1967年까지를 3年연장)의 代체적인 成功은 소위 그들의 社會主義的 工業化의 基礎와 農業社會主義的 集團化를 達成할 수가

있었다는 點

- ③ 「후르시초프」의 對西方政策의 失敗와 變덕스러운 蘇聯에 對한 北韓의 信念을 깨뜨린 結果가 되어 親中共路線과 더불어 결국 北韓은 對蘇依存關係에서 벗어나 보다 自主的인 統一路線을 성급하게 追求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點이다.
- ④ 中·蘇間에 國境을 둘러싼 紛爭과 激烈한 理念的 紛爭을 北韓으로 하여금 好戰的인 中共지향적이 되게 하였다는 點. 그 외에 中共에 原爆開發은 한층 더 中共에 對한 信賴感을 부여했다는 點을 들 수가 있다.
- ⑤ 이리하여 南韓革命의 前哨地로서 北韓地域에 革命要塞을 구축하기 爲하여 全人民 武裝化 全軍幹部化 全國土 要塞化 裝備現代化라는 이른바 四大軍事路線을 決定하였다는 點이다.

세계 韓國의 内部情勢로는

- ① 5.16 軍事政府의 強力한 反共体制은 北韓이 4.19 학생의거와 더불어 그렇게도 조심스럽게 키워 놓았던 南韓内部의 共產組織과 그 同調者들 그리고 大規模의 간첩망을 뿌리채 뽑아버렸다는 點이며
- ② 南韓의 第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成長은 國民所得水準을 급격히 成長시켰으며 輸出품을 일으켰다는 點 지속적인 經濟發展과 社會安定을 北韓側에 對해서는 確實히 不利한 要素가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왜냐 하면 南韓의 政治. 社會的 混亂 증가는 對韓海外投資의 誘價를 어렵게 하여 政府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純粹한 經濟的 發展을 떠나서 우선 國防에 더 많은 경비를 轉用하지 않을 수 없게 할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北韓은 우선 南韓内部의 混亂과 經濟發展의 鈍化策動이 매우 시급했다는 點

- ③ 1965年 체결된 韓日國交正常化條約은 北韓의 對日關係를 疎遠하게 한 同時에 다른 한편으로는 韓日關係를 더욱 緊密히 (Essential) 하고 有事時에는 南韓에 對한 保鏢로써 作用할 可能할 可能性이 크게 되었다는 點이다.

왜냐하면 이 韓日國交正常化條約은 日本이 南韓에게 必要한 補償을 支拂함으로써 大韓民國政府가 韓半島의 唯一한 合法政府라는 點을 確認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 ④ 韓國은 經濟發展以外에도 外交 및 軍事面에서 前例없을 程度의 發展을 했다. 陸軍, 海軍, 海兵隊가 越南에 派兵되었으나 國民들의 높은 反共意識이 이를 充分히 代替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서 韓國은 亞細亞同盟國들間에 主導的인 地位를 掌握하여 ASPAO의 主導的 提案을 비롯해서 各種地域 協力關係를 確認하였다.

#### (5) 實用的 協商政策 (1970年 - )

70年代에 들어와서 北韓은 共產主義者들의 特有的 鬭爭精神을 그대로 지니기는 했지만 우리의 南北對話 提議에 호응해서 南北赤十字會談을 開催하고 7.4 共同聲明에 合意하여 南北調節委員會를 設置하는등 일련의 對話過程을 거쳐오고 있는 것은 變化된 態度로 나왔다.

北韓이 南北對話에 응한 것은 그들이 革命統一이라는 그들의 對南基本戰略을 포기하고 참다운 平和統一을 指向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北韓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對內的인 狀況, 國際情勢의 變化, 그리고 우리 南韓의 여건변동 등 多角的인 狀況判斷에 立脚하여 對南革命이라는 그들의 統一 基本戰略을 수행하는 한 방편으로 南北對話를 이용하는 것

이 여러가지로 그들에게 有利하다고 判斷하였기 때문이다.

첫째. 國際情勢가 冷戰體制로 부터 平和共存體制로 이행됨에 따라 北韓 역시 언제까지나 홀로 冷戰體制的 장벽안에서 고립해 있을 수는 없고 世界情勢에 適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들은 判斷하였을 것임에 틀림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南北間의 緊張을 緩和하는 것이 선결문제이며. 緊張緩和를 爲해서는 南北對話가 필수적인 條件이다.

南北對話를 통해 韓半島에 緊張이 緩和되지 않고서 多極化하는 世界情勢에 能動的으로 適應해 나가는데 여러가지 애로가 따르리라는 것은 北韓側이나 우리 側이나 매일반이며. 이 점에 관한 한 우리와 完全히 이해공통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北韓 및 共產圈情勢에 依한 要因을 살펴보면 北韓은 60年代부터 推進하여 왔던 四大軍事路線에 依하여 速戰速決主義에 對한 戰爭準備를 完了하였으며 또한 소위 3大技術革命 (① 重工業과 輕工業의 差異 해소 ② 農業과 工業技術의 差異解消 ③ 婦女子들의 가정노동의 重壓으로 부터의 해방)을 통하여 어느程度나마 科學. 技術의 後進性を 벗어났었다.

그러나 經濟가 發展되고 政治體制가 強化됨에 따라서 内部的으로는 더많은 不安要素가 등장하게 되었다.

즉 1人獨裁의 金日成 偶像化 및 族閥政治의 強化는 相對적으로 政治的 不滿要因을 增加시켰으며 지나친 對南軍備 競争을 爲한 國防費의 過重을 日常消費生活을 極度로 內帑화시키는 한편 兵力動員에 要하는 人力으로 經濟에 流用된 勞動力은 極度로 不足하였던 것이다.

한편 계속적인 計劃經濟事業은 重工業을 위시한 軍備工業에만 치중했었기 때문에 北韓住民들의 福利 및 消費生活에 必要한 日用品은 極度로 不足하였던 것이다.



세계 韓國情勢에 依한 要因을 살펴본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朴正熙大統領의 第25周年 光復節 慶祝辭를 들수 있다. 同 慶祝辭에서 朴大統領은 北韓의 武力挑發即刻中止, 北韓의 UN權威, 機能受諾等を 要求하고 南北間의 善意의 体制競争을 통한 人爲的障避除去를 提案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韓國의 平和統一構想은 비록 北韓의 對南平和統一攻勢 및 暴力的革命的 二重性을 排擊하고 오직 統一은 平和的 手段에 依해서만 實現되어야 한다는 對北對應策으로 볼수 있기는 하지만 北韓은 이러한 韓國側의 提案이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主唱해 왔던 平和的 統一과 符合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韓國側의 提案을 積極적으로 活用하자는 心算으로 政治的 協商政策에 더욱 活氣를 띄게 된것이다.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駐韓美軍 撤収에 따른 韓國軍의 裝備現代化 및 韓國軍의 戰鬪技術 및 戰鬪能力의 向上과 非常事態宣言에 依한 内部整備強化 및 總力安保態勢確立은 北韓으로 하여금 이상 더 戰爭을 통한 赤化統一의 可能性을 더욱 稀薄하게 했다는 點을 들수 있다.

끝으로 指摘될 수 있는 重要한 原因은 韓國의 高度經濟成長에 수반된 많은 經濟的, 社會的 부작용은 그들이 만일 계속하여 平和的統一을 指向하여 韓國國民들에 對하여 善者로서의 Image를 준다면 그들이 말하는 韓國内部의 自發的인 人民民主主義革命이 반드시 到來할 것이라는 點이다.

따라서 그들은 政治協商에 社會의 各界各層을 代表하는 多務的會談 (Multilateral Negotiation)을 誘導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 2. 對南赤化 戰略・戰術

70年 11월에 開催된 第5次黨大會에서 「金日成은 남조선혁명은 美帝國主義의 침략자를 反對하는 民族解放 鬪爭인 동시에 美帝의 앞잡이인 지주 자본가 반동 관료배들과 그들의 「파쇼」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입니다. 이 혁명의 기본임무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내쫓고 그 식민지통치를 없애며 군사「파쇼」독재를 뒤집어엎고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세움으로써 남조선사회의 民主主義的 발전이룩하는데 있습니다.」라고 하여 4次 黨大會(61年)와 黨代表者會談(66年)에서 제시했던 「民族解放民主主義」에서 「人民民主主義」로 전환하였다. 그러면 金日成이가 70年代에 와서 人民民主主義革命을 對南赤化 戰略으로 채택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共產主義의 規定에 의하면 人民民主主義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人民民主主義는 『蘇聯의 勝利로부터 出發하여 이 勝利에 입각하면서 勞動者 계급의 지도하에 勞動人民과 그들의 도움에 의하여 資本主義로 부터 社會主義에로 移行하는 國家, 「소비에트」的 형태를 취하지 않는 「프로레타리아」의 獨裁』이다.

毛澤東의 規定에 의하면 人民民主主義는 “勞動者階級과 共產黨의 지도하에 단결하여 자기들의 國家를 만들고 자기의 정부를 선택하고 帝國主義의 앞잡이 즉 地主階級과 官僚「부르조아지」 및 이러한 階級을 대표하는 國民黨 反動派와 그 共犯者들에 대해 獨裁를 行하고 專制를 行하며 이러한 자들을 억압하는 것”이다.

즉 毛澤東은 人民民主主義를 「共產黨이 指導하는 階級獨裁」로 보고 있다.

위의 인용에서 볼때 「人民民主主義革命」이란 「노동자, 농민, 도시小 부르조아 그리고 民族 부르조아」속에서 勞動階級(共産黨)이 모든 國家權力를 장악하는 革命을 의미 한다」 다시 말하면 政治, 經濟, 社會, 軍事 등 모든 부분에서 共産黨이 주도권을 잡고 自由民主主義體制를 전복하는 革命을 뜻한다.

60년까지 北韓이 「人民民主主義革命」에 앞서 「民族民主主義革命」을 주장하게 된것은

첫째 ; 韓國情勢는 反共力量이 強하고.

둘째 ; 韓國內에는 反動的인 경향보다 進步的인 경향이 강하며.

셋째 ; 北韓內의 準備와 南韓支援태세가 완비되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때문에 60年代에는 反帝, 反植民地 反封建主義를 표방하여 階級的 힘의 關係에서 「프로레타리아」가 優位에 서기까지 階級的인 개념인 「人民」보다는 反美, 反政府 勢力을 「進步的인 愛國勢力부력」으로 규정하고 「民族」을 표방하자는 것이었다. 여기에 民族民主主義統一戰略의 근본 目的이 있었다. 이렇게 볼때 70년에 와서 金日成이가 「人民民主主義革命」으로 對南戰略을 전환한 여건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第5次 党大會에서 행한 金日成의 보고는 韓國內部의 정세가 人民民主主義革命 수행이 가능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이 갖추어진 것 같이 주장하고 있다. 그 要因을 간추려 보면

첫째 ; 反政府意識의 高潮

둘째 ; 反美鬭爭意識의 高潮

셋째 ; 統一革命黨 組織

넷째 ; 北韓地域戰爭準備完了

다섯째 ; 有利한 周邊情勢

以上과 같은 金日成의 韓國情勢判斷은

첫째 ; 「닉슨 독트린」에 의한 美國의 아시아정책의 변화와 中共 核戰力의 증강이 韓國의 對內外政策에 미치는 影響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둘째 ; 60年代 韓國政府가 이룩한 兩次 5個年 計劃의 경제적 발전과 이에 따른 副作用 (外資導入, 所得格差 등)

셋째 ; 무장공비의 南派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한 暴力行動의 가능성

넷째 ; 새로운 세대의 출현과 感像的인 統一論, 南北交流論의 재대두

다시 말해서 이상의 정세를 民族的, 階級的 기본모순으로 확대하여 反美反政府 反体制階級鬭爭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평가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세판단에 따른 「人民民主主義革命」의 具體的 實踐方法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韓國의 基本矛盾은 「美帝國主義와 南朝鮮人民間의 모순」, 「地主 買辦 資本家 反動官僚와 人民間의 모순」이라는 兩大기본모순의 구성이 핵심이라고 규정하는한 이에 따라, 노동자, 농민, 학생, 「인테리」, 軍人, 민족자본가, 소자산계층들과 계휴세력으로 하여 투쟁목표를

첫째 ; 美國 (반제)

둘째 ; 관료계급 (反政府)

셋째 ; 배관자본가등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인 「反美, 反政府統一戰線」 공세를 펴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對南 基本戰略 遂行을 위한 戰術을 세우는데 있어서

첫째, 南韓內에서의 革命氣運 成熟度

둘째, 社會, 經濟 發展 途上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대립 현상

셋째, 그들의 소위 「反革命勢力」이 되는 우리 政府의 戰略 戰術의

變化 등을 重點的으로 考慮하고 이를 逆利用하는 戰術을 강구한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韓國의 諸般 情勢 變化에 따라, 그들이 노리는 「決定的인 時機」로 유도할 수 있는 가장 有利한 條件과 時點을 포착 逆利用하려는 속셈인 것이다.

이와 같이 韓國의 諸般 情勢를 逆利用하여 「決定的인 時期」로 유도하는 戰術의 하나가 그들의 소위 對南 「統一戰線」形成 工作이 될 것이다.

이것은 國際 共產主義의 「統一戰線」戰術을 韓半島의 實情에 알맞게 援用하려는 것이다.

北韓의 對南 統一戰線 工作은 우리 政府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反政府的이거나 政府에 批判的인 政黨, 社會團體 및 各界 各層의 有力人士들을 하나의 政治的인 聯合체로 結束시켜 反政府 투쟁을 展開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統一戰線」에 吸收하려는 諸 勢力과 階層은 어디까지나 共產主義革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補助力量 내지는 利用物에 不過하다.

그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原則에 따라 투쟁을 展開한다.

첫째는 勞農階級(그들은 現在 南韓內에 있는 그들의 地下 組織이라고 거짓 선전하고 있는 「統一革命黨」이 그 主力軍이라고 規定하고 있다)을 기초로 광범위하게 群衆을 結束시킨다.

둘째로, 下層(一般 庶民層)의 統一을 基本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上層(指導層)의 統一을 이룩해서 서로 團結하여 鬪爭하게 한다.

셋째로, 낮은 形態(經濟)로 부터 높은 形態(政治)로 上向하는 共同 鬪爭을 展開한다.

넷째로, 「部分的 聯合」으로 부터 「全面的 聯合」으로 擴大 發展시켜 나간다.

北韓이 「統一戰線」을 形成하는 方法은 다음과 같이 分析된다.

- ① 共產主義者들은 善良한 大衆들을 그들의 目的 遂行에 利用하기 위하여 一時的으로 그들의 正체를 숨기고 偽裝한다.
- ② 大衆을 組織的으로 動員하기 爲하여 一定한 鬭爭目標와 要求를 시사하는 간결한 口號를 그때 그때의 情勢에 알맞게 設定하여 提示한다.  
이때 그들이 提示한 口號가 그들이 노리는 目的 遂行에 얼마나 有利하게 作用되었는가를 항상 면밀하게 分析한다.
- ③ 이와 함께 그들의 目的에 符合되는 大衆運動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선전 선동을 병행한다.

첫째. 煽動은 大衆性을 띠고, 대중의 感情에 호소하는 方法으로 說得함으로써 大衆을 고무 충동한다.

둘째. 宣傳은 理論的으로 深化시키고 보다 理論的, 体系的으로 그 內容을 美化시킨다.

「統一戰線」工作의 遂行方法은 北韓 共產主義者들이 南韓에 잠복 암약하고 있는 간첩에게 내리고 있는 指令의 內容과 同一하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 ① 그들은 組織 保護를 위해서 合法, 半合法 鬭爭에 重点을 두고 무모한 鬭爭은 금지시킨다.

즉 初期의 鬭爭에 있어서는 直接的인 方法 보다는 間接的인 方法, 直接的인 方法보다는 迂廻的인 方法을 쓰고 있다.

예를 들면

- ㉠ 現 政權에 대해 正面으로 反對하는 것을 止揚하고, 오히려 民主化나 自由를 要求한다.
- ㉡ 美軍撤収鬭爭 대신에 美軍의 行패나 잘못을 誇張 糾彈한다.

㉔ 資本家 打倒투쟁 대신에 賃金 引上, 勞動條件 改善을 要求한다.

㉕ 反共主義者도 反政府, 反体制 勢力이면 포섭하여 利用한다.

이러한 大衆煽動, 宣傳을 통해 反政府 汎國民勢力을 糾合하여 하나의 聯合戰線을 形成한다.

이때의 主動은 어디까지나 地下에 잠복하고 있는 共產分子들로서 革新系 人士, 國際共產勢力, 在日 朝總聯 또는 南派間諜들과 제휴하고, 포섭 대상으로는 주로 反政府的인 青年學生, 宗教人, 言論人, 勞動者, 教授 및 知識人 政治人 그리고 其他 政府에 대해 反感을 가졌거나 極히 批判的인 人士들을 그 對衆으로 삼는다.

이것이 곧 그들의 統一戰線 形成의 第1段階 工作이다.

② 이러한 그들의 戰略·戰術에 현혹되어 그들에 同調하거나 그들을 방조하는 계층이 차차 많아지면 反政府 運動을 단계적으로 격화시키고, 극단적인 정부전복 口號를 提起하도록 유도하는 선동, 선전을 強化한다. 그리하여 어떤 決定的인 時期에 學生들을 先頭로 反政府 醜기와 폭동을 유발하여 政府를 전복한다.

이것이 바로 統一戰線 形成의 第2段階 工作에 該當된다.

③ 大韓民國의 政府를 전복한 다음에는 過渡政府를 樹立하되, 政府 전복에 合勢했던 諸 勢力과 聯合政府 形態를 取한다.

이 過渡政府를 金日成은 소위 「良心的인 人士로 구성된 人民政府」라고 말하고, 民青學聯에서는 「民族指導部」라 稱하기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에 이르러서는 反共法, 國家保安法 등을 철폐하고 共產黨을 合法化 함으로서 그 때까지 地下에 잠복했던 共產分子들이 表面에 나타난다.

이러하여 共產勢力은 過渡政府의 主導權을 完全 장악하고 점차 과도정부 내에 參與하고 있는 소위 그들의 反動勢力인 民族主義, 民主勢力을 除去 도대하는 作業을 推進한다.

이것이 그들의 統一戰線 形成의 第3段階 工作인데. 이 때에 가서야 南北間의 政治協商이 이루어지며. 北韓이 主張하는 소위 「大民族會議」를 構成할 수 있다고 그들은 보고 있다.

④ 위와 같은 段階的 工作 遂行으로 南北協商과 大民族會議가 이룩 되면 그를 통해 共產統一政府를 수립함으로써 祖國 統一을 成就 한다.

이것이 北韓이 統一戰線 形成의 최종 目標을 達成하는 第4段階 工作이다. 北韓이 말하는 平和統一이란 바로 이렇게 해서 共產統一을 爭取하는 그들의 對南 統一戰線 工作에 立脚한 赤化革命統一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들의 平和統一 개념과 統一戰線 工作 개념은 結局 同一한 것이다.

- 北韓의 對南 統一戰線工作 圖表 -

第1段階工作	反政府聯合勢力 形成 ① 主動：地下潛伏中인 共產分子 ② 提携：間諜, 革新系, 國際共產勢力, 在日朝總聯 ③ 包摂：一部 反政府的인 學生, 宗教人, 言論人, 勞動者 教授 및 知識人, 政治人 其他
第2段階工作	大韓民國政府 전복 ① 決定的時期에 反政府 蜂기와 폭동 유도
第3段階工作	過渡政府를 聯合政府 形態로 樹立 ① 이 過渡政府를 金日成은 소위 「良心的인 人士로 構成된 人民政府」라고 말하고. 民青學聯에서는 「民族指導部」라 稱하고 있음.



	② 共産黨 合法化 ( 反共法 國家保安法 등 철폐 ) ③ 反共적인 民族主義 民主勢力 除去 陶汰
第 4 段階工作	共産統一政府 樹得

以上과 같은 北韓 共産集團의 對南「統一戰線」工作의 特征을 살펴볼 때, 民青學聯의 策動을 바로 北韓의 「統一戰線」工作의 初期段階의 形態임을 쉽게 看破할 수 있는 것이다.

### 3. 北韓의 對 UN 政策

내용보관

76年代에 들어서면서 北韓의 對「유엔」活動은 括目할만한 積極性을 보여주고 있다. 北韓의 對「유엔」態度는 1971年 第26次 「유엔」總會를 계기로 급변하고 있다. 北韓은 1971年 이전까지만 해도 「유엔」에 대한 적대적 立場과 韓國問題에 대한 「유엔」의 간섭배제라는 否定的 態度로 一貫해왔다. 이는 「유엔」内の 세력관계가 共產側을 비롯한 親共產세력보다 美國을 中心으로 하는 西方側, 다시말해서 자유진영의 세력이 월등하게 우세했기때문에 韓國문제를 「유엔」에서 토의한다는 것은 北韓側에 不利한 결과밖에 없으리라는 판단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北韓은 종래까지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유엔」에서 토의한다는 것은 「유엔」현장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反對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1971年 제26차 「유엔」總會를 계기로 北韓은 종전의 韓國군에 대한 「유엔」간섭의 배제라는 否定的 態度에서 「유엔」에서의 韓國問題討議라는 能動的 態度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같은 北韓의 對「유엔」태도변화는 다음과 같은 배경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중공이 제26차 「유엔」총회에서 대만에 대신하여 安保理常任理事國으로 加入됨에 따라 「유엔」에서의 중공 발언권이 강화된 것과 「유엔」内の 세력판도가 北韓側에 유리하게 變化되었다는 것.

둘째 「유엔」의 보편성원칙이 강조되는 추세와 분단국가의 동시가입 또는 동시 승인추세를 감안할 때 「유엔」계의 南北韓 同時招請이라는 目的을 實現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했다는 것.

이와같은 北韓의 對「유엔」活動이 積極化된 결과로 北韓은 1973年에 「유엔」傘下專門機構인 世界保健機構(WHO)에 加入하였고 「유엔」에

「유엔」代表團을 派遣할 수 있는 資格을 獲得함에 따라 同年 가을 「유엔」總회에 代表團을 派遣, 本格的인 「유엔」活動을 展開하였다.

北韓은 「유엔」에서의 韓國問題상정토의라는 積極적 立場을 채택한 이래 27次 28次「유엔」總회를 통하여 대략 다음과 같은 基本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 ① 韓國問題의 「유엔」討議
- ② 韓國問題解決을 위한 「유엔」역할기대
- ③ 駐韓美軍의 段階的 撤收
- ④ 韓國問題에 관한 종래「유엔」決議의 實質的인 無効化

이러한 基本전략에 따라, 北韓은 28次 「유엔」總회에서 「언커크」및 「유엔」軍解体 및 駐韓美軍撤收를 內容으로 하는 決議案을 내놓고 支持獲得에 열을 올리는 한편 우리측의 同時加入主張을 反對하면서 우선 연방제를 實現하여 「高麗聯邦共和國」이라는 단일국호로 「유엔」에 加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73年 9月 北韓側이 「유엔」에 보낸 備忘錄에서 그들은 同時「유엔」加入을 反對하는 理由는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 ① 南北韓 同時加入은 民族國家의 영구분열을 國際적으로 고착시키는 것이다.
- ② 두개의 國家로 固定化하는 것은 政세를 安定시키는 것이 아니라 恒久的인 緊張과 戰爭의 火근이 된다.
- ③ 韓國政府는 「植民地軍事基地」임으로 「유엔」加入資格이 없으며 北韓만이 유일합법적인 國家다.
- ④ 南·北韓 同時 「유엔」加入案은 「유엔」의 이름아래 分割統治하

러는 帝國主義의 手法이다.

⑤ 北韓이 「유엔」專門機構에 加入하는 것은 技術的, 實務的, 協助를 目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積極참가할 것이다.

⑥ 東·西獨의 境遇는 두 獨逸國家가 完全平等하게 主權國家로서 상호승인하고 있기때문에 한반도 사정과는 다르다.

⑦ 「유엔」加入問題가 어떤 紛爭問題의 解決이나 民族內部問題의 解決을 위한 手段으로 강조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以上과같이 北韓이 내세우는 同時「유엔」加入反對의 표면적 理由 뒤에 가려진 진짜 意의는 무엇일까? 「유엔」同時加入을 反對하는 北韓의 意의는 앞에서 살펴본 그들의 基本戰略에 비추어 볼 때 자명해진다. 즉 南北韓이 同時에 「유엔」에 加入하게 되면 南·北韓의 存在에 대한 國際的 保障이 成立됨으로 그들이 目標하는 「南朝鮮革命」노선을 포기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질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北韓이 韓國敵化戰略의 後退를 불가피하게 하는 狀況을 意味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北韓側이 「유엔」을 통하여 大韓民國의 唯一합법성을 否認하고 오히려 自己들이 韓半島의 唯一합법정부라는 터무니없는 主張을 들고 나옴으로써 大韓民國政府의 기존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北韓側의 態度는 다수회원국들간에 強力한 支持를 받고 있는 韓國側의 同時加入 主張에 當황한 패배적 心理의 作用으로 볼 수 밖에 없다.

28次「유엔」總會 韓國問題處理過程에서 우리側은 침예한 南·北韓間의 外交的 對결을 회피하고 막후합의를 成功시킴으로써 「유엔」會員國들로

하여금 7.4共同声明의 精神을 再確認하고 南北對話를 推進함으로써 南·北韓 당사자간의 解決을 권고하도록 하는 共同声明을 成就시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北韓側은 이와같은 「유엔」會員국들의 希望을 외면하고 「유엔」에서의 韓國問題論議를 擴大하여 「유엔」무대를 政治宣傳 強化하고 궁극적으로 駐韓「유엔」軍撤収를 기도하는 한편 國際的地位向上을 노리고 있다.

#### 4. 平和協定提議의 底意

北韓側이 主張하고 있는 소위 平和協定은 원래 中共 首相 周恩來가 제일 먼저 主張하기 始作했던 것이다

中共首相 周恩來는 지난 71年 8月 10日 中共을 訪問한 「뉴욕 타임즈」紙 「베스턴」記者와의 會見에서 「韓國戰에서 이루어진 休戰協定을 동결시키고 平和協定으로 代替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主張했다.

그후 金日成은 72年 1月 10日 日本 「요미우리」新聞 記者와의 「인터뷰」에서 南北間의 平和協定 締結의 必要性을 밝혔고 또 지난해 73年 3月 14日 부터 16日 까지 平壤에서 열린 南北 調節委員會 第2次會議와 6月 12日부터 14日까지 서울에서 열린 第3次 會議에서 北韓은 또다시 平和協定을 締結하자고 主張하였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北韓은 軍備縮小, 兵力減縮, 軍裝備導入中止, 美軍撤収 그리고 이러한 事項들을 保障하는 平和協定 締結等 소위 5個 項目의 軍事問題 優先 解決을 主張하고 이들 軍事問題가 먼저 解決돼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이것이 解決되지 않으면 對話는 더 이상 진전 시킬수 없으며 南北關係도 실질적으로 改善될수 없고 統一에 관한 어떠한 問題도 解決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과 같이 北韓은 軍事問題 5個項의 하나로 平和協定 締結을 提議했는데 얼핏듣기에는 그것이 진정으로 平和를 바라는 마음에서 울어 나온듯한 印象을 주지만 우리가 그들의 主張을 조금만 주의 깊게 分析해 본다면 그 不當性和 底意를 환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다.

먼저 平和協定主張의 不當性を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北韓이 主張하는 平和라는 假面을 쓴 「平和協定」案은 實効性없

는 虛構的인 政治宣傳 口號에 不過하다.

思想과 理念 및 制度가 극단적으로 相異하고 不信이 깊은 現在의 南北關係에서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키고 平和 統一의 基盤을 다져 나가기 위해서는 南北이 平和共存할 수 있는 基盤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南北이 서로 武力侵犯을 하지 않겠다는 約束을 滿天下에 밝히고 긴장고조의 要因이 되는 內政干渉을 서로 삼가며 休戰協定을 誠實하게 지켜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 平和共存의 基盤을 다진 다음 相互間의 意見衝突이나 마찰이 比較的 적은 分野, 즉 經濟와 社會 文化分野에서 부터 交流와 協力を 실시 擴大해 나감으로써 漸進적으로 相互信賴와 理解를 두터히 해 나가는 것이 가장 現實的이며 妥當한 南北關係改善의 方法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平和共存의 분위기나 相互信賴의 基盤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현 단계에서 美軍撤収, 군축등을 內容으로서는 平和協定을 맺는다는 것은 아무런 實効性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잘 지키지 않을 때는 相互不信이 더욱 深化되고 새로운 마찰 要因이 發生하게 되어 모처럼 문이 열린 南北對話를 크게 沮害하는 결과를 가져 오기 쉽다.

그러므로 平和共存의 분위기 造成이나 相互信賴의 基盤이 이루어 지지 않는 現時點에서 軍備縮小 兵力減縮 軍裝備 導入中止 美軍撤収등을 保障하는 平和協定을 締結하자는 것은 그 준수를 保障할 아무런 바탕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혀 실효성도 없는 부당한 主張인 것이다.

둘째로 平和協定은 韓國의 安保態勢의 弱化에 의한 南北間勢力均衡의 互解를 目的으로 한 것이다.

休戰協定以後 오늘에 이르기 까지 北韓이 一方的으로 休戰協定을 違反하여 4大軍事路線등으로 軍事力을 증강하여 왔는데도 不拘하고 平和가 유지된것은 주한 UN軍과 우리의 총력안보태세로 戰爭抑制力이 確保되어 南北間에 힘의 均衡이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北韓은 平和協定締結問題를 제기하면서 先決條件으로서 駐韓 UN軍의 무조건 撤収를 비롯하여 軍備縮小, 軍裝備導入禁止, 감군, UN군 撤収등 現在로서는 實現 可能性이 없고 또한 韓國의 安保를 크게 해쳐 南北間의 勢力均衡이 와해될것이 明白한 主張을 앞세우고 있다.

北韓은 休戰協定 以後 繼續 休戰協定을 違反하면서 蘇聯과 中共으로 부터 多數의 最新武器를 導入하였고 또 北分 非武裝地帶를 요새화 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위 4大軍事路線을 推進하여 正規軍과 다름없는 140萬의 노동적위隊와 70萬의 붉은 青年 조위대들 편성하여 놓고 戰爭準備 完了를 호언하고 있다.

이러한 現實에서 軍縮, 軍裝備 도입금지, 감군, 美軍 撤収等を 하자는 것은 一方的으로 韓國을 무장해제 시키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平和協定提議는 韓國을 無力化시켜 우리의 安保를 破壞하여 南北間의 힘의 均衡을 깨뜨림으로서 戰爭발발 요인을 증대시키는 結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有効한 戰爭 抑制 方案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 現段階에서는 천만 不當한 것이다.

그러면 北韓이 허구적이고 非現實的이며 不當한 平和協定을 提議하는 底意는 무엇인가?

첫째 北韓이 平和協定締結을 提議하는 속셈에는 궁극적으로 韓國을 무장해제시켜 우리의 安保를 破壞하려는 底意가 숨어 있는 것이다.

그들은 休戰協定이 締結된후 20餘年동안 公公연히 休戰協定을 위반하고



소위 4大軍事路線을 強化하여 왔다.

즉 全人民의 무장화, 全国土의 요새화, 全軍의 幹部化, 軍裝備의 現代化를 내세워 지난 70年 11月 2日 勞動黨 第5次 全党大會에서 金日成은 이미 모든 戰爭 準備를 完了하였다고 호언장담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그들의 戰爭準備態勢를 은폐한채 形式뿐인 軍備縮小나 兵力減縮을 先行시켜 平和協定을 締結하자는 것은 結果적으로 우리의 安保態勢만을 약화시켜 그들이 힘의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決定的인 時期에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을 이룩하겠다는 속셈에 의한 것이다.

둘째로 北韓이 平和協定을 主張하는 또하나의 底意는 平和協定의 內容의 하나로 駐韓美軍의 撤収를 내세움으로써 그들이 機會 있을때마다 입버릇처럼 主張하는 美軍撤収를 觀察시키려는데 있는 것이다.

그들이 美軍撤収를 主張하는 것은 武力赤化統一을 위한 軍事力의 優位를 確保하려는 하나의 戰術이다

北韓은 UN軍의 一員인 美軍의 계속 駐屯에 의하여 상징되는 그들에 대한 侵略者의 낙인을 씻고 동시에 韓國을 軍事的 공백지로 조성해볼 目的으로 한사코 UN軍인 美軍의 撤収를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現在 南北間의 힘의 均衡은 美軍의 駐屯을 전제로 해서 維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美軍이 撤収하면 南北間의 軍事力의 均衡이 깨어지고 그때는 그들에게 武力赤化統一을 위한 絶好의 決定的 時期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北韓이 UN軍인 美軍의 撤収를 主張하는 것은 그들이 진실로 平和統一을 위하거나 南北間의 긴장완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들의 赤化統一의 目標 達成을 위해 방해가 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美軍을 제거하자는데 目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이 不可侵協定 提議를 拒否하고 대신 非 現實的이며 不當  
한 平和協定을 固執하고 있는것은 平和協定 締結의 前提가 되어 있는  
美軍撤収를 貫徹시켜 보려는 底意에서 나온 것이다.

## 5. 軍縮提議의 底意

北韓의 軍縮 提議는 1954年 「제네바」會議에서 當時 北韓外相 南日이 처음 提起한 以後 現在까지 繼續되고 있는 主張으로써 其中 代表的인 것은 1971年 4月 12日 北韓外相 許談이 「最高人民會議 第4期 第5次會議」에 提出한 報告에서 엿볼 수 있다.

그는 同報告에서 軍縮의 內容과 名分에 關해 「美帝侵略軍이 물러간 다음 南北朝鮮의 軍隊를 各各 10萬 또는 그 아래로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措置를 取함으로써 共和國 北半部를 反對하는 侵略的 挑發行動이 더는 감행되지 않도록 하며 南北이 多같이 美帝와 日本軍國主義를 反對하는 鬪爭에 共同으로 나서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人民들의 軍事費 부담을 減어주고 南北朝鮮사이의 信賴의 분위기를 造成하며 朝鮮에서 公高한 平和를 維持하는 믿음직한 擔保로 될 것이다」라고 說明했다.

그後 最近에는 지난 73年 3月 14日에 열린 南北調節委員會 第二次會議에서 北韓 副首相 札成哲이 提議한 것으로써 그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南北間 武力增強 및 軍備競爭을 中止할것
- ② 南北의 兵力을 相互 10萬 또는 그 以下로 減縮할것
- ③ 駐韓外國軍을 撤收시킬것
- ④ 外國으로 부터 武器를 導入하지 말것
- ⑤ 以上의 問題를 解決하기 爲해 南北間에 平和協定을 締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北韓이 南北對話에서 軍縮問題를 들고 나온것은 經濟交流과 社會文化分野의 交流를 먼저 實施하자고 提議한 韓國側 主張에 對한 應수라고 볼 수 있지만 過去와는 달리 이 軍事問題 5個項이 先決되지 않는限 南北對話를 더 以上 진척시키지 못하겠다고 고집 함으로써 事實上 南北對話를 停頓狀態에 몰아 넣고 말았다

以上 1954年부터 現在까지 繼續되고 있는 軍縮提議의 特徵을 보면 軍縮을 主張한 그때 그때의 時代的 背景과 動機는 다르나 그 內容은 同一한 것을 되풀이 한것에 불과하며 國內外情勢가 主로 平和指向的 時期에 軍縮提議에 力點을 賦與하고 있고 其中 強度가 第一 強한것은 역시 駐韓外國軍 撤収로 集約된다.

또한 그들은 軍縮의 對象을 南北韓 正規軍과 裝備에만 局限시키고 있으며 軍縮을 平和協定의 內容으로 規定하고 있는 點이 特徵이라 하겠다  
첫째 南北調節委員會를 膠着狀態로 빠뜨리는 同時에 그 責任을 우리側에 轉嫁시키겠다는 속셈이다.

당초 北韓은 南北對話를 推進하는 過程에서 韓國社會에 對하되 그들의 革命氣風이나 共產主義理念을 어느程度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計劃하고, 따라서 그들의 赤化統一戰爭遂行에 有利한 발언을 구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2年동안 南北對話를 推進해본 結果 그와같은 그들의 計算과 期待는 전혀 어긋났고 오히려 閉鎖社會인 北韓의 취약점만 더 들어났을 뿐아니라 韓國으로 하여금 十月維新으로 더욱 国力 倍養을 促進하고 견고한 反共總和體制를 구축하게 한 結果를 가져옴으로써 南北 對話는 그

들에게 보다는 韓國에 더 有利한 結果를 가져왔다고 判斷했음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그들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이룩하기 爲한 南北對話를 개트릴 수 있는 名分도 없으므로 南北對話는 繼續 하되 實質的인 事業의 進歩는 抑制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듯 하다.

그렇게 하기 爲해서는 現段階에서 實現할 수 없는 어려운 問題들을 提議함으로써 韓國으로 하여금 그를 거절케 하여 南北對話의 着狀態에 對한 責任을 韓國에 전가 하면서 南北對話의 實質的인 進前을 阻害하는 計略을 行使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둘째 駐韓 UN軍의 解体를 促進시키려는 것이다.

北韓은 赤化統一이라는 基本戰略을 遂行하는데 있어 駐韓 UN軍의 駐屯을 가장 큰 障礙要素로 판단하고 모든 努力을 駐韓 UN軍 解体에 集中시키고 있으며 만약 駐韓 UN軍만 없다면 單獨으로 對南武力侵攻을 감행할 수 있는 條件이 造成될 수 있다고 確信하고 있음에 틀림 없다.

이와같은 目的下에 北韓은 今年度 UN總會를 앞두고 軍縮問題를 크게 浮刻 시킴으로써 UN軍 解体를 골자로 하고 있는 共產側決議案의 通過를 爲한 事前 분위기를 造成하는 同時에 美國內의 反戰與論에 便乘, 對韓 軍援의 삭감을 유도하는等 對外宣傳面의 效果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째 北韓은 他們만이 平和指向的인 것처럼 과시함으로써 國際與論을 誤導하여 外交活動에 있어서 有利한 高地를 차지하려는 것이다.

北韓은 그동안 對內的으로 金日成 偶像化와 強力한 社會統制 및 軍事力 增強一刃剝 爲主의 政策推進과 對外的으로는 極斷的인 廢鎖性 및 「게릴라」輸出 그리고 對南關係에서는 休戰協定違反 武裝 「게릴라」南派

等으로 因해 國際적으로 「好戰的」이라는 심한 비난을 받아 왔었다.

그런데 이와같은 軍縮을 提議함으로써 過去의 好戰的 이미지를 反轉시키고 自己들이 韓國보다 더 平和指向的이라는 인상을 國際社會에 投射함으로써 國際地位向上을 노리고 있다.

네째 南北間의 힘의 均衡을 깨뜨림으로써 韓國에 힘의 真空狀態를 招來케 하여 武力赤化統一의 條件을 造成하려는 것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10万減軍問題

北韓이 南北韓兵力(正規等)을 10万以下로 減軍 하자고 提議하게 된 이면에는 그들의 방대한 民兵組織이 있음을看過해서는 안된다. 소위 4大軍事路線을 遂行하여 온 北韓은 表面上의 正規軍은 47万名에 불과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武力을 가진 140万的 勞農 赤衛隊와 70万的 붉은 青年近衛隊가 있는데 이들은 週 17時間式의 戰鬪訓練뿐만 아니라 어느때라도 총을들고 共用火器로 무장하여 正規軍으로 出動할 수 있게 訓練組織되어 있다.

이러한 正規軍못지않은 民兵組織은 軍縮의 對象이 되지않기 때문에 그들은 軍縮으로 正規軍을 약간 줄이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韓國의 軍事力은 현저하게 弱化될 것이다.

即 韓國에는 향토예비군이 編成되어 있으나 이들에게는 칼빈총도 제대로 配當되어 있지 못할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나 個人의 生産을 優先적으로 考慮하여 運營되고 있는 實情이다. 때문에 北韓側의 正規軍 10万減軍主張은 韓國의 防衛力만을 一方的으로 弱化시키고 그들의 軍事的 優位를 維持하려는 술책이다.

## ② 外國으로부터 武器搬入 禁止問題

北韓은 이미 4大軍事路線에 依한 单独戰爭遂行能力을 完備하였을 뿐만 아니라 日帝時에 남은 重工業施設을 軍需産業으로 轉用繼續發展시켜 現在 戰鬪機를 除外한 모든 武器의 自給自足体制를 갖추고 있다.

이에 反해 韓國은 小銃한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이 主張 역시 韓國의 軍事的弱화를 노린 主張이라 아니할 수 없다.

## ③ 美軍撤収 問題

北韓은 地理的으로 中共 및 蘇聯과 바로 隣接해 있을뿐만 아니라 이들과 軍事同盟을 締結하고 있다 한편 韓國은 美國과 防衛條約을 締結하고 있긴 하지만 美國과의 距離는 太平洋을 사이에 끼고 있다. 이러한 地政學的 特殊性을 考慮해 볼때 美軍撤収는 韓國의 安全만을 全的으로 위태롭게 하게 된다.

結論的으로 南北韓이 相互信賴의 바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現在의 与件下에서 軍縮問題를 다룬다는 것은 時期尙早며 만약 우리가 受諾할 境遇, 그것은 韓國軍事力의 一方的 弱化만을 起來하여 韓半島의 平和는 破壞될 것이다.

또한 設령 減軍에 同意를 한다 해도 現在와 같은 与件下에서는 減軍을 감시할만한 機構가 없고 또 그것을 새로 만든다 해도 休戰監視委員團에 對한 境遇처럼 자기들 비위에 안맞는다고 그 活動을 阻害한다면 그 任務는 完遂될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軍縮이 갖는 價值性에 對해서 根本的으로 否定的 態度를 갖고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南北韓이 戰爭이 아닌 平和的 方法에 依해 統一을 實現하려면 軍縮問題는 언젠가 考慮해야만할 問題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러한 狀況을 造成하고 앞당기기 爲해서는 優先 南北韓間에 主要因이 적은 問題인 非政治 非軍事 分野의 交流를 優先 施行하여 相互 理解와 信賴의 基盤을 마련한後 以上の 軍事問題를 解決하는것이 理想的인 南北關係改善의 方向이며 順理인 것이다.

即 南北韓間에 信賴와 民族의 同質性이 회복되어 平和的 方法에 依한 統一 政府樹立의 서광이 비치는 統一 一步直前의 狀況下에서는 軍縮도 可能하다는 것이 우리의 基本立場인 것이다.

끝으로 現實을 볼때 南北의 自決的인 单独對話만으로는 解決하기가 어려우며 韓半島에 利害關係를 갖고 있는 周辺 強大國들의 協力이 있을 때만이 비로서 解決 可能한 것임을 考慮해야 한다.



## 6. 聯邦制 提議의 虛構性

北韓이 南北聯邦制를 처음으로 提案한것은 4.19 革命後 韓國에서 民主黨 政權이 樹立되고 平和統一論爭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던 1960年의 8.15 紀念式에서 行한 金日成演說에서 비롯된다. 同 演說에서 그는 統一方案으로써

① 外勢干涉없는 南北總選舉 實施

② 南北總選舉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過渡的 措置로서 南北聯邦制實施 (南北聯邦制는 南北에 現存하는 政治制度를 그대로 두고 兩政府의 独自の活動을 保障하는 同時에 兩政府代表로 構成되는 最高民族會議을 組織하여 主로 南北의 經濟·文化發展을 統一的으로 調節한다)

③ 上記提案에 同意치 않으면 南北의 産業界代表로 構成되는 經濟委員會를 構成할 것을 提案했던 것이다.

이 같은 聯邦制提案은 그後 韓國의 5.16 革命으로 因한 情勢安全과 함께 北韓内部의 戰爭準備政策으로 事實上 中斷되었다가 越南戰의 終戰展望이 뚜렷해진 1969年 8.15 紀念式에서 行한 金一의 演說에서 다시 提起되어 간헐적으로 主張해 오다가 그後 美·蘇의 接近 및 美·中共의 和解무드가 造成되기 始作한 1971年 4月 12日 北韓外相 許談이 發表한 8個項目의 統一方案가운데 包含되는等 同一한 內容이 되풀이 되었다. 그리고 南北對話와 함께 公式的으로 聯邦制案을 提示한것은 1972年 9月 17日 金日成의 日本 「每日新聞」記者와의 會見에서였다.

金日成은 同會見에서 「平和的 祖國統一을 하루빨리 實現하기 爲해서 우선 南北聯邦制를 實施하는것이 必要하다. 우리가 主張하는 聯邦制는

南北의 現存 政治制度를 그대로 두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와 大韓民國政府의 代表로 「最高民族會議」를 組織하여 南北間에 提起되는 政治 經濟·軍事·文化的 諸問題를 解決함으로써 民族的 團結을 이룩 하자는 것이다」라고 說明하였다.

이어서 그는 聯邦制가 나라의 統一에 갖는 意義와 役割에 關해서 「이와같이 南北聯邦制를 實施하여 南北間에 모든 分野에서 廣範한 交流와 왕래가 實現되면 南北間에 不信과 차디찬 感情은 解消되어 서로 理解하고 信賴하는 분위기가 造成됨으로써 民族的團結이 容易하게 이룩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어떠한 外勢의 干涉도 받지 않고 民主主義的 南北 總選舉를 통해 全朝鮮統一政府를 樹立하는 方法으로 나라의 自主的平和統一을 達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부연 하였다.

그後 北韓은 南北對話가 本軌道에 들어감에 따라 第二,第三次 南北調節委員會에서 南北間에 軍事對峙狀態 解消問題를 들고 나왔다.

이러하여 南北調節委員會에서 韓國側의 經濟·文化分野의 交流先行主張 對 南北側의 軍事問題 優先解決主張이 서로 맞서 對話는 停頓되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朴正熙大統領의 6.23 特別宣言이 發表되자 金日成은 同日저녁 8時 「후사크」체코共産黨書記長을 爲한 환영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이른바 五大綱領을 提議했다.

- ① 軍事對峙狀態 解消
- ② 多方面的 合作과 交流實施
- ③ 大民族會議 召集
- ④ 高麗聯邦制 實施
- ⑤ 高麗聯邦國號下에 UN單一 加入

以上 1960年以後 現在까지 사이에 北韓이 提議한 聯邦制는 內容上으

로는 그 어느것이나 同一한 것임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南北對話以前과 以後의 聯邦制提議에 있어 몇가지 特異點이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첫째 對話以前에는 그들의 諸般統一方案中 聯邦制를 하나의 要素로 包涵시켜 어느 하나를 扞一하라는 方式이었는데 對話以後에는 이를 止揚하고 다른 統一方案과 不可分하게 關聯시켜 提議하고 있는 點이다.

둘째 對話以前에는 主로 宣傳 및 大衆의 鬭爭課題로 提起한데 比해 對話以後에는 宣傳과 大衆的鬭爭課題로서는 勿論 南北間對話의 主題로써 올려놓고 있는 것이다.

세째 對話以前에는 聯邦制實施에 하등의 前提條件을 붙이지 않았는데 反해 오늘날에는 南北間的 軍事問題解決을 先行條件으로 들고 있다는 點이다.

北韓이 主張하는 聯邦制案은 전통적 國際法에 비추어보면 北韓이 主張하는 聯邦制의 概念은 聯邦 (Federation) 이라기 보다는 國家聯合 (Confederation) 의 性格이 濃厚하다.

北韓은 그들의 聯邦制를 說明하면서 「南北間에 現存하는 政治制度를 當分間 그대로 두고 聯邦制를 實現하며…」 또는 「独立的 中央政府가 없는 條件에서…」云云은 韓半島에 두個의 主權 國家가 存在하고 있음을 認定하고 있고 또한 聯邦政府 樹立을 考慮치 않고 있다는 點에서 聯邦 보다는 國家聯合的 性格이 짙다고 해석된다.

이는 東獨의 「올브리트」가 西獨에 對해 國家聯合案을 提示했던 1956年 以後에 北韓이 聯邦制를 提議했던 事實로 미루어보아 東獨의 國家聯合案을 模榜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北韓이 國家聯合構成에 關한 國際法的 基礎에 關해 言及이 없는것을 보면 순수한 의미의 國家

聯속도 아닌 그 概念自体가 심히 不透明하고 애매모호한 屬性을 지니고 있다.

둘째 聯邦制의 內容이 極히 貧弱하다 傳統國際法上 聯邦制의 構成要素로써 一般的으로 聯邦憲法, 聯邦政府, 聯邦裁判所, 聯邦立法機關 및 聯邦과 支分國間의 權限配分問題等에 關한 어떠한 合意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이러한 根本問題에 關해서는 60年以後 現在까지 何等의 言及이 없고 다만 聯邦制의 國號와 必要性 및 成果에 對해서만 장황한 說明을 늘어놓고 있다.

이처럼 概念이 不透明하고 內容도 없는것을 主張하는 理由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聯邦制를 提起하는 그 自体에서 對南宣傳 및 心理戰面의 效果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지 않을 수 없다.

세계 現實的인 南北關係 條件은 聯邦制를 受容할 素地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

歷史的으로 볼때 聯邦을 構成한 國家들은 大體로 異民族間이거나 歷史文化, 宗教가 相異한 土台위에서 聯邦으로 統合해야 할 理念的 同質性을 發見하고 또 構成國家에 緊張이 배제되며 相互 協助的인 분위기가 造成될때 聯邦成立이 可能했던 事實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南北現實은 單一民族으로써 歷史, 文化의 同質性을 견지하고 있으며 特히 理念, 思想面에서 民主主義 對 共產主義라고 하는 極端的 對決樣相을 보이고 있고 軍事的으로는 休戰線을 中心으로 아직도 緊張이 尙存하고 있는 狀況下에서 同一한 國家目標追求를 前提로한 聯邦構成은 전혀 不可能한 것이다.

또한 南北과 같이 二個의 支分國으로 構成되는 聯邦形態는 相互國力の 均衡維持가 嚴格히 지켜질때 聯邦이 維持되는 것이며 그 어느 一方의

優劣이 나타날 때는 이미 聯邦은 破壞되게 마련인바 南北韓이 現實적으로 이와같은 均衡維持를 保障할 수 있을 것인가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同時에 南北韓의 政治權力鬭爭論理上 聯邦制實施에 關한 合意成立은 곧 統一의 단계를 意味하기 때문에 北韓이 主張하듯이 聯邦制가 統一에의 中間단계 (過渡的 措置) 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北韓은 當面한 對南戰略의 目標을 駐韓美軍의 撤収 및 韓美紐帶關係斷絶과 韓國 反共體制弱화에 依한 人民 民主主義 革命분위기造成에 두고 있는바 聯邦制는 이러한 目標達成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北韓은 生覺하고 있는 것 같다.

即 그들은 聯邦制를 「完全合作」이라고 表現하고 있거니와 現在 南北韓間의 相互警戒 및 對決關係를 完全合作關係로 轉換하여 그 가운데서 合法的인 對南侵透와 自由로운 共產主義活動을 展開함으로써 人民民主主義 革命의 有利한 環境을 造成하려는 것이다.

또한 聯邦制를 採択하고 있는 國家의 大部分의 外交, 軍事 分野에 關한 限 單一體制를 維持하고 있는 狀況을 고려해 볼때 南北韓이 만약 聯邦制를 實施하게 된다면 單一外交 國防體制樹立과 對外活動에서 共同步調를 取해야 함으로 既存의 韓美·韓日紐帶關係의 弱화乃至 斷絶은 勿論 우리의 우세한 國際活動이 그만큼 制約을 받게 되고 駐韓美軍의 撤収를 不可避하게 만들 狀況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北韓이 聯邦制를 主張하는 底意를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 ① 駐韓美軍撤収를 비롯한 韓美의 共同防衛 및 協力關係를 弱화乃至 斷絶 시키려는 것이다
- ② 韓國內의 廣範한 階層과 統一戰線을 形成, 人民民主主義革命을 達成하려는 것이다.

③ 韓國의 反共體制 卽 共產主義의 浸透를 막는 法的, 社會的 規制와 國民의 反共意識을 해이시키려는 것이다.

④ 國際的인 現狀固定化 추세에 被動的 立場을 取하면서 南北分斷 永久化 責任을 轉嫁하려는 것이다.

⑤ 北韓内部의 주민들을 수양하고 結속시키는 등 그들의 對內政策遂行에 有用하기 때문이다

⑥ 해 외교포에 對한 침투공작을 利用하기 쉽다는것 等이라 하겠다.

結論的으로 北韓은 우리가 연방제를 거부하고 있는 期間은 連방제를 對內外 宣傳의 重要手段으로 利用할 것이며 만약 南北韓 合意下에 連방제가 實施된다면 그 가운데서 統一戰線戰術에 立脚한 南韓人民民主主義의 革命達成을 기도할 것이나 이러한 目的達成이 어렵고 오히려 역으로 北韓體制維持에 否定的 影響을 받을경우 그들은 聯邦制를 民族分斷을 永久化시키는 手段으로 利用하리라고 生覺된다.

THE UNIVERSITY OF CHICAGO  
DEPARTMENT OF CHEMISTRY  
530 SOUTH EAST ASIAN AVENUE  
CHICAGO, ILLINOIS 60607  
TEL: 773-936-3700  
WWW.CHEM.UCHICAGO.EDU

## 第六部 南 北 对 話

1. 南北对話의 背景
  2. 赤十字會談의 經過
  3. 調節委員會의 經過
  4. 北韓의 協商姿勢
  5. 南北对話 決裂의 責任
  6. 南北对話 評價 및 展望
  7. 北韓側 主張의 不當性
- 가. 了解解說委員 派遣案  
나. 法律的, 社会的 環境 改善案  
다. 5個 分科委同時 構成案  
라. 大民族會議 開催案



북한정국이 동해와 양은 수 교역이

## 1. 南北對話의 背景

南北對話를 實現시킨 韓國側의 意圖는 다음 3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첫째, 分斷 27年間の 南北間的 敵對關係 解消

分斷 27年間 南北韓은 相互 異質的인 理念과 政治體制下에서 約 100萬에 達하는 同族의 人命을 앗아간 6.25戰爭을 겪었고 또한 完全한 斷絶속에서 互通의 書信往來도 없었던 만큼 南北間的 政治的인 不和와 對立은 極限化되었고 더욱기 北韓共產主義者들은 계속적인 武裝「게릴라」와 間諜의 南派를 通하여 韓國의 社會秩序를 破壞함으로써 政府轉覆을 企圖해 왔다.

이같이 南北關係는 一觸即發의 戰爭危險을 內包하여 對話와 接觸없이는 武力對決의 可能性은 增大하고 反面에 相異한 理念과 體制의 固定化로 因한 南北韓住民의 思考行態의 異質化 및 生活化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이 同族相殺의 再演을 防止하고 統一의 可能性을 摸索키 爲하여 南北間的 접촉과 對話가 絶對 必要하였고 同時에 對決의 構造를 對話의 構造로 轉換시킴으로써 南北間에 高潮되어 있는 緊張을 緩和시킬 수 있는 것이다.

### 둘째, 國際秩序의 變化에 適應

戰後 國際政治의 趨勢는 國際的 緊張緩和의 摸索이라는 潮流속에서 政治理念的인 性向에서 實利追求的인 性向으로 기울어져가고 있고 美·蘇 兩極體制的 構造에서 多極體制的 構造로 變移해가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事實이다. 그러나 國際關係 變化의 底邊에 흐르고 있는 것은 各國이 저마다 自己의 利益을 追求하고 있다는 事實과 또 이같은 國家利益을 追求하기 爲해서는 長期的이고 巨視的인 眼目에서 考察해 볼때 國際平和主義的 立場을 取하는 것이 가장 合理的인 路이라는 點이다.

다시 말해서 國際環境에 對한 機敏한 適應과 對処가 없는 國家目標의 追求는 非現實的이며 孤立主義的이며 時代錯誤的임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國際環境에 對한 機敏한 對処없이 國家發展을 期待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南北이 各各 緊張狀態의 지속을 固執할때 이는 國際緊張緩和 潮流에 逆行하는 것이며 韓半島에서 또다시 戰爭을 誘發할 수 있는 危險要因을 안게되는 것이다. 때문에 南北間에 介在된 갈등과 對立은 어디까지나 協商에 依한 方法으로 自主적으로 타결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南北間에 對話의 通路가 開拓되어야 한다는 必要性이 提起된 것이다.

#### 셋째, 國民的의 念願實現의 現實的 對案

統一에 對한 國民의 輿論은 成長하여 가는데 反하여 6.25와 같은 同族相殘의 쓰라린 經驗이 생생할진대 戰爭에 依한 統一方法은 상상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平和統一을 爲한 國民의 念願을 욕되게 함은 兩論의 余地가 없다.

南北對話는 우선 平和를 指向하는 새로운 國際秩序變化에 適應하고 同族相殘의 비극을 未然에 防止하기 爲하여 必要한 것이며 同時에 平和的으로 統一될 앞날의 展望을 갖기 爲해서도 마땅히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한가도로 말해서 南北對話는 國民의 統一念願을 實現하기 爲한 現實的인 代案인 것이다.

그러나 分斷 27年間 對南革命路線을 계속 固執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지극히 호전적이고 교조주의적이고 폐쇄주의적인 北韓共產主義者가 對話의 상대일진개 南北對話에 對한 國內的 역기능을 배제하고 對話支援體制의 구축은 무엇보다 시급한 問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1972年 10月 南北對話를 제도적으로 保障하기 爲하여 平和統一指向 意志를 나타낸 유신憲法이 발효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北韓當局의 허황된 人民革命戰略을 分粹하고 南北 경쟁에서 우위를 確保하기 爲한 國

力의 組織化가 推進되고 있는 것이다. 特히 北韓當局이 金日成唯一思想에 依한 思想的 요새화를 구축하며 北韓住民에게 이른바 「南朝鮮 解放 精神」을 고취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勞動黨의 對南事業部를 強化하고 對南要員 教育기관을 設치하고 統一을 爲한 외곽단체로서 所謂 「祖國統一 民主主義戰線」과 「祖國平和統一委員會」를 이미 設치하여 運營하는 等 思想的으로나 体制的으로나 金日成을 正점으로 南北接觸과 對話에 만한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事實을 直시할때 民族의 사활을 좌우할 南北對話 에 처處할 수 있는 國民的團合이 무엇보다 먼저 組成되어야 함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고 하겠다.

## 2. 赤十字會談의 經過

1971年 8月 12日 大韓赤十字社가 南北韓의 離散家族이 겪고 있는 人間的 고통을 덜기 위한 人道的 南北赤十字會談을 제안하고 그로부터 이틀 뒤 北韓赤十字社側이 이에 同意함으로써 同年 9月 20日 관문점에서 本會談 準備를 위한 予備 會談이 開始되었다.

南北赤十字 會談 雙方代表는 그뒤 25次的 公開會談과 16次的 非公開 實務者 會談을 가진 끝에 會談이 提起된지 1년이 되는 1972年 8月 11日的 第 25次 予備會談을 마지막으로 하여

① 本會談 議題로서는 南北間에 흩어진 家族들과 친척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리는 問題, 自由로운 訪問과 相繼을 實現하는 問題, 自由로운 書信往來를 實施하는 問題, 이들의 自由意思에 의한 再結合 問題, 기타 人道的으로 해결할 問題를 다루기로 하며

② 本會談은 서울과 평양에서 輪番으로 開催하고

③ 第一次 本會談은 1972年 8月 30日부터 평양에서 그리고 第二次 本會談은 1972年 9月 13日부터 서울에서 開催하며

④ 其他 本會談에 各各 7名의 代表를 參加시키고 自己側 代表團의 諮問에 응할 7名 以內的 諮問위원들을 同行시키기로 하는 등의 本會談 進行節次에 完全한 合意를 보고 予備會談의 막을 내렸다.

이어서 第一次 本會談이 72年 8月 29日에서 9月 2日間 평양에서 雙方에 代表 7名, 諮問委員 7名, 수행원 20名, 取材記者 20名의 規模로서 行해졌으며 第二次 本會談이 同年 9月 12日에서 16日間 서울에서 번갈아 開催되었다.

兩次會談에서는 양측의 基調연설, 축사등이 行하여지고 具體的인 議題討議는 없었던 탐색적 會談이었다.

1972年 10月 23日에서 26日間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南北赤十字 第三次 本會談에서 議題 第1項인 「南北에 흩어진 家族, 친지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問題」에 대한 토의가 始作되었으나 南北間 見解의 차이와 北韓側의 상식을 벗어난 영똥한 主張으로 아직도 의제 1항에 대한 實質的 討議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大韓赤十字社는 國土分斷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南北으로 갈라져서 살고 있는 이산가족이라는 事實과 복잡한 政治的 社會的 問題보다는 해결이 어느정도 容易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赤十字의 人道主義 原則과 政治的 中立原則 등에 입각하여 南北間에 存在하는 政治的, 軍事的, 社會的, 經濟的 그리고 기타의 모든 問題에 우선하여 이산가족, 친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北韓赤十字側은 南北韓의 이산가족의 人道的 고통을 해결하는 문제의 시급성을 인정할 것을 거부하고 이들 이산가족들의 문제를 南北間의 政治的 統一問題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양자를 동시에 일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여 赤十字會談이라는 人道的 對話의 통로를 南北調節委員會라는 政治的 對話의 통로와 區別할 것을 거부하였다.

즉 그들은 「韓半島의 경우 최고의 人道主義는 곧 統一이며 統一을 떠난 人道主義는 없다」라고 主張하고 계속 赤十字事業의 人道的 순수성을 무시하고 赤十字會談에서 政治的 問題의 토의와 해결을 고집하여 왔다.

「統一을 떠난 人道主義는 없다」라고 그들이 主張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統一이란 곧 赤化統一이라는 點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主張이 얼마나 영똥한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基本立場에 따라서 韓赤代表團은 의제 제1항을 위한 討議의 原則으로서 다음 6個項을 提示하였다. 即,

- ① 이 事業은 어디까지나 赤十字가 主管하여야 하며 雙方 赤十字社가 모든 責任을 지고 事業을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

- ② 이 事業에 있어서 赤十字의 本質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모든 要素는 一切 배격되어야 한다.
- ③ 이 事業의 推進에는 当事者 各 個人의 自由意思가 절대 尊重되어야 한다.
- ④ 이 事業을 推進함에 있어서는 当事者 各 個人의 身上内容에 관한 秘密이 保障되어야 한다.
- ⑤ 双方은 이 事業의 推進을 위한 合意가 이루어지는데로 곧 事業에 착수해야 한다.
- ⑥ 이 事業은 正確하고 또 신속하게 處理되어야 한다.

韓赤側은 이러한 6個項의 原則아래 이 事業을 실천하기 위한 具體的 절차와 方法으로서 국제적으로 관용되는 事業方式으로써 남북 双方의 赤十字가 중재기구가 되어 휴전선 반대쪽의 가족과 친척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부터 조사 의뢰서를 받아 조사 의뢰 事實에 대한 事項을 조사 확인하여 回報書로써 알려주는 方式을 채택할 것을 提案하였다.

이에 관한 4개項의 主張을 具體적으로 살펴 본다면 첫째항으로서 事業의 節次는

- ① 双方 赤十字는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과 친척들로부터 住所와 生死를 알아낼 것을 원하는 의뢰를 接受하면 所定の 依頼書를 作成하여 相對方 赤十字에 수교한다.
  - ② 双方 赤十字는 依頼書에 記載된 照會事項을 신속히 조사한 後, 그 結果를 所定の 回報書로 작성하여 의뢰측 赤十字에 수교한다.
  - ③ 双方 赤十字는 相對側으로부터 받은 回報書內容을 지체없이 當初의 의뢰인에게 알린다는 것이었고
- 둘째항으로서는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는 의뢰서 및 주소와 생사를 알리는 회보서를 구체적으로 提示하였으며,
- 셋째항으로는 事業機構設置 問題에 있어서는 双方 赤十字는 가족 친척

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文件交換業務를 取扱하도록 하기 위하여 「南北 赤十字 板門店 事業所」를 설치하며, 그 設置 運營에 관한 細部事項은 따로 定한다.

· 네제항으로는 事業의 開始時期로는 双方 赤十字側이 의제 第1項에 관한 合意를 하는 날로부터 1個月이내에 주소와 생사를 알리는 文件을 交換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우리側의 合理的 提案에 대한 北韓側의 提案은 너무나도 엉뚱한 主張이었다.

· 即, 제1항의 實踐方案으로서 北韓側은 다음의 4個項을 提案했다.

① 南北의 現情 下에서는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친척들의 노출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면서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친척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南韓側에서 모든 法律的 社会的 장애를 除去하며, 当事者들과 協調者들이 民主主義的으로 自由롭게 意思를 表示하고 活動할 수 있는 條件과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②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친척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事業을 원만하게 保障하며 南北사이에 互相 信賴와 理解, 民族의 大團結의 분위기를 造成하기 위하여 双方이 적당한 수의 赤十字 了解 解說人員을 각각 相對方 現地에 파견한다.

③ 南北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의 범위는 本人의 호소에 따라 정하며 그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方途는 本人의 民主主義的 要求와 自由로운 意思表示에 따라 定하게 된다.

④ 以上 問題들에 대한 合意事項을 成果的으로 實行 保障하여 南北赤十字 共同委員會를 設置하며 必要한 곳에는 赤十字代表部들을 각각 設置한다.

北韓側은 이 4個項目 第1項의 이른바 「法律的, 社会的 条件 및 환경 개선」이란 한국이 첫째 反共法 國家保安法 등 反國家活動團束法들을 폐기하고, 둘째 反共團體를 해산하고, 셋째 共產主義를 反對하는 政策들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說明했으며 또한 第三項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方法」은 赤十字가 介入할 必要도 없이 그리고 찾고 있는 相對方 가족, 친척의 住所나 生死를 확인함이 없이 當事者와 當事者의 協助者들이 相對側 地域을 自由롭게 다니면서 찾아내면 될 것이라는 허황된 主張을 내세웠다.

北赤側의 「法律的 社会的 条件 및 환경改善」 主張은 大韓民國의 國內法秩序에 대한 不當한 干섭이며 人道的 赤十字의 奉仕活動에 있어서 政治的 論争의 介入을 禁止하고 있는 赤十字의 基本原則에 正面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더우기 家族찾기와는 無關한 北韓의 政治 선전원인 요해해설요원을 파견하겠다는 主張은 본래의 赤十字活動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무리한 主張이다.

또한,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方法」에 관한 北赤側 主張은 그 自体가 非現實的이며 人道的事業의 수행에 있어서 仲介者로서의 赤十字의 機能을 否定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나아가서 北赤側은 「法律的, 社会的 条件과 환경개선」의 問題는 의제 第1項 托의의 先決條件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러한 北赤側의 무리한 主張에 대하여 韓赤의 李範錫 首席代表는 北赤側 主張의 不當性を 지적하고 韓赤提案이 國際 赤十字 基本原則과 慣例 및 人道主義정신과 民族愛의 정신을 忠實히 반영한 것임을 說明하고 의제 第1項의 實質討議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거듭 促求하였다.

李首席代表는 「赤十字會談에서 合意되는 人道的 여러 事業과 그 事業의 推進,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事業은 여하한 기존 法律的 社



会的 沮害를 받지 않을 뿐더러 더우기 人道主義原則에 입각하여 적극 그 事業을 지원 하는 것이 大韓民國 政府의 明白한 方針이며 또한 남북 적십자회담이 한국의 제의로 이루어졌다는 明白한 事實과 아울러 그동안 한쪽에서 59名씩 이라는 代表團 人員이 아무런 法律的 社會的 迫害를 받음이 없이 南北을 오가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숭고한 人道的 努力때문에 오히려 찬양과 존경의 對象이 되고 있다는 엄연한 事實을 例示하면서 會談에서 더 以上 政治問題를 둘러싼 논쟁을 벌이지 말고 赤十字原則과 정신에 입각해서 議題에 대한 구체적 토의를 進行시킬 것을 北赤側에 거듭 促求했다.

그러나 北赤側은 계속 완강하게 그들의 主張을 고집했고 72年 11月 22日에서 24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第四次 本會談과 73年 3月 20日에서 23일간 평양에서 열렸던 第五次 本會談은 별다른 成果없이 끝났다.

특히 北赤側은 1973年 5月 9日 서울에서 열린 第六次 本會談에서 議題 第1項에 관한 修正提案이라는 것을 내 놓았는데 그 主要内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法律的, 社會的 條件과 환경 개선」問題에 관해서는

- ① 反共法과 國家保安法을 철폐하라.
- ② 戰爭과 공포분위기를 造成하고 民族的 對立과 反目を 고취하는 모든 活動을 금지하며 그러한 團體들을 없애고 韓國에서 緊張狀態를 완화하라.
- ③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 친척들을 찾기 위하여 南北을 來往하는 當事者들과 겨레들의 고통을 풀기 위한 事業에 나선 協助者들 및 關係者들에게 言論, 出版, 집회, 通行등 모든 活動의 自由와 편의를 提供하며 그들의 人身과 휴대품들에 대한 不可侵權을 認定하고
- ④ 政黨 社會團體 公共기관 및 個人들이 南北으로 흩어진 겨레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事業을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모든 條件을 保障하라.

둘째, 「赤十字 了解解說人員의 相對地域의 파견」問題에 對하여

- ① 赤十字 了解解說人員은 各 個 里(洞) 單位에 1名씩 該當되도록 파견하며 市郡을 單位로 活動한다.
- ② 赤十字 了解解說人員들은 흩어진 家族, 친척들의 實態를 了解하며 誤解와 不信任을 除去하고 互相 信賴와 民族的 화목과 團結의 분 위기를 造成하며 흩어진 겨레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人道的 事業을 원만히 保障하기 위한 解說事業을 하며, 갈라진 겨레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效果的인 方途를 강구한다.
- ③ 赤十字 了解解說委員들에게 言論, 出版, 集會, 通行等 모든 活動의 自由와 편의를 保障하며 그들의 人身과 휴대품에 대한 不可侵權을 認定한다.

셋째,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친척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方途는 當事者들이 直接 相對側 地域을 自由롭게 다니면서 家族, 친척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것을 基本方途로 하며 當事者들이 要求하는 間接的 補充的 方法들도 적용할 수 있다.

이같은 北赤側의 새 提案은 當初의 提案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점이 없으며 특히 家族과 친척들의 고통보다는 「갈라진 겨레의 고통」을 力說했다든지, 數萬名의 이른바 「了解解說人員」을 相對方 地域에 파견하여 제멋대로 活動하게 하자는 등으로 赤十字를 통한 尋人事業보다는 一種의 政治的 群衆事業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特色이다.

이러한 北赤側의 되풀이 되는 不當한 主張으로 南北赤十字 第六次 本會談초자 아무런 實質問題의 討議없이 끝나고 말았다.

韓赤側은 南北赤十字會談에서 의제 第1項을 實踐하는 方法에 좀처럼 會意가 이루어질 展望이 서지 않자 73年 7月 10日에서 13일간 停

양에서 개최되었던 第七次 本會談에서 「금년 추석을 前後하여 南北雙方이 合意하는 일정한 數의 추석 성묘 방문단을 조직해서 相對側 지역의 조상의 묘소에 성묘를 하게 하자」는 타개책을 제시했으나 北赤側은 여전히 大韓民國의 法律的 与件과 社会的 환경을 먼저 개선해야 된다는 主張을 계속하며 韓赤側 提案을 묵살하였다.

周知하는 바와같이 北韓의 一方的 南北關係 中斷 선언以後 南北赤十字會談 또한 교착상태에 빠져버렸다.

이에 절망하지 않고 韓赤側은 73年 11月 15日 北赤側에 「메시지」를 보내서 서울에서 개최될 차레인 第八次 本會談의 年内 개최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7月 16日 雙方 連絡 責任者들이 板門店에서 접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提案의 結果로 雙方間에는 11月 22日 雙方 연락 責任者 會議가 그리고 28일에는 雙方 會談代表 1名씩이 참가하는 擴大 연락 責任者會議가 역시 板門店에서 열렸다.

이러한 예비접촉에서 大韓赤十字側은 第八次會談을 12月 19日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74年 7月 10日 第1次 실무회의에서는 노부모 생사 확인문제와 주소확인 및 판문점에서의 상봉문제, 제 8차 本會談 再開問題와 서울會談 開催提議(8月 30日), 동해 해경 863호 피격사건관련 인도적 조치문제등을 제의하고 이에 대한 北韓 赤十字側의 同意를 要求하였다.

그러나 北赤側은,

- ① 大韓赤十字 會談代表團에서 非赤十字要員을 제거하라.
- ② 大韓民國이 國家保安事犯들에 대한 단속을 中止하라.
- ③ 서울은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므로 予備會談에서의 合意에 의하여 서울에서 열릴 차레인 第八次會談을 평양에서 개최해

야 한다는 등의 主張을 계속하여 韓赤側의 誠實한 努力과 再結合  
을 회구하는 이산가족의 여망을 무참히 짓밟고 南北赤十字會談의  
진전을 거부하고 있다.

### 3. 調節委員會의 經過

南北 赤十字 予備會談이 進行되는 동안 朴正熙 大統領은 韓半島에서 戰爭再發의 危險을 없애고 그동안의 不安定한 平知를 永統的이고 安定된 平和로 바꾸며 나아가서는 祖國의 自主的 平知統一의 길을 트기 위해서는 北韓과의 사이에 人道的 赤十字會談과는 次元을 달리하는 別個의 對話通路를 開設해야 하겠다는 決斷에 도달했다.

이러한 決斷에 따라서 1972年 5月 2日부터 5日까지의 사이에 李厚洛 中央情報部長이 極秘裡에 平양으로 파견되었던 것이다.

李部長은 平양에 滯留하는 동안 金日成과 그의 實弟이며 勞動黨 組織 指導部長인 金英柱와 일련의 會談을 갖고 祖國의 강토 위에서 다시는 戰爭의 銃聲이 울리지 않게 하며 南北關係를 改善하고 궁극적으로 分斷 祖國의 統一이라는 民族的 悲願을 성취하는 問題에 관하여 허심탄회한 意見交換을 가졌다.

李部長의 平양 訪問에 答하여 北韓側은 당시 第2副首相 朴成哲을 金英柱의 代理로서 秘密裡에 서울로 보내었다.

朴成哲 一行은 5月 29日부터 6月 1日까지 서울에 머물면서 李部長과 일련의 會談을 가졌으며 朴大統領을 禮訪했다.

이러한 일련의 秘密訪問을 통해서 南과 北은 歷史的인 「7.4 共同聲明」의 發表에 合意하였다.

1972年 7月 4日 서울과 平양에서 同時 發表된 南北 共同聲明의 基本 취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南과 北은 서로 侵略을 하지 않으며 平和的 方法에 依해 祖國의 統一을 追求하고 그에 앞서 思想과 理念, 制度의 差異를 초월한 民族的 團結을 圖謀하기로 合意하고 이를 ① 自主 統一 ② 平和 統一 ③ 民族的 大團結이라는 3個 統一原則으로서 集約的으로 表現하였다.

또한 南北은 南北間의 긴장을 완화하고 關係를 改善하는 일이 무엇보다 至急하며 이를 위해서는 不信과 誤解를 해소하고 理解와 信賴의 분위기를 造成하는 것이 必要하며 이를 위한 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事項들에 合意했다.

- ① 서로 相對方을 中傷 誹謗하지 않으며 大小間 무장挑發을 하지 않으며 不意의 軍事的 衝突을 防止하기 위한 積極的 措置를 取한다.
- ② 南北間에 多方面的 諸般交流을 實施한다.
- ③ 南北赤十字會談이 早速히 成事되도록 積極 協調한다.
- ④ 突發的 軍事事故를 防止하고 南北間의 諸般 問題들을 處理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사이에 直通電話를 架設 運營한다.
- ⑤ 合意事項의 實踐과 合意된 原則에 따라 統一問題를 해결하기 위해 李厚洛部長과 金英柱 部長을 共同委員長으로 하는 南北調節委員會를 構成 運營한다 등이었다.

南北은 1972年 10月 12日 板門店에서 열린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會議 第一次會議에 이어 1972年 11月 2日부터 4日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共同委員長會議 第二次會議에서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한 合意書」에 合意하였다.

本會議에서 合意된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한 合意書」는 첫째, 南北調節委員會의 機能으로서

- ① 合意된 原則에 따라서 祖國의 自主 및 平和統一을 實現하는 問題를 協議 決定하고 그 實踐을 保障하는 機能
- ② 南北의 政黨, 社會團體 및 個別人士間의 광범한 政治的 交流를 實現하는 問題를 협의 決定하며 그 實踐을 保障하는 機能
- ③ 南北間·經濟·文化 및 社會的 交流와 協力을 實施하는 問題를 協議 決定하며 그 實踐을 保障하는 機能

④ 南北間의 긴장완화와 軍事的 衝突防止 및 軍事的 대치상태 해소 문제를 協議 決定하고 그 實踐을 保障하는 機能

⑤ 對外活動에서 南北이 共同步調를 취하며 單一民族으로서 民族的 긍지를 선양하는 問題를 協議 決定하며 그 實踐을 保障하는 機能 등으로 規定하였다.

둘째로는 南北調節委員會는 雙方 共同委員長, 副委員長 各 1名, 委員 各 2名, 幹事委員 各 1名으로 구성하되 委員의 級은 長·次官級으로 하여 事前協議를 거쳐 雙方共同委員長이 任命하기로 규정한다.

셋째로 南北調節委員會에 雙方 幹事委員과 幹事 2名씩으로 構成되는 幹事會議을 두며, 또 政治, 軍事, 外交, 經濟, 文化의 5個分科 委員會를 두되 그 設置는 事業이 진척되는데 따라서 遂次的으로 하기로 한다.

네째로 南北調節 委員會는 每2~3個月마다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열며 幹事會議는 每月 1회씩 板門店에서 갖기로 한다는 등이었다.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운영에 관한 合意書」가 合意된 외에도 이 會談에서는 서울側 李厚洛 共同委員長이 南北間 긴장완화를 위한 始初 段階의 措置로 南北間의 對南, 對北 방송과 休戰線에서의 擴声器 使用에 의한 對南, 對北 放送, 그리고 宣傳傳單의 相互 살포 中止를 提議 하였으며 다른 한편 將來에 있을 南北協力の 象徴으로 板門店에 南北調節委員會 共同事務局 建物を 共同建築할 것을 아울러서 提案하였으며 이러한 提案에 대해서 평양측은 板門店에 南北調節 委員會 共同事務局 建物を 共同 建築하는 問題는 「장차 토의하자」고 하여 合意를 유보했으나, 前者의 提議에 대해서는 受諾하여 1972年 11月 11日 영시를 기하여 對南·對北 방송이 中止되고 休戰線에서의 스피커 방송이 中止되며 상호 비라 살포행위가 중지되는 南北間 會意事項이 發効되기 始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會意事項이 이루어졌던 共同委員長 第二次會議는 서울측에서

李厚洛 共同委員長을 비롯하여 張基榮 前副總理, 崔圭夏 大統領特別補佐官 康仁德 中央情報部 前九局長, 鄭洪鎮 協議調整局長이 參加했으며 평양측에서는 金英柱 共同委員長을 代理한 朴成哲 副首相과 柳章植 勞動黨 組織指導部副部長겸 對外事業部長, 李景錫 內閣參事, 韓雄植, 金德賢 勞動黨 中央委員會 政治委員會 直屬 責任指導員이 參加함으로써 南北調節委員會의 骨格은 事實上 共同委員長 第2次會議를 기해서 갖추어졌다는 意義를 가진다.

共同委員長 第3次會議는 1972年11月29日 서울에서 열렸고 會議 參加者는 第2次會議 때와 모두 같았으나 다만 평양측의 李景錫 內閣參事가 李完基 內閣參事로 交替되었다.

共同委員長 第3次 會議에서는 별달리 討議할 案件이 없었고 雙方은 當日로 共同委員長 會議를 終結하고 南北 調節委員會를 즉시 開催하기로 合意하였던 것이다.

그밖에 서울측의 李厚洛 共同委員長과 평양측의 金英柱 共同委員長을 代理한 朴成哲 副首相은 共同委員長 第3次會議의 雙方 參加者들을 모두 南北調節委員會 會員으로 任命기로 相互 同意하였다.

또한 서울側의 張基榮 委員과 평양側의 柳章植 委員은 各各 南北 調節委員會 副委員長으로 任命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調節委員長會議를 거쳐서 正式으로 南北 調節委員會 第1次會議가 1972年11月29日, 30日 兩日에 걸쳐서 서울에서 개막되었다.

서울側은 南北關係는 相互 理解와 信賴의 분위기를 造成해 나가면서 漸進적으로 改善되어 나가야 할 것이라는 立場임을 밝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相異한 理念과 制度로 말미암은 摩擦要因이 比較的 적은 經濟分野에서 交流와 協力을 實踐에 옮길 것을 主張하였다.

서울側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우선 經濟分科委員會를 發足시킬 것을 提議했으며 아울러 調節委員會의 運營細則을 早速히 制定하고 幹事會議를



構成하며 共同事務局을 設置하는 等の 調節委員會의 實務機能 發揮을 위한 整備作業을 빨리 매듭짓자는 提案을 내어 놓았다.

이에 對하여 평양측은 軍비경쟁, 武力증강중지를 要求하고 調節委員會의 實務機能 發揮을 위한 整備에는 消極的인 자세로 나왔다.

이 會議에서는 實質問題에는 아무런 具體的 合意를 보지 못하고 다만 雙方은,

- ① 幹事會議을 早速히 構成하고
- ② 共同事務局을 早速히 設置하며
- ③ 調節委員會 運營細則을 마련하기로 한다는 「共同發表文」에 겨우 合意하고 이를 發表하는데 그쳤다.

1973年에 접어 들면서 서울側은 2次會議의 主催側인 平壤側에 對하여 調節委員會의 早速한 開催와 幹事會議의 早速한 構成을 중용하였고 이에 對한 평양측의 肯定的인 반응은 3月初에 가서야 겨우 나타났던 것이다.

南北 調節委員會 第2次會議의 開催를 論議하기 爲하여 1973年 3月 10日 板門店에서 第1次 幹事會議가 열렸으며 3月 14日부터 16日까지 평양에서 南北 調節委員會 第2次會議가 開催되었다.

이 2次會議에서의 분위기는 1972年 中盤期에 南北 對話의 분위기가 高潮되어 있었던 것과 매우 對照的으로 前例없이 심각하게 冷却되어 있었다.

會議 直前 朴成哲 평양측 共同委員長 代理가 李厚洛 共同委員長을 禮訪한 자리에서 「우선 南北間에 信賴와 理解의 분위기를 造成하자」는 李厚洛 共同委員長의 中용에 對해서 朴成哲은 「軍事問題의 解決이 先行條件」이라고 밝혔다.

이에 對해서 理解와 信賴의 基盤造成이 없이 大韓民國만이 一方的으로 軍事力을 弱화시켰다가 뜻하지 않았던 戰禍를 겪어야만 했던 6.25의

예를 들어서 軍事問題 우선解決의 不當性을 내세우자 朴成哲은 「過去는 過去, 現實은 現實」이라고 말함으로써 南北對話를 硬化시킬려는 北韓側 態度가 엿보이기 始作했다.

同 會議에서 서울側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主張하였다.

- ① 經濟分科委員會의 構成을 통하여 經濟人의 自由往來, 広範한 物資交流, 特定部門에서의 共同開發 및 合同作業, 物品交流를 위한 常設機構의 雙方地域 設置를 實現할 것.
- ② 社會文化 分科委員會의 構成을 통하여 雙方 藝術團體(가무단등) 交換招請 公演, 學術·體育團體 交流, 社會團體間의 多角的 接觸과 交流를 實現할 것.
- ③ 調節委員會, 幹事會議, 共同事務局의 3個 運營細則의 制定
- ④ 調節委員會 共同事務局 建物の 共同建設
- ⑤ 解決容易한 分野부터 事業始作
- ⑥ 對南誹謗 및 폭력革命指令의 中止등을 主張하였다.

이에 대하여 平壤側은 (1) 軍事分科委員會를 만들 것과 이를 통한 다음과 같은 五個項을 提示하였다.

- ① 武力增強과 軍備競爭 中止
  - ② 10萬以下로 減軍 및 軍備의 大幅 縮小
  - ③ 一切의 軍裝備 및 軍需物資 搬入 中止
  - ④ 美軍을 비롯한 一切의 外國軍 撤收
  - ⑤ 以上 問題의 解決과 相互 武力不行使를 保障하는 平和協定 締結
- (2) 政治, 軍事, 外交, 經濟, 文化分科 委員會의 一括 設置
- (3) 南北 政黨, 社會團體 連席會議 開催등을 되풀이 主張하였다.

結局 調節委員會 第2次 會議은 아무런 成果도 없이 끝났으며 形式的인 共同發表文案조차도 合意를 보지 못하기에 이르렀다.

이어서 1973年 6月 12日부터 14日까지 서울에서 南北調節委員會 第3次

會議가 開催되었다.

北韓側은 第2次 會議와 마찬가지로

- ① 軍事問題 우선 解決을 고집하여 그들이 提示했던 軍事 5個項을 내세우고
- ② 5個分科委의 一括設置를 主張하고
- ③ 2次會議에서 主張했던 南北 政黨, 社會團體 연석會議 開催主張을 各 政黨, 社會團體 代表들과 各界 各層 人士들이 參加하는 政治協商會議를 開催하자는 主張으로 되풀이 해서 내세우고만 있었다.

서울側은 北韓이 내세우는 主張이 不當하며 南北對話의 進展을 저지하는 結果를 초래할 것임을 우려하면서, 南北關係를 建設的이며 生産的인 것으로 改善 發展시켜 나가기 위해서 몇가지 原則을 北韓側에 提示하였다.

그것은 南北 雙方이 各各

- ① 相互 體制否定을 止揚하고
- ② 서로 相對方의 體制를 이해하며
- ③ 各己 相對方의 體制 內部問題를 비단 干涉하지 않고
- ④ 各己 自己 體制에 입각하여 國民의 福祉 增進에 努力하며
- ⑤ 體制를 초월하여 民族의 同質性을 強化하는 方向으로 協力關係를 造成해 나가고
- ⑥ 體制와 體制間에 南北 共同聲明 精神에 입각한 誠實한 對話를 繼續해 나간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原則外에 南北 調節委의 事業을 본체도에 올리고 南北關係를 改善시키기 위해서 서울側이 提示한 主張은 다음과 같다.

- ① 調節 委員會 幹事會議, 共同事務局 運營細則의 조속한 채택
- ② 共同事務局 건물의 공동건설
- ③ 合意事項의 誠實한 준수와 不信風潮追放 및 相互 正直한 關係의 구축

④ 經濟와 社会文化分科 委員會를 우선 設置하여 經濟 分野 및 社会文化 分野의 交流를 실시할 것등을 주장하였고 經濟 및 社会文化 分野 交流로서 具体的으로 15個項의 細部的 交流 分野를 例示하여 發表하면서 南北間 相互 完全한 社会 開放을 과감히 主張하였다.

北韓側은 계속 不當한 그들의 主張만을 되돌이킴으로써 南北調節委員會 第3次會議도 아무런 成果없이 끝났으며 北韓側이 南北 對話를 中斷시킬 方向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포착한 우리側은 南北 關係에 새로운 活力을 불어 넣기에 苦心했으며 南北 赤十字 會談의 교착을 防止하기 위해서 南北 赤十字 第7次 會議에서 南北間 추석 성묘단 상호 交換을 主張한 것과 보조를 맞추어서 8月初 南北調節 委員會 李厚洛 共同委員長이 서울에서 열리는 第2回 「아시아」排球 指導者강습회에 北韓 排球協會를 초청하는 大韓排球協會의 초청장을 전달하는 役割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李厚洛 共同委員長은 만약 北韓이 受諾한다면 北韓排球 지도자들의 韓國訪問은 南北間의 이해를 造成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南北間에 실질적으로 交流를 트는 물파구의 구실을 할 수 있다는데 큰 意義를 부여했던 것이다.

李厚洛 共同委員長은 만약 北韓 배구지도자들이 서울에 올 경우 그들의 서울 체제기간중 그들의 신변의 安全과 모든 便宜를 保障하고 大韓排協의 초청장을 北韓排協에 전달해 줄 것을 要請하는 서한을 초청장과 함께 板門店을 경유하여 平壤측 共同委員長에게 보냈다.

그러나 北韓은 韓國의 성의있는 努力에 냉담했으며, 초청장이 전달된 이튿날인 8月2日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고 말았다.

그 이후 北韓은 돌연히 金英柱가 8.28 선언으로 南北對話의 中斷을 一方的으로 선언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北韓側의 無誠意에도 불구하고 韓國側은 南北對話를 계속해

야 된다는 民族的 必要性에 부응하여 꾸준히 南北 對話의 再開를 위한 탐색과 접촉을 시도하여 왔다.

南北 調節委員會의 서울側은 11月 15日 南北直通電話를 通해 平壤側에 공한을 보내 南北調節委員會 第4次 會議의 조속한 개최를 提議하였다.

서울側은 이 공한에서 調節委 第4次會議의 개최 問題와 關連해서 雙方間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雙方 幹事委員間의 접촉을 제의하고 「만약 위원회의 재개를 위해 위원회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평양측의 의견이라면 위원회의 개편문제를 포함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正常化시키는 方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평양측은 11月 16日 柳章植부위원장이 서울側의 張基榮부 위원장에게 공한을 보냄으로써 北韓側의 반응을 전해왔다.

그러나 서울側의 委員會 再開 제의에 대한 평양측의 반응은 소위 8.28 金英柱 성명을 되풀이 하고 大韓民國에 대해 反共法, 國家 保安法 위반 事犯에 대한 단속의 中止를 요구하며 南北 調節委員會는 政黨·社會 團體 代表들로서 개편할 것을 요구하는 소극적이고도 不誠實한 것이었다.

서울側은 이에 雙方 副委員長 會議의 開催를 평양측에 제의하여 그 結果 12月 5日과 19日 두차례에 걸쳐서 雙方 副委員長會議가 板門店에서 개최되었으나 委員會의 조속한 再開는 별다른 기대할 展望이 없는 形편에 이르고 있다.

#### 4. 北 韓 的 協 商 姿 勢

西方側에 있어서 協商이란 서로 利害關係가 相反되는 두 當事者가 各 各의 主張을 내세우고 서로 妥協을 거쳐서 相互 양보를 주고 받음.으로 彼此 合意에 도달하는 過程이라고 보며 相對方으로부터 最大의 양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合理的 說得이 主要한 意味를 가진다.

協商에 대한 西方側 見解와는 달리 共產主義者들은 協商을 平和的 方法에 의한 戰爭으로서 파악하며 客觀的 주변정세가 西方側에 유리할 경우 平和的 協商을 택하여 條件이 變化하기를 대기내지 促進시킴으로써 주변정세가 공산측에 유리하게 造成되면 協商이 아닌 폭력적 手段을 택함으로써 그들의 最終目的을 수행하기 위한 一時的 手段으로 파악하고 있다.

共產主義者들과의 協商 專門家인 「레오나드·샤피드」는 그의 경험을 통한 結論으로서 「共產主義者들과의 協商을 통한 진정한 긴장완화란 망상이다」라고 助言을 提示하고 있으며 「윌리엄·헤이터」주소 영국대사도 「공산주의 자들과의 協商에 있어서는 西方側과의 協商과는 달리 合理的 說得이나 토론으로는 설득이 不可能하다」라고 지적해 주고 있다.

赤化統一을 確固한 對南戰略 目標로 設定하고 있는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이를 實現하는 方便으로서 두가지를 提示하고 있다.

그 하나는 戰爭의 手段에 依存하는 極端的인 힘의 對決에서의 優位性에 依存하는 方式과 다른 하나는 政治的 野合이 可能할 경우에 있어서의 平和的 手段에 依存한 共產化 革命의 推進이다.

北韓 金日成은 「協商은 곧 平和的 方法을 통한 투쟁의 一環이며 平和를 위한 平和의 追求는 결코 容納될 수 없는 것이며 敵과의 協商에서 有利한 談判을 벌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強力한 軍事力을 背景으로

해야 한다」고 強調하여 共產主義者들의 一般的 協商觀에 입각하고 있음  
을 드러내었다.

赤十字會談과 調節委員會談에 있어서 北韓側의 協商자세는 共產主義者들의  
一般的 協商觀과 北韓側의 特殊性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協商자  
를 취하였다.

첫째로 北韓側은 궁극적인 對南戰略目標인 韓半島의 赤化統一을 成就하  
기 위한 하나의 手段이요, 戰爭의 一環으로 보는 그들의 協商觀에 따라  
서 協商에 임하여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立場이 있었으며 그  
들의 立場이란 바로 赤化統一에 관한 主張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이  
었다.

그들의 이러한 確固한 立場을 지키기 위하여 協商에서 단호한 자세를  
維持하였으며 赤十字會談에서의 반공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등의 「法  
律的, 社会的 与件 및 환경改善」主張이나 調節委員會談에서의 「軍事 5개項目」  
이나 「大民族會議소집」主張등 對南赤化를 노리는 主張은 매우 단호했으  
며 이러한 主張이 南北對話 進展에 있어서 優先적으로 合意해야 한다.고  
主張함으로써 南北對話를 結果적으로 교착狀態에 빠지도록 만들었다.

두번째로 北韓側이 회담에 임하는 자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確固  
한 立場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점에서 協商 相對方인 韓國側의 合理  
的 說得이 그들의 主張을 양보시키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수 없었으며  
韓國側이 안내와 끈기로서 妥當한 理由를 提示하여 아무리 열성적으로  
說得하더라도 不當한 그들의 主張만을 고집하는 不誠實한 會談자세를 시  
종 일 관하여 固守하였다.

세번째로 北韓側이 會談에 임하였던 자세로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倫理感이나 道德性을 完全히 무시하는 철면피한 會談자세를 유지  
하였다는 것이다.

그들은 協商을 戰爭의 一環으로 보는 以上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

고 그들의 主張을 관철시킴으로써 協商에서 北韓側에 一方的으로 有利한 合意만을 도출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그들은 會談을 지연시키는 戰略을 그들이 不利할 때마다 使用하며 심지어는 協商테이블에서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한 공갈 협박까지 구사한 事例가 있다.

그밖에도 우리側이 하나의 양보를 하면 그에 대응하여 北韓側도 어떤 양보를 해 주기는 커녕 그들의 요구조건을 배가하여 또다른 하나의 양보를 우리측에 요구하는 요구조건 배가전략이라든지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세웠다가 이를 철회하는 것을 대가로 하여 우리측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강탈적 요구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물론, 남북간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등의 불성실한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이와같은 不當하고도 不誠實한 北韓側의 會談자세는 바로 南北對話를 교착狀態에 빠지게 한 가장 커다란 理由中の 하나였다.

協商은 이를 成功으로 이끌기 위한 두 当事者의 기본장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어느 一方이 自身の 主張만을 일삼는 不當한 자세를 유지할 경우, 失敗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韓國側이 아무리 南北對話의 成功을 열망하고 그 會談에 진지한 자세로서 임한다 하더라도 北韓側이 종래와 같은 會談자세를 固守하며 이의 是正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면 南北對話의 장래는 암담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南北對話의 성공을 위해서 必要한 北韓側의 會談자세의 是正이 可能하며 어떤 상황하에서 그것이 可能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確實한 解答을 提示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거의 確實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側이 與論에 쫓기어서 우리側의 立場을 어느 程度 양보하더라도 南北會談이 잘 進行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北韓側에게 양보를 해주는 것이 종래의 不誠實한 北韓側



의 會談자세를 是正하도록 하는 것에 하등의 도움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北韓側의 會談자세를 더욱 더 나쁜 것으로 만들 가능성이 보다 크다는 점일 것이다.

北韓側이 韓半島의 赤化統一을 달성하며 協商을 통해서 赤化統一을 造成해야겠다는 그들의 戰略目標가 不可能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修正하지 않는 限, 그들의 會談자세가 是正될 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協商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北韓側의 赤化統一을 겨냥한 主張에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이를 受諾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立場을 밝히므로써 北韓 스스로가 그들의 會談자세를 是正해야 할 것이라는 認識을 하게 되도록 誘導해야 할 것이다.

短期的으로는 北韓側의 會談자세가 진지한 것으로 窺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하더라도 長期的으로는 이것이 不可能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判斷에 따라서 우리측은 再開될 南北對話에 있어서는 총리와 같은 誠實한 자세와 인내심을 발휘해야 할 것이며 分理的인 說得을 통한 南北對話의 순탄한 進展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 5. 南北對話 決裂의 責任

1973年 8月 28日 下午 6時 北韓은 南北調節委員會 平壤側 共同委員長 金英柱의 이름으로 事實上 南北調節委員會를 通路로 하는 南北對話의 中斷을 一方的으로 宣言하는 것으로 解釋되는 長文의 聲明을 發表했다.

同聲明에서 金英柱는 「金大中氏 납치事件을 大韓民國 中央情報部가 主謀했다」고 獨斷하는가 하면 李厚洛 서울側 共同委員長이 「共同聲明의 合意事項을 具體化하는데 反對하고 말로는 完全開放을 말하면서 南北間의 合作과 交流를 爲한 實際的 措置에는 反對했다」고 主張하고 또한 大韓民國政府가 「反共政策을 強化하여 愛國者를 彈壓하고 民族分裂을 固定化하여 두개의 朝鮮을 造作하고 있다」고 強弁하는 등의 激烈한 對南非難을 퍼부었다.

또 金英柱는 그 自身과 함께 7.4 共同聲明의 署名者인 李厚洛共同委員長에게 「강파」「頭目」「徒黨」「파쇼」等 야비한 人士攻擊을 敢行하면서 李厚洛共同委員長을 相對로 하는 會談의 계속을 拒否하고 代身 交替될 사람은 「民族的 良心이 있고 民族分裂의 固定化를 反對하며 眞正으로 平和統一은 念願하는 사람」이라야 한다는 條件을 내세웠다. 이러한 條件이 無理한 것임은 再論의 余地가 없거니와 이것은 合意를 爲해 내놓았다가 보다는 合意를 양기 爲해 내놓은 것으로 結局 南北對話를 양겼다는 것으로 밖에 解釋할 수 없다.

또 金英柱는 對話계속의 條件으로 大韓民國이

- ① 南北共同聲明의 原則을 尊重하고
- ② 「2개의 朝鮮」路線을 淸소하고
- ③ 祖國統一을 爲해 싸우는 사람들에 對한 彈壓을 그만두고 言論, 出版, 集會, 結社, 示威等 人民들의 民主主義의 自由와 政黨 社會團體들의

活動의 自由를 保障하며

④ 체포, 투옥된 愛國者들을 석방하라는 要求條件을 내놓았다.

여기서 南北共同聲明의 原則을 尊重하라는 要求는 賊反荷杖의 억지임을 두말할 나위도 없으며 그밖에 要求를 물이하면

① 大韓民國이 6.23 平和統一外交宣言을 취소하고

② 反共法과 國家保安法을 廢止하여 共產黨의 自由로운 行動을 保障하고

③ 또한 反共法 國家保安法에 위배되어 法の 判決에 依해 服役中인 間諜들을 석방하라는 要求와 다름이 없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大韓民國의 體制가 北韓의 共產主義體制 쪽으로 同質化되기 前에는 對話를 다시 않겠다는 그들의 底意를 스스로 露出한 것으로 評價될 수 있다.

이러한 北韓側의 一方的인 對話中斷 宣言에 對하여 李厚洛 서울側 共同委員長은 8月 29日 上午 10時 緊急記者會見을 갖고 北韓 當局者들에게 「다시 한번 理性으로 되돌아가 7.4 共北共同聲明의 基本精神을 난폭하게 유린한 8月 28日字 聲明을 即時 철회하라」고 強力히 促求했다.

李厚洛 共同委員長은 北韓側의 8.28 聲明이 7.4 南北共同聲明의 基本精神에 正面으로 배치되는 것임을 조목 조목 論하고 「平和를 갈망하고 統一을 念願하는 民族의 與望을 外面하고 그 어느 누구든지 7.4 共同聲明의 精神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民族叛逆行爲로써 歷史의 審判을 받게 될 것」이라고 警告했고 同時에 南北間에 進行되어 온 對話의 目的이 7.4 共同聲明의 精神에 立脚하여

① 韓半島에 恆久的인 平和를 定着시키고

② 南北關係를 改善 발전시키며

③ 分斷祖國의 自主的 平和第一을 이룩하여 南北의 5천만民族의 永遠한 福祉와 繁榮의 길을 開拓하려는 崇高한 것임을 想起시키면서 大韓民國은 「어떠한 難關이 있더라도 7.4 共同聲明의 精神에 立脚하여 誠實과

忍耐로 南北對話를 계속 이끌어 감으로써 저레의 期待에 부응하겠다는  
굳은 決意에 추호의 變함이 없다」고 다짐했다.

李厚洛 共同委員長은 北韓側의 8月28日 声明은 「端的으로 말하여  
朴大統領의 6.23 平和統一外交宣言이 國內外로 큰 支援을 받게 되고 다  
가오는 「유엔」總會에서도 그들의 立場이 劣勢로 물리게 됨을 自認하고  
當惑한 나머지 이를 謀免하려는 臨時變通」이라고 풀이하고 結局 「平和  
를 指向하는 對話의 進行을 忌避하겠다는 것으로 解釈될 수 밖에 없다」  
고 概嘆했다.

또한 李厚洛 共同委員長은

① 南北調節委員會와 幹事會議, 그리고 共同業務局의 運營 細則을 早速  
히 選拔하고 共同業務局을 早速히 發足시키며 共同業務局 建物을 板門店  
에 共同으로 건축하자는 大韓民國側의 거듭된 提議를 北韓側이 계속해서  
外面한 事實

② 7.4 共同声明의 中傷誹謗中止條件과 72年 11月11日에 이루어진  
相互 誹謗中止合意에도 不拘하고 北韓側에서 各種 對南誹謗放送을 계속  
激化시켜온 事實

③ 韓國側이 提議한 「南北韓 社會의 相互 完全開放」을 爲한 폭넓은  
交流와 協力方案을 具體적으로 提示했음에도 不拘하고 北韓側이 이를 拒  
否한 事實

④ 平壤側 共同委員長이 心병을 핑계로 한번도 會議場에 나타나지 않  
았다는 事實等を 열거하고 「과연 누가 7.4 共同声明의 精神을 위배했고  
과연 누가 南北間의 合意事項을 위배했으며 또 과연 누가 南北關係改善  
의 具體化를 가로 막았는가」고 반문했다.

李厚洛 共同委員長은 그가 작년 11月 平壤에서 金日成을 만났을때  
自由民主主義體制를 수호하는 우리로써 窮極的인 希望은 反共法과 國家  
保安法의 必要없는 社會를 건설하는 것이며 그러기 爲해서는 먼저 北韓

이 對南 폭력革命 지령을 그만 두어야 한다'고 못박아 말했음을 밝히면서 '만약 北韓이 共同革命의 정신을 充實히 지켜 間諜들을 남파시키지 않았던들 우리가 間諜를 잡을 理由가 없으며 또 北韓이 對南革命지령을 내보내지 않았던들 國家保安사범의 체포 또한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李厚洛 共同委員長은 北韓側 8.28 聲明을 철회할 것을 要求하는 8.29 聲明의 마지막 部分에서 南北對話는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7.4 南北共同聲明의 精神에 立脚하여 誠實과 忍耐로서 이끌어 가겠다고 決意를 다짐했다.

대국비고  
경상도 지방자치 회의

## 6. 南北對話 評價 및 展望

1972年 7月4日의 南北共同聲明은 南北관계의 轉機를 마련하였다. 즉 '雙方은 祖國統一의 原則으로서 自主的 解決, 平和的 方法, 思想과 理念, 制度의 差異를 초월하는 民族的 大團結을 다짐하고 상호간 緊張狀態를 완화하기 위하여 中傷, 誹謗과 武力挑發을 하지 않고 南北사이의 多方面의 諸般交流의 實施와 赤十字會談의 成事를 위하여 積極協助를 하는데 合意한 것이다.

南北共同聲明은 그간에 迂余曲折이 심했던 赤十字會談의 交涉에도 促進的 作用을 가하여 8月29日 平壤에서 南北赤十字會談의 개막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비록 赤十字 人道主義精神에서 열린 非政治的인 會談이긴 하였으나 南北統一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障礙要素가 南北韓의 極限的인 '不信과 敵對感'이며 不信과 敵對感을 緩和시키지 않고서는 平和統一을 이룩하기가 거의 不可能한 것이라는 見地에서 韓國으로서 赤十字會談의 歸趨에 대하여 至大한 기대를 걸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赤十字會談이 順調로이 進行되어 人道主義의 精神이 具現化되면 南北韓의 不信과 敵對感도 그만큼 완화되어 점차로 '信賴와 協調'의 霧圀氣가 助成될 것이며 그러한 상태가 極大化되면 그것이 곧 平和統一에의 길로 連結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赤十字會談에 임한 北韓측의 立場은 韓國측과는 달리 처음부터 政略的 色彩가 濃厚하였다.

그들의 主張을 要約하면 '南北統一을 가로 막는 최대의 障礙要因은 '美帝의 韓半島占領'이다. 美軍이 韓國에서 撤収하면 障礙要因도 없어질 것이므로 南北統一은 손쉽게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統一이 되면 구차스럽게 赤十字會談같은 것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말 것이

아니나 그러므로 南北間의 多邊協商과 相互對話로써 美軍을 한국에서 몰아내고 南北韓의 軍隊를 大幅줄이고 民族的 團結을 이룩하여 休戰線도 38線도 없애버리고 南北統一을 성취하는 方案부터 講究하자. 는 것이었다. 그것은 美軍의 韓半島駐屯이 불가피했던 根因 즉 6.25 南侵의 罪過를 전혀 意識하지 않는 本末顛倒의 주장이었다.

赤十字會談을 政略적으로 利用하고 會談의 過程을 한국에 對한 宣전과 煽動, 内部攪亂의 目的으로 活用하려고 한 北傀側의 底意에 對하여 한국의 輿論이 沸騰하자 저들은 제3차 會談에서 高踏的인 계의를 敢行함으로써 赤十字會談을 無限膠着 상태로 몰아 넣었다.

北赤代表 김태희는 10月24日의 會談에서 "이로부터 우리 代表團은 南北으로 홀어진 겨레들의 生死와 住所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해서 남조선 적십자측이 南北의 接觸과 來往을 阻害하는 모든 法律的 拘束을 除去하는데 義理와 힘을 합하여 適當한 努力을 기울일 것을 期待하는 바입니다.

法律上에서 뿐만 아니라 社会的 環境에서도 完전한 民主主義와 自由가 保障되어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조선에서는 反共政策과 反共團體들의 活動 反共教育, 反共宣傳등으로 하여 共產主義에 對한 그릇된 見解와 感情이 조장되고 있으며 民主主義와 自由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民族의 團結에 逆行하는 반공정책과 반공단체들의 活動이 중지되어야 하며 반공교육과 반공선전을 없애야 하며 공산주의에 對한 敵對的 感情을 조장하는 要因이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라고 난데없이 한국에 對한 內政干涉的인 계의를 감행하였다.

赤十字會談과 더불어 南北對話의 有力한 Channel 인 南北調節委員會는 72年 11月24日의 平壤會談에서 "南北調節委員會構成 및 運用에 關한 合意書"가 署名 交換됨으로서 상당한 進전을 이룩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이에 對한 雙方의 主張과 見解의 差異가 현격하여 모처럼 發

足한 機構가 實質的인 기능을 發揮하지 못한채 時間만 허송하다가 73年 6月の 제3차會談이래로 사실상 會談자체가 中斷상태에 있음은 주지된 바와 같다.

한국측은 南北調節委를 우선 經濟 및 社會, 文化의 2個分科委부터 구성, 발족케 하여 非政治的 分野에서부터 對話·交流, 協調의 幅을 넓혀 나아가면서 段階的으로 調節委의 機能을 擴大強化하자고 提議한 反面, 北傀側은 軍備縮少, 兵力削減, 軍事裝備의 導入中止, 外軍撤収, 平和條約의 締結, 南北韓의 民族會議 및 聯邦制問題등 高次元의 政治協商의 機構로써 조절위를 活用하려는 主張을 내내 굽히지 않았다.

赤十字會談과 調節委員會의 경우를 통털어서 한국측이 北傀와의 對話에 의한 段階的 관계 개선과 緊張緩和를 추구한데 반하여 북괴측은 政治協商에 의한 한국문제의 一挙妥結을 主張한 것이며 그러한 主張은 '先統一, 後緊張緩和'라는 逆의 論理에 立脚한 것이라 할 것이다.

南北韓關係의 냉랭한 現實을 그대로 두고 대뜸 外軍撤収다, 軍縮이다 한다는 것은 先後가 倒錯된 主張이 아닐 수 없으며 북괴측이 진정 平和統一을 원한다면 그러한 主張을 하기에 앞서서 南北韓의 不信과 敵對感이 多少라도 감소될 수 있는 方案을 講究하는데 應分の 誠意表示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북괴측이 그러한 主張으로 南北對話를 故意로 中斷시키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한국과의 實質的 關係개선이나 한반도의 緊張완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革命統一의 目的達成에만 血眼이 되고 있는 증거일 것이다.

그렇다면 북괴측은 어떠한 理由에서 한국과의 對話에 應하였을까? 그것은 추측컨대 金日成이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構造變化의 추세를 外面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간에 中·소紛爭의 激化 過程에서 露出된 蘇聯에 대한 中共의 戰略



的 脆弱性이 反射的으로 中共의 對美接近을 促進한 事實을 金日成인들  
모를 理가 없을 것이다. 그로 因하여 美·中共관계가 급진전되는 마당에  
저들만이 時勢에 逆行하다가는 자칫하면 국제적孤立을 모면하기가 곤란하  
리라고 判斷하였을 것이다.

하여간 金日成으로서는 南北對話에 憑藉하여 소련·中共과의 既存關係를  
維持 強化하면서 한국과의 對等관계 및 國際政治에서의 公認된 地位를  
追求하는 한편, 對話에 便乘하여 한국社会의 虛点과 脆弱部에 對한 宣傳  
과 煽動, 思想的侵透, 攪亂을 강화함으로써 저들의 '革命統一의 路線과  
符合되는 狀況'을 한국내에 造成하려는 意圖에서 對話에 應하였을 것  
이다.

제 2차 회담때 서울에 온 北赤代表團의 言動 및 活動狀況이 이를  
反証한다.

그러나 북괴측의 意圖는 對話의 初期段階에서부터 墜跌에 逢着하였다.

赤十字會談과 調節委의 代表團이 서울과 平壤을 來往하는 동안에 南北  
韓의 現實이 상당한 程度로 雙方에게 露出됨으로서 북괴측도 한국의 底  
力을 再評價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들이 豫期한 '宣傳과 煽動의 效果  
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共產主義에 對한 대중의 警覺  
心만을 높여준 結果가 되고 말았다.

그 뿐만 아니라 極限的 閉鎖상태에서 유지된 金日成의 獨裁體制를 위  
협하는 心理的 動向 즉 一種의 自由化的 氣運이 북한사회내에서  
싹틀지도 모르는 狀況에 直面하게 되어 저들은 唐慌하였을 것이다. 共  
産黨員의 思想과 紀綱의 解弛를 우려한 金一의 警告 (73년초참조) 結局  
북괴측으로서 '무엇을 위한 南北對話냐'의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을  
것이고 공산당내의 對南強硬派 武斷派의 批判과 反撥도 적지 않았을 것  
이다.

그 뿐만 아니라 북괴측이 触角을 곤두세웠던 美·中共관계의 變化도

初期의 劇的인 展開過程과는 달리 점차로 小康狀態로 접어들게 되었고 中共은 對外政策의 柔軟性과는 달리 國內적으로는 제 2의 文化革命, 批孔 批林運動등 毛沢東의 革命路線을 여전히 持續하고 있으며 크게 부각되었던 中共의 戰略的 脆弱性-특히 核武器分野의-도 과거 2~3年來에 급속히 減弱되고 있는 사실을 確認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북괴측은 南北對話의 底意와 效用을 근본적으로 再檢討하게 된 것 같고 급기야는 對話態勢의 再整備와 諸般의 準備作業을 위해서인지 金英柱의 8.28 聲明을 계기로 南北對話를 無期中斷 상태로 몰고 간 것이다.

이상에서 南北對話에 대한 북괴측의 底意와 欺瞞性을 요약하였다. 과연 북괴측은 장차 南北對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나아갈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북괴측이 이 문제를 두고 自己矛盾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가 있다. 具體적으로 이야기하면 1970年 11月の 제 5차 公산당 대회에서 從前의 戰時經濟體制로 부터 輕工業發展과 住宅建設, 大衆의 生活條件의 改善등을 指向하는 經濟體制로의 轉換을 다짐한 바 있으나 이때 金日成은 그의 연설에서 『修正主義는 마르크스·레닌主義의 革命的 進出을 阻害하려는 反革命的 社會主義의 思想潮流이다. 修正主義의 가장 큰 害毒性은 마르크스·레닌主義黨의 領導와 프로레타리아獨裁를 否認하고 階級鬭爭을 反對하며 敵我를 模糊하게 하며 美帝의 遠地恐喝政策에 겁을 집어먹고 그앞에 屈伏하여 帝國主義者들에게 추파를 던지며 帝國主義와의 戰爭을 포기하고 이와 妥協하며 戰爭에 대한 恐怖心과 부르조아平和主義思想, 帝國主義와 反動들에 대한 幻想을 퍼트리면서 人民을 思想的으로 武装解除시키며 被壓迫 人民들이 革命하는 것을 두려워 하고 妨害하는데 있다』고 경고하고

전쟁준비와 祖國統一의 革命的 大事業을 主動的으로 맞이할 수 있는 物質的 준비를 促求하면서 "南朝鮮에서 人民政權을 수립하는 것이 目的이라"고 던져놓고 그것을 위하여 "南朝鮮에서 學生, 青年의 政治鬭爭과 勞働者 農民의 鬭爭을 밀접히 連結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南朝鮮革命은 南朝鮮人民들 自身の 鬭爭이며 南朝鮮 人民自体가 主動이 되어 遂行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南朝鮮革命을 완수하기 위하여는 政治鬭爭과 經濟鬭爭, 合法鬭爭과 非合法鬭爭, 暴力鬭爭과 非暴力鬭爭 큰 規模의 鬭爭과 小規模의 鬭爭등 여러가지 形態와 方法을 時期와 与件에 따라서 選擇해야 한다"고 鬭爭方法까지 제시한 바 있다.

또한 南北對話의 直前인 72年 4월에 發表된 북괴공산당 정치위원 겸 대남전략담당의 비서인 金仲麟의 論文에서도 南朝鮮革命에 의한 赤化統一의 執念이 거듭 闡明된 것으로 보아 "體制와 路線"의 矛盾과 葛藤이 痼疾的임을 지적할 수가 있다.

북괴측은 국제적 緊張緩和와 平和共存의 大勢를 認定하면서도 스스로의 反修正主義 教条主義的 體質로 인하여 한국과의 "過渡的이고 漸次的인 平和共存"을 受諾할 수 없는 自己矛盾에 빠져있는 것이다.

더 말할 필요도 없이 南北對話는 南北間의 不信과 敵對感을 信賴와 協調의 方向으로 誘導하고 이 땅에서 戰爭과 同族相殘의 再發을 未然에 防止함으로서 平和統一에의 길을 開拓하려는 데에 참뜻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북괴측이 反修正主義, 反平和共存의 教条主義的 痼疾을 스스로 清算하지 못한다면 革命統一 以外에는 統一의 問題를 생각할 余地가 없을 것이고 따라서 南北對話는 "革命統一의 野慾을 隱蔽하기 위한 手段"에 不過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根本的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한 南北對話가 再開된다손 치더라도 實質的인 進展과 有益한 成果를 기대하기는 困難할 것이다.

北傀側은 南北對話가 斷絶되게 된 責任을 韓國의 10月維新 및 6.23 宣言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 그들의 主張에 의하면 10月維新은 "날로 高潮되고 있는 統一論議를 抑壓하기 위한 措置"이고 6.23 宣言은 南北韓의 "分斷狀態를 恆久化하기 위한 底意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北傀側은 南北對話의 再開를 促求하는 韓國政府의 提議를 外面하고 對話에 逆行하는 誹謗中傷과 挑撥 浸透를 再開함으로써 7.4 共同聲明에 違背하고 韓國政府와 國民의 사이를 離間시키려고 安간힘을 다하고 있다.

"南北對話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10月維新을 斷行하였는데 북괴측이 對話自体를 보이콧트하고 南北韓 UN 同時加入에 관한 韓國의 제의에 대하여는 南北韓聯邦制에 의한 單一加入을 주장하는등 한국정부를 窮地로 몰아붙이려는 속셈이 分明하게 들어나고 있다.

## 7. 北韓側 主張의 不當性

### 가. 了解 解說 要員 派遣案

南北 赤十字 會談은 72年 10月 평양에서 열린 第3次 本會談에서 최초로 具體的인 議題를 討議하기 始作하였다.

本會談 議題 第1項인 「南北에 흩어진 家族들과 친척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問題」의 實踐을 위한 方法과 절차에 관한 實質 問題 討議에 있어서 北赤側은 먼저 이를 實踐함에 있어서 障礙要素가 되는 韓國의 「社會的·法律的 條件 및 環境을 改善」할 것을 主張하여 韓赤側이 提案하였던 赤十字가 主管하여 國際赤十字의 관례에 따르는 同 事業의 實踐方案을 拒否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北韓側의 要求에 따라서 赤十字 會談의 進展이 困難하게 되었 으며 北赤側은 1973年 5月 9日 서울에서 열렸던 第6次 本會談에서 議 題 1項의 修正提案이라는 것을 내어 놓았으며 修正提案의 둘째 項目에서 「赤十字 了解 解說 要員의 相對地域 派遣」問題를 포함시키고 있는 바 그 內容은.

- ① 赤十字 了解 解說 人員은 各個 里(洞) 單位에 1名이 該當되도록 파 견하며 市郡을 單位로 活動한다.
- ② 赤十字 了解 解說 人員은 흩어진 家族, 친척들의 實態를 了解하며 誤解와 不信任을 除去하고 相互 信賴와 民族的 화목과 團結의 분 위기를 造成하며 흩어진 겨레들의 苦痛을 덜어주는 人道的 事業을 원만히 保障하는 解說事業을 하며 갈라진 겨레들의 苦痛을 덜어 주기 위한 效果的 方途를 강구한다.
- ③ 赤十字 了解 解說 人員들에게 言論, 出版, 集會, 通行등 모든 活動의 自由와 便宜를 保障하며 그들의 人身과 휴대품에 대한 不可侵權을 인정 한다 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에게 전혀 생소하게 들리는 「了解解説 要員」이라는 人員을 「南北에 흩어진 家族들과 친척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問題」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相對方 地域에 파견하여야 한다는 主張의 底意와 不当性은 이와 同時에 北韓側이 主張하였던 「法律的·社会的 条件和 環境改善」案과 類似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反共法이나 國家保安法을 철폐할 것을 主張함으로써 韓國內에서의 共產活動을 금지하는 장애를 제거하고 反共政策의 포기를 主張함으로써 韓國의 反共体制을 약화시킨 後 대규모의 政治宣傳要員을 全國 방방곡곡에 파견함으로써 韓國의 全域을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政治宣傳場化하려는 意圖로서 「了解解説要員의 相對方 地域 파견」主張이 나온 것이며 이에 따라서 韓國國民을 선동 현혹함으로써 革命氣運을 造成하며 韓半島를 赤化統一하겠다는 構想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그들의 底意는 우선 北赤側이 國際赤十字의 慣例에 따른 우리側의 提案에는 아랑곳없이 여러가지 面에서 不當한 그들의 主張을 고집함으로써 分斷된 家族 및 친척의 再結合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것을 明白히 하고 있음에 비추어 짐작되는 일이다.

특히 그들이 主張한대로 各個 里(洞)單位당 1名씩의 了解解説要員을 파견한다면 韓國에는 現在 35,997個에 달하는 里(洞)이 存在하므로 결국 3만 6,000명의 방대한 人員을 파견하겠다는 저의이며 이러한 방대한 수자의 人員이 도대체 分斷된 家族과 친척의 再結合 事業을 해결하기 위해서 先決條件으로 合意되어야 한다는 主張은 가소로운 일이다.

특히 이와같이 수많은 了解解説要員에게 언론·出版·集會 등의 政治的自由를 보장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는 점은 그들의 主된 目的을 政治宣傳活動에 두고 있음을 明白하게 엿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北韓이 「法律的·社会的 事件 및 環境改善案과 함께 「了解解説要員의 파견」을 主張하고 있으며, 「法律的·社会的 条件 및 環境改善案이 매우

不當하여 受諾할 수 없을 뿐더러 「了解解說要員의 相對地域 파견」提案  
만에 대해서라 하더라도 이를 拒否해야 할 것이다.

그 理由는 첫째 어떠한 모임이라도 郡衆의 이목이 集中되는 곳에서는  
때와 場所를 가리지 않고 金日成 唯一思想, 主体思想, 社會主義制度의  
월성등을 한결같이 뇌까리는 政治宣傳을 强하게 나열하는 상투적인 그  
들의 手法에 비추어 보건대 3만 6,000명에 가까운 了解解說要員이 파견  
될 경우, 특히 그들에게 政治的 自由가 保障되어야 한다면 그들은 韓國  
의 社會不安을 造成하기 위하여 교묘한 宣傳을 일삼을 것이며, 이에 따  
라서 韓國의 法秩序는 公共然히 교란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了解解說要員이 파견됨으로써 家族과 친척의 再結合 事業이 順  
調롭게 進行된다기 보다는 了解解說要員의 人身과 휴대품에 대한 不可侵  
權이 侵害되었다는 그들의 트집에 따라서 오히려 南北間 紛爭만 크게  
야기될 것이 分明할 것이다.

두번째 理由로는 現行法 秩序上 國家를 수호하고 社會秩序 維持를 위  
해서 必要한 最少限의 범위 내에서 國民의 自由는 불가피하게 制限당해야  
하는 바, 그들의 主된 目的이 韓國의 社會不安 造成에 있는 了解解說要  
員에게 無制限의 自由를 許容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일 것이다.

세번째로는 그들은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기 위한 方式으로서 當事者가  
제멋대로 相對方 地域을 돌아 다니면서 스스로 알아내도록 하고 이  
도움기 위해서 了解解說委員이 必要한 것으로 主張하나 이는 南北間 分  
斷 家族 및 친척의 再結合등 分斷된 民族의 고통을 완화한다는 人道主  
義的 事業을 行함에 있어서의 赤十字社의 主管을 스스로 否定하고 了解  
解說要員이 이를 主管하여 南北 赤十字會談 그 自体를 否定하는 것과  
同一한 意味를 가진다는 점에서 受諾되기가 困難한 것이다.

## 나. 法律的, 社会的 環境 改善案

南北赤十字 第3次 本會議에서 우리側은 本會談 議題 第1項인 「南北에 흩어진 離散家族들과 친척들의 生死와 住所를 알아내고 알려주는 問題」를 討議함에 있어서 이를 實踐할 具體的 方案으로서 赤十字社가 事業을 主管해서, 흩어진 家族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相對方 赤十字社를 通해 알아내는 것으로 하고 그를 爲해 淸문점에 共同事業所를 設置하자고 提議하였다.

우리側이 提示하였던 이와같이 妥當性있는 實踐力案에 대하여 北韓側은 너무나 엉뚱한 主張으로 맞섰던 것이다.

그들의 엉뚱한 主張 中에는 「南北의 現情況下에서는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친척들의 노출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친척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韓國側에서 모든 法律的 障礙를 除去하며 當事者들과 協調者들이 民主主義的으로 自由롭게 意思를 表示하고 活動할 수 있는 條件과 環境을 造成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主張하여 이른바 「法律的, 社会的 條件 및 環境 改善」이라는 主張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北赤側은 「法律的, 社会的 條件 및 環境 改善」이란 ① 反共法, 國家保安法等 反國家活動 團束法들을 폐기할 것과 ② 反共團體를 해산할 것과 ③ 共產主義를 反對하는 政策들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여서 說明하였다.

韓赤側은 國際赤十字의 基本原則과 人道主義精神을 강조하면서 北赤側이 不當한 主張을 철회하고 조속히 本會談 議題 第1項이 合意를 이룩하게 되기를 거듭 促求하였으나 北赤側은 「法律的, 社会的 條件과 環境改善」이 議題第1項 討議의 先決條件으로 못박고 實質的 討議의 進전을 거부



하였던 것이다.

계속된 北赤側의 不當한 要求로 南北赤十字 會談은 空轉만 되풀이 하였고 第6次 本會談에서 北赤側은 議題 第1項에 대한 修正提案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法律的, 社会的 条件과 環境改善」에 관한 部分을 살펴 본다면,

- ① 反共法과 國家保安法등을 철폐하라
- ② 戰爭과 공포분위기를 造成하고 民族的 對立과 反目を 고취하는 모든 活動을 禁止하며 그러한 團體들을 없애고 韓國에서 긴장狀態를 완화하라
- ③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親戚들을 찾기 위하여 南北을 내왕하는 當事者들과 겨레들의 고통을 풀기 위한 事業에 나선 協助者들 및 關係者들에게 言論, 出版, 集會, 通行등 모든 活動의 自由와 便宜를 保障하며 그들의 人身과 휴대품들에 대한 不可侵權을 認定하라
- ④ 政黨, 社會團體, 公共機關 및 個人들이 南北으로 흩어진 겨레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事業을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모든 條件을 保障하라는 등으로 종전의 主張보다 한층 엄중한 것이었다.

이러한 主張은 그 以後에도 계속되었으며 南北對話 中斷이후 우리側의 南北對話 再開를 위한 努力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들은 「法律的, 社会的 与件과 環境 改善을 집요하게 主張하여 南北對話再開를 위한 우리側의 努力이 아무런 結實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당초 赤十字會談에서 北赤側이 主張했던 「法律的, 社会的 条件, 環境改善案」은 南北調節委에서도 그와 類似한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主張을 찾아 볼 수 있다.

1972年 11月 초의 南北調節委 共同委員長 第2次會議에서 北韓側은 다른 主張 속에 「共產主義者를 포함한 모든 政治犯 석방」과 「반공 정책의 포기」를 主張한 바가 있다.

北韓이 「法律的, 社会的 条件과 環境改善」을 主張하는 底意는 韓國의 反共体制를 弱화시키고 韓國內에서 不法으로 禁止되고 있는 共產活動을 合法化 함으로써 韓國의 社会的 不安과 民衆봉기를 선동함으로써 韓半島의 赤化統一을 달성하겠다는 北韓側의 對南戰略 目標를 追求하기 위한 것이다.

北韓 勞動黨 規約 前文에 明示되어 그들의 確固不動한 對南戰略 目標인 對南赤化統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障礙要素가 되고 있는 韓國의 反共体制를 弱화시키지 않고는 이를 달성할 수 없음을 쉽게 간파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南北對話가 開始되자 韓國의 反共教育은 一時 方向감각이 상실되었고 이를 포착한 北韓은 反共政策의 포기를 들고 나와서 國民의 反共意識을 흐리게 되기를 기도한 것이다.

또한 反共法과 國家保安法을 철폐함으로써 共產黨이 合法的 活動을 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고 나아가서는 議題 第1項 事業에 대한 協助者 및 關係者에게 모든 自由와 便宜를 보장하고 人身에 대한 不可侵權을 인정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적극적으로 共產黨이 政治宣傳을 벌여 民衆을 선동·자극함으로써 革命기운을 조성할 것을 획책하였던 것이다.

우리側이 北韓이 主張한 社会的 法律的條件, 環境改善案을 수락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가지로 說明할 수 있다.

첫째로는 그들이 이를 主張하는 속셈이 人道主義的 觀点에서의 赤十字 事業을 遂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韓國內의 폭력革命 基반을 造成하려는데 있기 때문이다.

특히 反共法이나 國家保安法은 北韓 共產主義者들이 韓國을 共產化하려는 策動으로부터 韓國을 방어하려는 目的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것이 制定된 이후, 본래의 目的을 充實히 달성하여 國家를 수호하는 機能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側은 反共法과 國家保安法을 폐기시킬 것을 主張하기 이전에 먼저 韓國을 赤化統一하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들이 韓國을 共產化하려고 날뛰면서 이에 대한 방어手段을 포기하려고 主張하는 것은 한낱 난센스에 불과할 것이다.

두번째 이유로는 그들이 내세우는 主張이 事實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즉 그들도 韓國內의 社会的 与件이 赤十字 活動에 장애要素가 되는 것으로 主張하고 있으나 南北 赤十字會談이나 調節委員會의 双方代表가 아무런 障礙도 없이 自由로이 南北을 往來함으로써 우리의 反共法이나 社会体制가 離散家族의 再結合을 위한 事業에 아무런 장애도 될 수 없다는 것을 立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째로는 「法律的, 社会的 与件 및 環境改善」要求는 우리의 法秩序에 대한 明白한 內政干涉이며 이는 7.4 共同聲明에서 合意한 「思想과 理念, 制度의 差異를 초월하여 民族的 大團結을 圖謀한다」는 規定에 正面으로 위배된다는 점이다.

分斷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굳어진 南北間의 制度上的 差異에 대해서 따지고 든다면 南北對話의 進展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네째로는 北赤側의 主張도 政治的 性格을 띤 것으로써 政治的 中立性을 표방하는 國際赤十字의 精神에 위배되며 人導主義的 性格의 事業을 討議하는 赤十字事業에 있어서 本來의 事業目的인 人導主義정신과는 無關한 主張이라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 다. 5個 分科委 同時設置案

1973年 3月 14日에 열렸던 南北調節委員會 第2次 會議에서 우리 側은 南北關係의 改善을 段階的으로 이룩한다는 基本方針에 따라서 優先 争点이 적은 經濟및 社會文化 分野의 交流를 實施함으로써 南北韓 間에 점차로 相互信賴의 발판을 넓혀 나가는 것이 統一의 침경임을 밝히고 이를 實踐하기 爲하여 南北調節委員會 內에 經濟分科委員會와 社會文化分科委員會를 設置하자고 提議하였다.

이에 대하여 北韓側은 소위 軍事問題 5個項 (① 武力增強과 軍備競爭 中止, ② 10萬以下로 減軍및 軍備의 大幅 縮小, ③ 一切의 軍裝備 및 軍需物資 搬入 中止, ④ 美軍을 비롯한 一切의 外國軍 撤反, ⑤ 以上 問題를 解決하고 相互 武力 不行使를 保障한 平和協定 締結)을 優先的으로 解決해야 한다는 基本方針을 設定하여 이를 論議하기 위하여 政治, 軍事, 外交, 經濟, 文化分科委員會등 5個 分科 委員會가 同時에 發足되어야 한다는 主張을 내세웠다.

뿐만아니라 北韓側은 그들이 主張하는 「軍事問題 5個項」과 5個分科委員會 同時設置」主張이 관철되지 않는 限, 南北調節委員會 事業을 더이상 進전시킬 수 없다고 완강히 버텨므로써 南北對話가 아무런 成果를 가져오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그들의 主張은 南北調節委員會 第2次會議 이후도 北韓이 가장 強調하여 主張한 事項이다.

앞에서 상세히 說明한 바와 같이 南北對話에 임하는 韓國側과 北韓側은 그 基本立場이 매우 對照的으로 相反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韓國側은 南北間 異質性이 深化되었으며, 그동안에 날카로운 南北 對立이 계속되고 있었고, 더구나 北韓側의 무모한 도발行爲와 타협할 줄 모르는 強硬路線이라든지, 세계에서 類例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好

戰性 등에 비추어 相互間 體制維持에 危險부담이 비교적 ~~적은~~ 經濟 및 社會文化 分野의 交流를 實施함으로써 南北間에 信賴를 회복하고, 그 信賴를 바탕으로 政治 軍事的 問題를 해결한다는 점진적 接近方式을 採 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北韓側은 그들의 戰略目標인 한반도 赤化統一을 위해서는 體制維持와 直結되는 軍事的 問題를 時急히 處理하여야 할 立場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5個分科委員會 同時設置」를 主張하는 北韓의 底意는 南北調節 委員會에 軍事, 政治委員會를 포함하는 5個分科委員會의 同時設置를 主張함으로써 그들이 南北對話 進展에 있어서 先決問題로서 固執하는 軍事問題라든지 南北 政治協商問題를 處理하려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그들이 南北 對話 進展에 있어서 先決問題로서 主張하는 軍事問題의 해결이나 南北間 政治協商 개최 主張은 韓國의 軍事力 弱화와 政治協商을 통한 南北韓 同等地位의 획득 및 韓國의 國論分裂을 助張함으로써 韓半島의 赤化革命 기반을 造成하겠다는 底意에서 나왔으므로 結局 「5個分科委員會 同時設置」主張은 이러한 그들의 對南戰略 目標를 遂行하기 위한 것이라는 主要한意義를 가진다.

따라서 北韓側이 南北對話를 결렬시키면서 「5個分科委員會 同時設置」를 고집하는 理由는 그것이 韓半島를 赤化統一하려는 最終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 必須的이라는 點으로 說明이 可能할 것이다.

우리側이 提案한 經濟와 社會文化 分科委員의 2個分科委員會를 먼저 構成하여야 한다는 主張을 철회하고 北韓이 主張한 5個分科委員會 同時設置主張을 拒否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가지의 理由가 있다.

우선 첫째의 理由로는 南北對話의 順調로운 進展을 위해서는 南北相互間의 體制維持를 위협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點이나, 實現容易한 分野부터 점차적으로 접촉을 擴大할 必要性이 있다는 點에서 우리側의,

점진적 接近方案이 妥當하고, 이를 점차로 實踐하기 위해서는 우선 經濟와 社會文化 分科委員會가 設置됨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赤化統一이라는 北韓의 對南目標과 軍事問題 우선해결 및 南北 政治協商이 南北對話 進展의 先決條件이라는 그들의 고집에 비추어 보건대, 그들의 속셈은 5個分科委員會가 同時 設置될 경우 經濟와 社會文化 分野의 交流는 完全히 外面하고 軍事的 問題나 政治的 問題의 토의만을 主張하고 나올 것이다.

北韓이 公然히 戰爭準備가 完備되었다고 호언하면서 戰爭準備에 광분하고 있는 처지에 南北間 軍事問題를 合意한다고 해서 北韓이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 같지는 않다.

또한 5個分科委員會가 동시에 設置되어 政治 軍事的인 여러가지의 어려운 問題를 남북대화의 초점으로 할 경우 南北間 紛爭만 크게 될뿐 아무런 對話의 進展이 不可能할 것이 明確하다.

따라서 우리가 실사 北韓의 主張을 受諾한다고 해서 아무런 南北對話의 進展은 기대하기가 곤란하므로, 우리의 南北間 점진적 接近方案을 계속 固守함으로써 北韓이 그들의 不當한 고집에 우리측이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도록 합과 동시에 對南적화統一 目標을 수정해야 할 必要性을 느끼도록 하는 것을 促求하는 단호한 立場을 계속 維持하는 것이 長期的 안목에서 볼 때 南北對話의 成功을 保障하는 길이 될 것이다.

우리가 北韓의 主張을 拒否하는 두번째 理由는 5個分科委員會의 同時設置는 1972年 11月 2日부터 4日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南北調節委 共同委員長 第2次會議에서 合意한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한 합의서」의 ③항 “다”에 規定된 「南北調節委 各 分科委員會는 南北調節委員會事業이 진척되는에 따라서 設置한다」는 조항에 위배되므로 不當하다는 點이다.

위의 條項은 調節委 事業을 順次的으로 發展시키나함과 同時に 그 事業에 맞추어서 各 分科委員會를 發展시키나갈것을 合意한 規定이던, 北韓이 5個의 分科委員會를 一時에 設置하자는 主張은 이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종래에 南北間에 合意를 본 事項이 지켜지지 않고, 北韓이 이를 위배하려고 할때 우리側이 이를 拒否하지 않음으로써 正當한 것으로 是認될 경우 南北間의 合意는 아무런 拘束力을 가질 수가 없고 또한 앞으로의 合意가 지켜진다는 保障이 없어질 것이다.

## 라. 大民族會議 開催案

1973年 6월 23日 朴大統領이 서울에서 「平和統一外交政策」을 宣言하고 10時間 뒤, 北韓 金日成은 평양에서 열렸던 「후사크」, 「체코슬로바키아」 共産黨書記長 일행 환영 軍중대회석상에서 소위 祖國統一에 관한 「5大綱領」을 내어 놓았고, 5大綱領 中에는 大民族會議 소집 主張이 포함되어있다.

여기에서 金日成이가 내세운 大民族會議 主張은 40年代 후반 부터 기획있을때마다 北韓이 統一問題해결을 위해서 이른바 「南北政黨·社會團體 代表者 連席會議」를 개최할 것을 主張한 것과 同一한 것으로 생각된다.

北韓은 일찍이 1948年 3月 25日 소위 「北朝鮮 民主主義 民族統一戰線」이라는 이름으로 「유엔」의 南北韓 總選舉決議를 反對하면서 同年 4月 14日에 평양에서 「全朝鮮 政黨·社會團體代表者 會議」를 開催할 것을 최초로 主張하였던 것이다.

그 이후 북한은 1950年 6월 6일 「平和統一의 모든 必要한 條件과 수속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南北朝鮮 全政黨 社會團體 代表者 連席會議」를 38度線 沿線의 海州나 開城 두 都市 中 한 군데서 6월 15일부터 17일까지·사흘 동안에 걸쳐 개최하자」고 주장하고는 불과 3주일 후인 6월 25일 全面的인 南侵을 개시함으로써 前記 提案이 얼마나 악랄한 속임수인가를 스스로 證明하였던 것이다.

1953年の 休戰이후에도 北韓은 기획있을 때마다 문제의 連席會議 主張을 되풀이 하였다.

다만 北韓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政黨·社會團體 代表者 連席會議」 主張을 「政治協商」을 개최하자는 것으로 代替시켰으며 이를 다시 「5



대강령」에서는 「大民族會議」라는 이름으로 改稱하여 제안하였다.

南北調節委員會 第2次 회담에 있어서도 北韓側은 역시 南北 政党·社會 團體連席會議 開催를 주장했으며 아울러 평화 協定등의 不當한 제안으로調節委員會談이 아무런 成果도 거둘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1973년 4월 16일 金日成은 평양을 訪問한 「시아누크」를 환영하는 軍중대회에서 「南北 調節委員會에 各 政党, 社會團體 代表및 各界 各層 人士들을 參加시켜 그 幅을 넓히든지, 아니면 現 調節委員會 事業은 그대로 進行시키고 各界各層 人士와 政党代會團體代表가 參加하는 政治協商會議를 소집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主張은 南北調節委員會 第3次 會議에서도 계속되었으며, 8.28 金英柱의 對話 中斷 선언이후 우리側의 南北對話 再開 요구에 대해서도 同一한 主張을 계속하여 오고 있다.

이와같이 北韓이 韓國에 대하여 始終一貫하여 大民族會議를 主張하는 底意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北韓이 大民族會議를 통하여 그들의 統一革命戰略을 具體化하고 나아가서는 한국의 赤化統一을 하루빨리 달성시키겠다는 意圖로서 파악 될 수 있을 것이다.

北韓은 종래 政治協商 會議의 참석자 들을 政党·社會團體代表者및 各界 各層人民의 代表者라고 막연히 밝히고 있었으나, 이를 大民族會議로 改稱하면서 大民族會議의 참석자를 “北半部の 勞動者·農民·근로농민, 근로인테리, 청년학생, 병사와 南朝鮮의 노동자·농민·청년학생·지식인·군인·民族자본가~小資產階級등 南北의 各界 各層 人民들과 各政党·社會團體”라고 나열함으로써 그들의 大民族會議 主張이 統一戰線戰略의 일환임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다.

그들이 提示한 部類中 政党·社會團體를 除外한 大民族會議 참석階層은, 革命赤化戰略을 위한 理論으로서의 이른바 人民革命理論에 있어서 소위「革

命의 核心的 主体」로 지적하는 階層을 망라한것에 불과하다.

共產國家에 있어서 統一戰線이란 그들의 当面 혁명투쟁 過程에 대하여 政治的 利害關係를 같이하는 政黨, 社會團體 및 各계各층의 人士를 단결 시킴으로써 敵을 고립시키고 혁명과업을 달성하려는 戰略을 의미한다.

1966年 10月 金 日成은 소위 「勞動黨 代表者 會議」에서 「남조선 혁명의 統一戰線은 反美救國統一戰線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美帝國主義 植民地 統治下에서 노동자, 농민, 청년學生, 知識人 도시 소자산계급과 民族자본가계급등 남조선의 광범한 계층이 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지적 하였다.

또한 이러한 實情은 美帝國과 그와 結託하고 있는 反動관료, 地主, 매관자본가들을 반대하는 各界各層의 人民들에 의하여 反美救國統一戰線은 形成할 수 있는 客觀的 條件을 보장해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說明하였던 것이다.

김일성은 韓國의 赤化혁명 과업을 달성함에 있어서 장애가 될 소위 반동관료 및 지주 매관자본가를 敵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을 받고 있는 광범한 階層은 大民族會議라는 이름을 통하여 團結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선동 포섭하여 北韓에 대한 동조세력으로 만듦으로써 궁극적으로 韓半島를 적화통일하겠다는 망상을 지워버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北韓은 연방제 제안에 있어서 「最高民族會議」의 구성을 主張함과 동시에 南北 調節委員會에 政黨·社會團體代表 및 各界各層 人士를 포함시킴으로써 「上層 統一戰線」 形成을 획책하고 있음과 同時에 大民族會議를 主張하여 「下層 統一戰線」 形成을 집요하게 기도하고 있다.

우리側이 北韓이 主張하는 大民族會議를 受諾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自明하다.

우선 그들이 大民族會議를 主張하는 底意가 南北關係를 改善시키는 協議機構로서가 아니라, 統一戰線을 形成함으로써 韓國을 赤化統一 하겠다는

점에 있음이 너무나 明白하기 때문이다.

韓國의 安保태세가 정비되어 있고 國民의 反共思想이 투철하며 우리側이 大民族會議를 受諾한다고 해서 그들의 意圖대로 赤化統一은 달성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굳이 이를 反對할 必要는 없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굳이 反對해야 하는 理由는 北韓의 의도가 한국의 赤化에 있음을 우리側이 간파하고 있으며, 이를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北韓이 하루 빨리 赤化統一이 헛된 꿈에 불과함을 인식하도록 하여 南北對話에 성의있게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說明된다.

두번째 이유로는 大民族會議를 受諾한다고 하여 韓國의 赤化는 不可能하다고 하더라도 最少限 國論이 분열될 可能性은 다소간 있을 것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北韓은 各政黨·社會團體의 참석을 主張하고 있으나, 北韓治下에서는 共産黨이외에 어떠한 다른 政黨·社會團體가 存在하지 않음은 주지의 事實이다.

그러나 우리 韓國의 경우에는 서로 利害關係가 相反되는 政黨·社會團體가 存在하며, 이들의 意思를 政府의 것과 完全히 一致시킬 수가 없다 따라서 國論이 분열될 可能性이 생기게 될 것이다.

특히 北韓의 對南赤化를 위한 전략·전술에 어두운 非專門家들로 하여금 南北關係를 토의하고 決定하도록 할 때 北韓의 속임수에 넘어갈 우려가 없는 것이 아니며, 이는 바로 北韓이 노리는 바가 될 것이다.

세째의 이유로는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성취하기 위하여 7.4 南北共同聲明에 合意하고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한지 불과 半年이 못되어 조절위와는 別個의 또다른 協議體를 만들자는 것은 7.4 共同聲明의 정신에 위배되는 人事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30년에 가까운 斷切한 時代를 거쳐서 남북한이 最初로 合意한 南北共同聲明은 平和統一을 위해서 필요불가피한 南北間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 어

하한 경우라도 얻어내야 할 것이다.

네째로 들 수 있는 이유는 南北調節委員會가 北韓의 不誠實한 태도로 아무런 問題도 해결해 내지 못하고 있는 段階에서 南北의 政黨·社會團體 및 個別人士가 協議를 한다고 해서 별다른 對話의 進展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大民族會議가 소집될 경우의 혼란과 異見의 對立을 상상해 볼 경우 그것이 南北對話를 成功을 저해할 可能性이 더욱 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생각이 아닐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北韓의 大民族會議 主張을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北韓 스스로가 올바른 판단에 따라서 건설적 方向으로 의견제시의 태도를 修正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 第七部 北韓社会実相과 變質展望

1. 北韓社会의 變遷過程
2. 北韓社会의 異質相
3. 東欧圈 「自由化」의 根本動因
4. 共產圈의 社会變動事例 比較
5. 北韓社会 變質展望

## 1 . 北韓 社会의 變遷 過程

” 8.15 當時의 北韓 땅에는 範圍面에서나 規模面에서나 극히 제한된 水準의 共產主義 運動이 있었을 뿐 共產主義 思想은 거의 普及되지 않은 狀態에서 8.15를 맞았습니다.

또한 北韓 住民들은 日帝의 植民地 教育의 影響을 받기는 하였으나 傳統的인 思考方式을 가지고 있었다.

그밖에 平壤을 中心으로한 西北地方에서는 基督教 思想이 바탕이된 西洋文化도 일찌기 흘러 드리웠다.

그렇기 때문에 解放 直後에도 조만식 先生을 中心으로한 民族主義 勢力과 宗教 勢力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 北韓의 共產化 소지는 희박하였다.

그러나 第2次大戦直後 蘇聯의 對 極東政策에 따른 남진 기지의 獲得과 또한 太平洋 進出의 野心으로 北韓에 진주한 蘇聯軍은 38道線 以北은 永久히 蘇聯 支配下에 놓고 가급적이면 그 占領地域을 38道線 以南의 韓半島 까지 병합하려는 領土的 膨脹政策의 착실한 實踐者로서 金日成이를 登場시키어 中, 蘇와의 地理的 隣接, 日帝 植民 통치의 유산 이라고 하는 共產化 요인의 利点を 最大한 利用하여, 蘇聯軍의 사전 計劃에 의한 強制的 共產化가 進行되었다.

이러한 北韓 社会体制의 共產化 변조 過程을 먼저 政治面에서보면 第1段階 措置로서 金日成은 民族主義 勢力을 제거하였다.

다시 말하면 1945年 8月 8日 北韓에 진주한 蘇聯 第25軍 「치스차코프」 司令官 보다 約 2週後에 「로마넝코」 民政司令官과 함께 동만주에서 「빨치산」 活動을 하던 部下를 데리고 진주한 金日成이는 소군비호하에

1945.8.26 民族진영이 절대 우세하였던 平南建國 準備委員會를 解体하고 人民委員會를 서둘러 構成하였고 곧 이어 國內 共產 勢力人 현준혁이를 제거하여 드디어 『 共產黨 北朝鮮分國 』을 1945年 10월 13일 設立하였다.

뿐만 아니라 10月 28日에는 北朝鮮 5道行政國을 正式으로 組織 發足 시키어 共產黨 위주의 勢力을 부식시켰었다.

뒤이어 그해 12月에는 共產黨 北朝鮮分國을 『 北朝鮮 共產黨 』으로 改稱하여 黨首가된 金日成이는 조만식 先生등의 民族主義 勢力을 제거한 다음 1946年 2月 8日 『 北朝鮮 臨時 人民委員會 』를 樹立하여 行政權을 掌握하였다.

그리고 김주봉등 中共 勢力으로 構成된 식민당을 吸收하여 1946年 8月 28日 北勞黨으로 改稱하고 49年 6月 30日에는 南勞黨을 合黨한뒤 『 朝線 勞動黨 』을 設立하여 일단 權力을 確保하였다.

이렇게 國內 共產勢力과 民族主義 勢力 제거에 成功한 金日成은 第2段階 措置로서 피(血)의 肅清을 통한 金日成 1人支配體制를 確立하기에 이르렀다. 즉, 1950年 6月 25日 韓國動亂을 金日成 1人支配體制 確立에 轉換點이 되었다.

休戰直後로 부터 金日成은 自體內的 紛派 肅清을 斷行하여 왔는 바 즉 1953年 8月에 金日成 一派가 中共 및 蘇聯派와 合勢하여 敗戰의 責任을 물어 南勞黨係인 이승한 이견국 임화 등을 肅清하였고 2年後에는 박헌영 마저 死刑에 処하여 南勞黨 勢力을 제거한 다음 1956年 8月 3次 黨大會 後에는 金日成 一派가 閻山派와 合勢하여 中共派와 蘇聯派인 최창익, 박창욱, 김주봉, 허가이 등을 反金日成 運動 罪목으로 차례로 肅清하였으며, 간신히 명맥을 維持한 閻山派인 이호순, 박금철과 軍部인 허봉학, 김창태, 최광 마저도 1967年과 68年 2次에 걸쳐 肅清함으로써 70年の 5次

党大會를 기하여 金日成과 그의 친동생인 김영주 中心의 權力體制를 形成하였으나 最近에는 아들 김정일 中心의 權力體制로 世代交叉를 斷行하므로서 金日成 1人獨裁體制를 完全히 구축하였다.

이렇게 피의 肅清을 通하여 金日成에게 忠誠하는 者만을 權力의 要職에 앉혀놓은 金日成은 그래도 불안하여 第3段階措置로서 族閥政治를 強化하고 있다.

즉 아들 김정일을 党政治委員兼 煽動宣傳部長에 외 4寸인 강현수를 勞動黨 平壤市 党責任者로, 처질인 양형섭을 思想担当秘書에, 외조부인 강량욱을 副主席에 실제인 김영주를 副總理에 4寸 매부인 허담을 副總理兼 外交部長에, 社会团体組織에서는 자기의 처 김성애를 女盟委員長에, 4寸누이인 김정숙을 社勞庁副委員長에 앉혀 놓으므로서 族閥政治를 強化하고 있다.

上記한 바와 같이 蘇聯軍 비호아래 民族勢力을 제거하고 肅清을 通하여 內政 失敗를 隱蔽하여 1人獨裁體制를 구축한 다음 族閥政治로서 權力을 安定시킨 金日成은 第4段階 措置로서 金日成 偶像化 作業을 심화시키고 있다. 즉, 1956年 「스타린」 격하운동이 金日成 낙후 운동으로 파급되는 것을 防止하고 中, 蘇 紛爭에 対処하며, 金日成 支配體制의 정통성을 造作하기 爲해 提起한 “소위 ‘主体思想’을 74年 4月 在日青年 國盟呼訴文에서 보는 바와 같이 ‘金日成主義’로 表現하고, 바로 이 金日成主義가 時代에 알맞은 「맑스·레닌」主義라고 하였다.

또한 最近에는 金日成에 대한 방어적 表現이 절대성, 무조건 성의 原則으로 일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金日成의 ‘語錄’을 聖書化 하고 있고 또한 金日成의 呼稱을 “愛國者이시며, 民族的 英雄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國際共產主義의 卓越한 領導者이시며……」라는 177 자에 달하는 유례없는 긴 경칭을 使用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金日成 出生地인 만경대를 聖域으로 造作함으로써 金日成을 神格化 시키고 있다.

또한 3.1 運動은 「러시아」 影響下에 봉기되어, 자기 아버지인 김형직이 선도하였으며, 8.15 解放은 김일성 「빨치산」 部隊가 主動하였고, 6.25 動亂은 南으로 부터 北侵이며, 本人 김성주는 진짜 金日成으로 行세하는 등 歷史를 날조하여 金日成 偶像化 作業에 血眼이 되고 있다.

다음은 經濟面에서 變조 過程을 살펴 보겠다. 1946年 2月 8日 조만식 先生이 수반이었던 「北朝鮮 5道 行政國」을 廢止하고 「北朝鮮 臨時 人民 委員會」를 樹立하여 委員長이 된 金日成은 먼저 共產化 組織에 압이되는 地主와 資本家를 제거하고 勞動者 農民의 환심을 얻기 위해, 46年 3月 5日 제일 먼저 土地 改革을 착수하여 日本人, 親日派, 地主, 부채자의 土地 96 만정보, 家屋 14,500 등, 농우 4,700 두를 무상 沒收하여, 72만 5천호의 農民에게 무상 分配하였지만 秋收期에 農作時와 같은 比率로 適用 決局 農作物의 50%를 現物稅로 수탈하였다. 그리고 57년부터는 土地를 農業協同組合 所有로 만들고, 68년부터는 愛國米, 統一貯蓄米라는 名目으로 農作物을 完全히 沒收하여 農民들은 「품팔이 勞動者」로 전락되었다. 그리고 産業, 交通, 運輸, 通信, 銀行등 重要産業을 1946年 8月 10日에 國公有化를 段階的으로 實施하여 49年 現在 國公有化 比率이 工業에서는 90.7% 商業에서는 50%, 農業에서는 3.2%가 達成되었다.

또한 47年 12月 1日에는 貨幣改革을 斷行, 住民들로부터 貨幣를 強制수탈하여 1人당 700원만을 交換해 주고 回收 殘余分을 南勞黨 土作資金으로 使用하였다.

이렇게 土地改革, 重要産業 國公有化, 貨幣改革등을 通하여 地主와 資本家

를 제거 하는 데는 成功하였지만 앞에서도 살펴 본 것처럼 農業과 商業에 있어서는 國公有化 作業이 어려워졌다.

그리하여 第2段階措置로서 個人農과 商工業人 등을 말살하고 이를 集團化하기 始作하였다.

즉 1954年부터 農村에서는 個人農을 完全히 廢止, 農業協同組合所有로 都市에서는 1953年부터 各種 協同組合을 創設하여 個人商工業 및 手工業者들을 義務적으로 加入시키어, 商工業 協同化를 이룩하므로써 58年末 當事業 總和報告에서 말한 것처럼 農業의 協同化를 完了하였다.

商工業의 社會主義的 개조가 完了되어, 北韓의 農村은 富農, 中農, 貧農의 區別이 없어지고 農民은 모두 協同農場員으로, 都市의 中小商工人과 手工業者는 國營企業체에서 從事하는 勞動者 또는 일부 事務員으로 되었다.

따라서 1958年 8月 以後부터 北韓住民들의 複雜한 階層構造는 3代階層으로 單純化되어, 72年 現在 勞動者 46%, 農民 35%, 事務員 19%로 構成되어 있다.

이렇게 農業, 商業, 工業에 있어서 集團化에 成功한 金日成은 第3段階 措置로서 60年代 初期부터 集團主義的 競爭運動을 통하여 勞動力 착취를 強行하였다.

즉 農業에 있어서는 60年 2月 農業의 生産性 낙후를 시정하고, 効果的인 監視와 檢閱을 위하여 소위 「청산리방법」을 強要하므로써 勞動力의 最大 動員을 目標로 하였고, 勞動의 基準 作業量의 활당을 통하여 農業을 事實上 雇傭農으로 전락시켰다.

工業에 있어서는 61年 12月 生産性を 높이기 위하여 이른바 「대안사업체제」를 제기로 支配人中心 體制에서 党的 集体的 指導體制로 轉換시키어

賃金 労働者에게 責任 生産制를 強要하므로서 党的 影響力이 더욱 強化되고, 技術化에 對한 党的 統制力이 한층 組織的으로 보강되었다.

이와 더불어 物質的 刺戟이 아닌 精神的 刺戟에 의한 手段으로서 "千里馬 旗手", "金日成勳章", "各種 英雄稱呼" 등 49種의 賞勳을 個人企業所 職場單位로 이를 實施하고 있지만 오늘의 北韓은 軍需産業 위주의 重工業 比重으로 分野別 不均衡이 노정되고 中, 小의 經濟援助 中斷으로 인한 資本技術 不足과 労働者의 生産意慾 저하가 示現되고 있다.

다음은 社會文化面에서의 變조과정을 살펴보면 1946年 土地改革과 産業의 國公有化를 實施한 金日成이와 병행하여 第1段階措置로서 家族制度를 破壞하기 始作했다. 즉 1947年 戶籍制度를 廢止 公民証으로 代치하여 血緣關係를 단절 시켰고, 北送僑胞와 越南家族은 分散 移住토록하여 이들 勢力의 組織化를 防止하였다.

幼兒는 家族으로부터 分離하여 託兒所와 幼稚園에 수용하여 集團主義 意識을 主入시키고, 母性的 勞動力을 最大한 갈취하여 父母와 子息간의 情을 金日成과 共産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代치 시키므로서 家族制度를 破壞하였다.

또한 女性에게는 勞動參加와 "民主女性同盟" 加入을 義務化하고 結婚까지도 党的 사전 許可를 받게 하는 등 女性의 脫家族化를 심화시켰고 私生活 마저 統制 監視하므로서 傳統的인 韓國의 家庭觀을 破壞하였음이다. 이렇게 家庭을 破壞하여 勞動과 思想僑胞의 基礎單位로 만들은 金日成은 第2段階 措置로서 全住民에 對한 集團的 監視와 體制를 強化하기 始作하였다.

즉 勞動黨과 職業同盟,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 등 各種 政黨 社會團體와 人民班會議, 세대주會議와 같은 小集團別 組織을 通하여 全住民을 2중

3중으로 組織化하여 組織的 思想統制 體制를 구축하였고, 58年에서 부터 3年間동안 黨集中 指導事業을 實施하여 反金日成 및 宗教 勢力을 彈压 하였다.

62年에서부터는 住民登錄事業을 實施하여 成分調査를 한 結果 金日成과 黨에 忠誠心이 強한 核心 階層이 21%, 一般勞働者나 農民으로 構成된 基本 階層이 28%, 그리고 過去地主, 資本家 宗教人, 越南家族등 反 革命 要素인 複雜한 群衆이 51%등으로 区分하여 全住民의 約 2/3를 各 階級으로 간주, 이들에 對한 彈压的 統制를 實施하였다.

뿐만 아니라 5호 담당제, 據住地 移轉과 旅行統制, 相互 批判會등을 實施하여 相互 監視體制를 이 역시 2중 3중으로 確立해 놓았다.

이러한 住民들의 組織化와 2중 3중의 監視體制下에 金日成은 '人民 代表者'을 通하여 勞動力을 갈취하고 있다.

즉 北韓은 社會主義化를 위한 급격한 制度的 改革에 따른 價值觀의 混亂, 이로 因한 階級意識의 強化問題등이 障壁으로 놓여 있었다.

이와같은 여러가지 난관을 한꺼번에 돌파하는 戰略으로서 共產主義 思想을 強化하는 반면 社會主義 建設을 위한 勞動力 動員의 手段으로서 '千里馬運動', '허리안켜기運動', 最近에는 '속도전'과 '忠誠速度' 라고 하는 것으로 全体住民을 혹사하기 始作 하였다.

그리고 1958年 3月1日 內閣 決定 18號에 依하여 學生들에게도 소위 '社會義務勞動制'를 適用, 大學生은 年 3個月, 中高等生은 年 2個月, 國民學生에게도 年 1個月半의 義務勞動을 強要하고 있다. 軍人 역시 黨군일체화라는 名目아래 勞動을 強要하고 있으며, 이미 軍隊生活을 마친者중, 對南敵化 後放要員으로 組織된 '軍事교도대'까지도 一般 住民과

마찬 가지로 혹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金日成은 思想教育을 強化하여 共產主義的인 人間으로 改造하고 있다. 즉 北傀憲法 2.4.11條 등 7個條項에서 全体人民의 思想統一과 共產主義的 새 人間形成등을 명문화 시키고 있고, 家庭, 學校, 社會等으로 区分, 制度的인 思想教育으로서 集團主義的이고 호전적인 人間으로 改造하고 있다.

思想教育의 內容을 살펴보면 從來에는 共產主義 教養을 주로 했지만 昨年부터는 共產主義 教養보다는 金日成 偶像化로 改編하여, 教科目的 7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金日成 研究」를 強化하고 「金日成 노작 연구」를 義務化 시키어, 全住民들에게 每日 2時間씩, 幹部에게는 교대로 年 6個月씩 思想教育을 實施하고 있다.

教育方法 역시 사고의 틀이 形成되지 않은 生後 30日以後의 幼兒期부터 託兒所에 수용하여 機械的인 반후학습을 시키고, 少年期부터 相互批判會등을 통한 集團的 方法으로 교화하고, 外國留學禁止와 一方的인 對南 歪曲宣傳 등으로 外部와 차단하는 일방, 날조된 金日成 유적을 巡禮하는 野營生活을 통한 모방과 대리학습으로 劃一的인 思想教育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도 思想武裝이 안된 一部層에 대해서는 強制勞動을 包含한 隔離수용을 하여 共產主義的인 人間改造를 斷行하고 있다.

金日成은 30年 동안 北韓社會의 變조과정을 통해서, 金日成 自身の 反對勢力, 個人의 自由企業, 信仰生活등을 完全히 말살해 버렸고, 순박한 人間性을 잔인하고 戰鬪的인 人間性으로, 家庭中心의 價值觀을 黨성중심의 價值觀으로 變조하였으며, 만능으로 통하는 金日成의 維一思想을 「金日成主義」라고 새로히 조작하였다.

이렇게 해서 金日成은 北韓 땅에서 權力, 思想, 所有權등을 完全히 独占

하여 金日成 1人独裁体制를 구축, 全住民을 完全 掌握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現在까지 北韓住民이 金日成을 偶像으로 열렬히 신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以上과 같은 繼統的인 共產主義的 人間形 改造作業을 통한 精神的 統制와 社會主義 地上樂園 建設이라는 허구적 目標로 向한 住民의 期待感 鼓吹 때문인 것으로 評價된다.

## 2. 北韓社會의 異質相

먼저 衣食住 에서의 이질상을 보면, 織物은 品貴, 高價, 저질의 狀態이다. 그래서 옷은 全住民이 制服化되어있어 男子는 人民服, 女子는 차마 저고리가 대부분이며, 옷을 購入할 때는 幹部級을 除外하고는 購入권을 使用하고 있다.

食糧은 配給制인데 18歲인 靑少年의 境遇, 우리는 대개 하루에 800「그램」정도이지만, 北韓의 境遇는 600「그램」 정도만을 配給하고 있는데 이것 마저도 감자, 고구마, 옥수수를 包含한 雜穀이 50% 混合되어 있다. 그리고 出張이나 친척을 訪問할때는 代金を 支払해야 함은 勿論이고 本人의 配給量에서 양권을 내야 한다.

住宅은 6.25敗戰으로 인해 破壞된 後 급조한 結果 現在는 組立式으로 規格化 되어 있으며, 階級에 따라서 1号에서 4号 住宅으로 나누어 지었다. 우리의 理事官級에 該當하는 사람이 4号住宅을 使用하는데 이 4号住宅 부터 변소가 달려 있다.

그리고 長次官級은 獨立住宅인 特別住宅을 使用하지만 이 역시 階級에 따라서 垆地와 建坪에 차이가 있다.

勞賃과 購買力程度를 보며는 勞動者의 平均勞賃은 1973年 現在 60원 (9,600 원정도), 教授는 160원 (25,600 원)이다.

勞動者의 勞賃을 物價에 比較해 보며는 우리는 月評均 30,000 원을 버는 勞動者의 勞賃으로 7,000 원 짜리 時計 4個를 살수 있지만 이 時計를 北韓에서는 200원 하는데 이것을 사려면 3-4個月의 賃金を 全部 보태야만 살수 있다. 洋服 역시 韓國의 勞動者의 境遇 30,000 원을 갖고 1벌을 맞출 수 있지만 이런 洋服을 北韓에서는 300원 하는데 이

것을 맞출려면 5個月의 賃金을 모아야만 살 수 있다.

이것을 양말로 換算해 보면 韓國의 勞動者는 30,000 원을 갖고  
200원짜리 양말 150족을 살수 있지만 北韓의 境遇 不過 4족뿐이 살  
수 없다.

言語面에 있어서도, 南北韓에는 이질화가 심화되어 있다. 즉 우리와  
전연 다른 뜻을 갖고 있는 用語는 우리가 使用하는 意味의 案内員을  
北韓에서는 접대부로 使用하고 있으며, 煽動을 合法的인 活動, 그리고 勞  
動階級은 指導階級을 意味하고 있다. 그리고 金日成이는 言語에 있어서  
革命性을 부여한다하여 言語를 統治의 手段으로 使用하고 있다. 즉 言  
語에 있어서의 政治的 造作을 보면, 「民族的 英雄」이니, 「어버이首領任」  
이니하는 用語를 造作하여 金日成偶像化에 使用하고 있으며, 「基本出身」  
이니, 「党的思想体系」이니하는 用語를 造作하여 共產主義思想으로 武装시  
키는 道具로 使用하고 있다. 經濟的 造作을 위해서도 「천삼뜨기運動」  
이니 作業 돌격대와 같은 用語를 造作하여 人間을 노예化 시키고 生産  
手段化 시키는데 使用하고 있다. 그리고 表現에 있어서도 「명군作業」  
을 「군 깡그리 죽이기 作戰에 떨쳐나섰다」로, 「옥수수추수」를 「강냉  
이 가을에 떨쳐 나섰다」로, 하는 식으로 표현케 하여, 人間의 性格을  
好戰的이고 급진적인 性格으로 만들어 놓았다.

風習面에 있어서도 우리韓國 古有의 명절인 구정이나, 秋夕을 말살하고,  
그대신 金日成生日을 명절로 하고 있으며, 結婚도 党的 사전許可를 얻어  
야하며, 父母의 干涉은 일절 禁止되어 있다. 이것을 어길때는 1年以下  
의 교화노동에 처하고 있다. 回甲은 「60이 靑春이요, 90回甲」이라해  
서 金日成은 60에 回甲 잔치를 해놓고서도 一般住民은 90歲까지 勞動力  
을 強要하고 있다.



제사일에는 제상을 차려 놓고 절하는 것이 없이 祖上의 행적을 家族끼리  
물여앉아 批判하는 날로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 古有의 民俗은 봉건잔  
재로 규정, 말살하여 버렸지마는 民俗탈춤은 階級鬪爭의 풍자극으로 만들  
었고 民俗놀이는 群衆體育으로 變質시켰다.

이와 같이 北韓은 30余年동안 폐쇄되고 변조된 社會를 形成하였다.  
즉 人間은 붉은 전사로, 家庭은 勞動單位로, 社會는 명령으로, 宗教는  
金日成崇拜로 변조하였다. 따라서 金日成은 南北對話로 因한 自由化요새  
의 도입과 자기체계의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南北對話를 기피  
한채, 社會發展에 있어서 韓國보다 落後한데 대하여 恐조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이와같은 事實을 上記할때 우리는 같은 民族으로서 北韓住民을 外部  
世界의 무지로부터 사상통제로부터, 組織的監視로 부터 出身成分에 따른  
출세기회의 제한으로 부터, 그리고 人民대사역에 依한 精神的 肉體的 苦  
痛으로부터 解放시켜 우리와 같은 社會에로의 동질화를 促進시켜야 할  
責任感이 더욱 절실하게 되는 것이다.

### 3. 東歐圈 「自由化」의 根本動因

「맑스·레닌」主義의 敎條性을 견지하면서 武力에 의한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實現과 「프로레타리아」 國際主義 路線을 취하면서 共產化를 推進했던 東歐諸國이 그 理念의 敎條性대로 社會制度를 유지해 왔는지 또는 이에 대한 어떠한 改革이 試圖되어 왔는 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東歐圈에 있어서의 「自由化」란 概念은 여러 가지로 把握되며, 이를 「資本主義化」내지 「自由民主主義化」의 概念으로 把握되기도 한다.

그러나 「自由化」란 概念은 「맑스·레닌이즘」에 입각했던 東歐 共產主義 社會制度에서 부수되는 自体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部分的 이완내지 部分的 體制變化로 인하여 體制上的 硬直性이 완화되는 것으로 把握하여 그 硬直性의 완화 程度에 초점을 맞추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東歐圈에서 「自由化」가 대두되게 된 動機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要因이 作用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첫째로는 東歐各國內의 對소 民族意識의 증진을 들 수 있다.

東歐諸國은 1815년부터 1918年 사이에 民族國家 形成이 試圖되었다.

대부분이 小數民族으로 構成되어 주변 強大國의 被侵地域으로 시달려 온 歷史的 背景은 一、二次 世界大戰을 겪는 過程에서 民族的 獨立 意志가 씩트는 기초가 되었다.

二次大戰後 「나치스」 治下에서 시달린 歷史的 經驗을 겪었다는 事實과 戰後 處理에 있어서의 소련의 막강한 영향력 行使에 따라서 東歐圈이 社會主義로 轉向할 수 있는 狀況이 達成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東歐諸國에 있어서의 近代 民主主義의 經驗 不足과 「프로레타리아」 階級의 미성숙 그리고 共產主義化 될 수 있는 社會的 基盤이 거의

결여되어 있었다는 要因에 따라서 소련의 主導에 의한 強壓的 共產化 過程을 밟지 않을 수 없는 狀況이었다.

「스타린」이 사망하였던 1953년까지의 東歐圈에 있어서의 共產化 過程은 철저히 소련의 一方的 영향하에서 政治的으로는 「스타린」式 1人 支配양식, 軍事的 面에, 있어서는 소련군에 의한 要職의 掌握 및 双務協定에 의거한, 軍 支配와 經濟的 面에서의 東歐諸國의 經濟的 實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軍需産業 위주의 重工業體制 強要라는 소련 支配體制로서 定立되어 나갔던 것이다.

「스타린」死後 소련 內에서의 單一獨재 支配양식에 대한 批判과 修正主義路線으로서의 平和共存政策의 채택은 동구국가의 대소관계에서의 政治的 自律性的 增大를 可能하게 해주었던 要因이 되었다. 이리하여 東歐諸國에 內在한 民族主義의 힘과 결부된 소위 民族 社會主義(National Socialism) 路線이 성숙되는 過程을 밝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經濟的 側面에서도 소련에 의한 自國의 利益 희생체제로부터 自國의 經濟的 特性에 맞는 諸般 改革이 시도되었으며 이러한 시도에 따라서 政治的 多中心化 傾向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東歐圈 自由化의 두번째 要因으로는 批判的 知的 文化的 성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50年代 중반기 대소의존일변도 關係로부터 民族的 社會主義 路線 채택으로의 變遷에 따라서 東歐諸國은 自國의 特性에 맞는 國家 發展을 시도하였고 이러한 過程에서 政治的 支配양식이 1人體制로부터 과두체제로 轉換되었다.

이에 따라서 各 部門의 專門家들이 새로히 政策決定에 대거 參加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스타린」의 「맑스·레닌」主義에 대한 獨占的

해석권을 批判하여 「맑스·레닌」主義에 대한 다각적이고도 다양한 해석이 대두되는 現象을 초래하게 되어 知識人의 体制批判意識을 배양하는데 決定的 役割을 하였다.

이러한 傾向의 사례로는 「,아담스프·코시크」등이 관료주의적이며, 機械적인 「맑스」思想을 극복하기 위하여 人間主義 回復을 指向하는 Neo Marxism 이라는 「맑스」思想에 대한 創造的 再해석이 전 동구 知識人에 파급된 事實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批判的 知的 文化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서 이는 住民들의 對 소내지 대독재정권에 대한 저항運動으로 파급되어 「헝가리」, 「체코」등에서의 住民暴動을 야기시켰으며 東歐社會의 自律權을 크게 增進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세번째로 들 수 있는 變化 動因은 經濟規模의 擴大, 複雜化에 따라서 社會主義 經濟体制의 모순이 심각화되어 종래의 中央集權的 計劃經濟体制의 改革 必要性이 대두된 점이다.

東歐各國은 社會主義 初期인 50年代에는 순조로운 成長이 可能했으나 어느정도 經濟規模가 擴大되자 社會主義 經濟体制上的 모순이 增大됨으로써 예외없이 經濟成長의 심각한 둔화現象에 直面하게 되었던 것이다.

經濟的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東歐各國은 종래의 中央集權的 國家計劃에 의한 經濟 運用 方式을 완화하여 地方分權的 經營관리制度를 擴大하고, 劃一的인 國家決定에 의한 公定價格制度로부터 西方式 市場 價格制度를 導入하고 있다.

이러한 經濟改革은 종래 黨이 代表하는 國家에 의한 經濟活動 主導에서 企業單位의 自律性 增大 및 人爲的 經濟의 運用으로부터 經濟의 自律的 運用이 보다 重要視 됨을 의미한다.

東歐 各國이 겪는 經濟的 침체로부터의 탈피를 위한 努力은 經濟改革이  
외에 西方과의 經濟協力 增大로서 그 돌파구를 摸索하고 있으며, 東歐  
諸國이 西方과의 交易이나 經濟協력을 增進시킴에 따라서 그들의 西方側  
의 合理的 思考方式에 接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圓滑한 對西方經濟協力  
關係의 維持를 위하여 보다 經濟改革을 強化해야할 必要性에 接하고 있  
다.

넷째로는 이러한 經濟的 變革에 수반되는 社會構造의 變化와 意識構造  
내지 文化양식의 變動 徵候가 나타나는 事實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階層構造의 側面에 있어서는 共產主義 理念에 투철한 黨員보다는  
專門家 유형 技術者들의 地位가 크게 向上되고 있으며, 이들의 思考  
方式이 보다 合理的이라는 點에서 意識構造의 變化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産業化의 進展 및 西方과의 빈번한 交流를 통하여 西方側  
價值「패턴」의 流入이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소비水準의 向上과 消費性向의 다양화로 인한 意識의 變質이 進  
行되고 있음이 지적될 수 있는 바, 오늘날 東歐共產主義 國家에서의  
靑少年들이 「재즈」音樂에 심취되거나, 政治的 無관심 경향이 현저하다는  
點에서 이러한 變化가 꽤 심각한 結果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把握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지적한 이러한 諸要因은 相互 複合的으로 東歐社會의 自由化를  
促進시켜온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으나, 東歐圈의 自由化에는 限界가 있  
음을 간과 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소련의 強壓的 軍事介入이나 「브레즈네프」에 의한 制限主權理論의

적용에 따라서 東歐 自由化 運動은 本質的인 面에서의 体制改革으로 發展되지 못한 事實에 비추어 그 自由化가 어느 程度까지 可能할 것인가가 問題로 되는 點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 4. 共產圈의 社会變動事例 比較

北韓社会를 他共産國家와 比較하여 보겠다. 즉 蘇聯은 1953年 「스타린」이 死亡하므로써 「비스타린」運動이 展開되어 教條主義的 1人支配體制는 政治的 多원주의화 傾向을 띠어 集團指導體制가 擡頭되었다.

그리고 權力構造도 「스타린」時代인 1952年에 「당성」대 「전문성」의 比率이 75:25%였지만 「스타린」이 죽고 「후르시초프」가 執權하였던 1961년에는 거꾸로 49:51%로 專門家 出身이 過半數를 차지하므로써 政策 수행에 있어서 教條主義的이었던 體制가 合理性과 自率性을 띄게 되었다.

經濟面에 있어서도 「후르시초프」가 執權하므로써 中央執權的 營利方式이 地方分權的 營利方式으로 轉換되었으며, 特히 「리베르만」方式을 採択하므로써 이윤, 賞與金 등 資本主義的 要素를 導入하였으며, 「코시킨」은 「콜호스의 集團農場에 있어서도 自主性, 獨立채산제와 이윤율을 導入하였다.

社会文化面에서도 靑少年의 政治社会團體인 KOMSOMOL (Soviet Communist Youth League)의 機能이 弱化되어 靑少年들의 共產主義的인 家族價值觀에 對한 갈등, 인간소외에 對한 反抗運動이 일어났으며 1920年 「블세비키」時代에 強壓하였던 宗教活動이 農村地方에서 復活되었음은 勿論, 「솔체니친」같은 知識人의 自由化 運動이 일어났고, 西歐式 音樂, 「체-즈」무용이 進入되었음은 우리들의 主目を 要하는 것이다.

東歐 共產國家에서도 1953年 「스타린」死亡以後 党的 實踐的 의지가 모든 真理의 基準이라고 하는 「党派性 理論」이 붕괴되었고 各國家의 特殊性에 알맞는 民族社會主義 路線이 擡頭되었다.

經濟面에서도 「코메콘」 經濟體制에서 國內經濟를 우선하는 經濟政策으로 開放化가 일어나 國際經濟協力을 促進케 되었으며, 特히 「유고」에 있어

서는 「콜호즈」의 集團農場이 社会的 自營 체제로 바뀌어지고 部分的 地方 制度의 復活에 따른 이윤제, 價格制度가 導入되었다.

社会面에 있어서도 知識人の 批判運動, 예컨대 「폴란드」의 「아담샤프」나 「체코」의 「코시크」와 같은 反体制的 政治文化가 일어났으며, 共產主義的 價值觀에 대한 青年文化의 갈등이 일어났음은 주지할 일이다.

中共 역시 「삼면홍기운동」이라 불리는 즉 工業에 있어서 대약진運動, 農業에서의 인민공사, 社会 動員에서의 集團動員이 1960年初에 失敗하므로서 經濟成長이 7年이나 後退하였으나 尤소기에 의한 經濟改革으로 個人所有, 個人農場, 商品市場 등 經濟改革 運動이 일어났다. 특히 70年以後에는 「自力更生廢鎖路線」을 拋棄하고 對西歐 改放化를 斷行하였다. 뿐만아니라 知識人の 思想改造를 斷行한 文化革命을 1956年以後 몇번이나 展開하였지만, 1974年에도 「비림비공運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역시, 儒敎思想 같은 專統的 文化가 아직도 잠재함을 역설적으로 證明해 주고 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蘇聯, 東歐, 中共과 같은 先進共產圈이 比較的 自本主義的 經濟要素를 導入하고 青年文化와 宗教活動이 擡頭되어 社会체부면에 改放化, 自由化가 擡頭된데 반하여, 北韓은 역으로 철저한 個人獨裁方式과 廢鎖的인 自力更生原理 敎수 그리고 暴力革命路線과 敎條主義的이고 強壓的인 統治方式을 進行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問題点이라고 指敎할 수 있다.



## 5. 北韓社會 變質展望

이러한 타공권과 北韓과의 社會變動過程을 比較할때 北韓社會의 變質을 다음과 같이 展望할 수 있다. 먼저 長期的 展望으로서 政治面을 보면 金日成 自身の 統治手段인 主体思想이 現實과 乖離되게 될때 結局 그 허구성인 노정되고, 또 現在의 最高權力層이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老朽化되어 있어 자연도태될 것이며, 權力構造에 예컨대 1974年 現在도 勞動黨 政治委員會 政務委員 및 候補委員에 이근모, 최재우, 정준기, 강성산 등의 專門家가 상향하는 趨勢에 있고, 특히 정무원에 홍성만, 계형순, 서관희, 임형구 등의 新人이 委員長으로 대거진출한것으로 보아 專門家 유형이 권력구조에 차지하는 比率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의 合理的, 自律的 역할중대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中共의 對西歐 開放化와 自力更生原則 拋棄는 教條主義的인 金日成 유일체제를 緩和시키고 政治的 廢鎖社會를 開放化시키는데 影響을 끼치어 結局 現實主義的이고 公利的인 統治方式이 擡頭될 것이다.

經濟面에 있어서도 技術과 資本의 한계성 수적으로 西方의 技術과 設備 導入이 불가피하고 輕工業 委員會 傘下에 紡織皮服工業部, 日用品工業부 등을 新設하므로써 產業構造의 變化가 進行되고 있다.

그리고 南北對話로 인한 부담감 認識으로 人民 奉仕委員會를 改設하였으며, 또 71年度에 始作된 6個年 經濟計劃에서 衣服, 縫製品, 加工食品 등 消費製 產業을 強調하므로써 物質的 刺戟에 의한 勞動의 產業性 向上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은 開放經濟體制에로의 轉換이 불가피하게 되고 合理的인 經營方式의 採択과 市場기구의 導入으로 消費產業이 發展됨에 따라서, 住民福祉

가 向上되어 새로운 精神的 價值觀의 추구가 일어날 것이다.  
사회면에 있어서도 北韓의 都市化 産業化가 進歩되고 있습니다. 즉 都市化의 比率이 1953年 18%에서 1965年 48%로 增加되었고, 技術專門家도 1960年 13萬名에서 1970年 50萬名으로 10年동안에 約 400%가 增加되었다.

뿐만아니라 1人당 GNP도 1970年 209 \$에서 1972年에 262 \$로 1973년에는 326 \$로 增加되었다. 이런점으로 보아 北韓의 社會構造는 産業社會의 共通文化現象이 濫頭되고, 技術, 專門家가 增加되어 自律性, 合理性, 부당성이 濫頭되므로서 人間소외에 대한 反抗運動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主体思想이나, 強制動員體制와 「퍼스나리티」의 革命化에 依한 社會構造의 경직성이 붕괴되고 社會의 활성화가 높아지므로서 결국 北韓은 「스타린」死亡以後 蘇聯이나 東歐, 共產圈과 같은 社會變動이 일어날 것이며, 이와같은 要人인 金日成의 教條主義的 體制 붕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長期的 측면에서 이야기 할 수 있지만, 問題는 短期的 으로 볼때 그렇지 않다는데 있다.

즉 政治面에서 보면 「主体思想」을 金日成 思想이라 부르게하고 「朝鮮 勞動黨」을 「金日成 黨」이라 公式 呼稱케 하고 있고, 또 族閥政治에 依한 權力安定 도모, 特히 오진우, 최현, 이용무와 같은 軍部 強硬派를 尊重하는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金日成이는 自己가 살아있는 동안에 「스타린」式 中央執權的 支配양식인 武力強硬政策을 強化하고 있다.

經濟面에서도 最近에 「속도전」, 「忠誠速度」, 「2중천리마」와 같은 동원정책을 強化하고 있고 6個年計劃을 1年 단축하여 地域生産 소주제를 強化하고, 軍需産業 위주의 중화학 工業基地를 擴張하고 있으며 經營管理 方式 역시 金日成이 1973年 9月 北韓 創建 25週年 紀念報告에서 말한것

처럼 中央執權式 經營管理 方式을 고수한다고 한 점으로 보아 自力更生 原則을 長期하에 開放化의 소지를 철저히 막고 있다. 社會面에서도 東, 西 海上과 非武裝地帶에서의 간헐적인 武力挑発 등으로 危機意識을 조장하고 住民들에게는 人民 대사역에 의한 勞動혹사로 精神的 煽動, 宣傳을 반복, 使用하여 共產主義的 人間形 주도를 強調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긴장감 조성에 의한 強壓的인 住民統合을 繼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北僞의 고민은 결국 經濟的 發展을 위해서는 廢鎖社會로 부터 開放社會로 轉換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社會構造的 矛盾을 내포하고 있다는 데 있고, 또 그렇게 되는 境遇에는 金日成의 유일체제가 붕괴된다는 데에 바로 北僞의 고민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數年間은 強壓的인 住民動員 政策과 理念 그리고 간헐적인 武力挑発을 恣行하여 廢鎖的인 經濟開發과 偶像化 政策을 同時에 추구하는 自力更生原則을 믿고 나갈것이 予想된다.

分斷이후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北韓住民의 思想이 北韓 共產主義者의 計劃下에 強要된 狀況에서 西方側으로부터 斷切된 환경아래서 意圖的 人爲的으로 수행되어 그 以前에는 生소하였던 共產主義式으로 急造되었으며 더구나 그것이 意圖的으로 改造되었다는 點에서, 어떠한 충격에 의하여 그것이 붕괴될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다.

즉 北韓社會가 西方側과의 접촉을 確大할 경우 外型上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共產主義思考方式은 급속히 變質될 可能性을 가지는 것이며, 아직껏 北韓住民이 西方側의 自由와 合理的 思考方式에 接해본 經驗이 없다는 點에서 尙래 그들이 西方側에 接하게 될 경우 그것이 北韓住民의 思考方式에 어떤 影響을 미칠 것인가는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判斷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특히 金日成 集團이 北韓이야말로 地上의 樂園이라고 宣傳해 온 바와는 正反對로 北韓의 生活水準이 너무나 비참한 程度이며, 한국 國民이 풍요로운 消費生活과 自由로운 社會生活을 영위해 나간다는 놀라운 事實에 접할 경우 그들이 속았다는 事實과 社會主義國家 建設의 崇高한 사명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 일으키게 되어, 그들의 共產主義的 思考方式도 서서히 變質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74年 現在 北韓에는 北送교포 約 9만 2,000名이 存在하는 바, 그들이 自由世界에서의 체험을 가졌다는 事實로부터 北韓内部에 自由世界와 北韓을 比較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춘 集團이 있다는 点에서 北韓社會의 西方側에 대한 開放 되었을 때의 思考方式 變質可能性과 함께 内部的인 그들의 思考方式 變質 可能性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 해방이전에 北韓에는 約 100만의 기독교인과 約 40만의 불교도인 및 約 170万에 이르는 天道敎人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共產主義者 集團에 의하여 北韓 内에서 信仰의 自由가 抑压된 以後에도 1967年 까지에도 北韓에서의 地下宗教運動이 있었던 事實을 포착할 수 있다는 点에서 根本적으로 人間의 精神的 面에 있어서의 人爲的 改造가 限界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不自然스러운 人間의 改造를 위한 조치에 따르는 反動의 可能性을 능히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北韓에서의 産業化와 都市化가 進展됨에 따라서 社會的 構造나 活動이 複雜하게 되고 各 分野의 專門家가 質的 量的 面에서 增大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不合理的 共產主義的 要素가 弱화되고 그 代身 合理的 思考가 全面的으로 대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관하여 「레이몽아롱」이나 「탈콧트 파슨스」등은 共產主義國家나 資本主義國家를 막론하고 産業化가 進展되면 産業社會의 共通文化的인 諸

現象이 일어난다고 主張하는 理論을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理論은 소련이나 東歐社會에서의 諸變化가 立証해 주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北韓住民의 思考方式내지 價值觀 變質의 잠재적 要因은 北韓에서 점차 問題로 대두되고 있는 政治權力 「엘리트」의 構造變化 및 社會主義的 經濟體制로부터 基因하는 모순을 除去하기 위한 努力이라든지 落後된 消費産業의 育成과 이에 따르는 消費生活의 向上, 南北對話의 進展에 따르는 南北接觸의 擴大 등 諸要因의 刺戟을 받아서 점차로 顕在化되는 계기가 마련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南北間의 民族的 同質性的 回復 可能性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主要한 要因은 同一民族이라는 歷史的 事實로부터 나오는 民族意識과 어떠한 體制下에서는 말살될 수 없는 家族主義 思考方式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民族的 同質性的 回復은 南北接觸의 擴大로 달성 可能할 것으로 보인다.

## 第八部 統一을 爲한 對備

1. 10月維新과 平和統一
2. 우리의 座標
3. 國土統一院의 設置經緯와 그 任務

## 1. 10月維新과 平和統一

韓半島의 周辺情勢는 우리의 安保와 平和統一에 直接, 間接으로 影響을 미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勢力再編成의 流動的인 狀況下에서는 強大 國間の 實利 追求競爭이 격화될수록 그 틈바구니에서 第三國인 中小國의 利益이 희생될 可能性이 커지고 또한 南北韓間의 勢力均衡이 깨져 戰爭이 再發하지 않는다는 確固한 保障도 없다. 어느 意味에서 今日的 韓半島 周辺情勢는 帝國主義列強이 角逐戰을 벌였던 旧韓末을 방불케 하거니와 제2차 대전 前과 같은 列強間의 勢力圈 다툼이 再現되는 前秦의 情勢를 연상케 한다. 이런 때 우리는 旧韓末과 같은 歷史的 恥辱을 되풀이 하지 않고, 또 戰爭再發로 인한 同族相殘의 民族的 悲劇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도 앞으로는 南北對話를 통한 平和統一을 뒷받침할 国力培養을 加速化하고 國民總和體制를 確固히 하며 밖으로는 情勢變化에 主体的, 能動的으로 對處하여 試練을 國運開拓을 위한 契機로 轉換시킬 自衛, 自助策을 강구 하여야 한다.

10月 維新은 激動하는 國際情勢에 능동적이고 彈力的으로 對應하고 南北對話를 통한 平和統一을 굳게 뒷받침하기 위해 國內體制를 먼저 改革 整備하여 우리의 国力을 組織化하고 国力培養을 加速化하려는 當面課業을 提示한 것이다.

다시말해서 오늘의 轉換期的 狀況속에서 内外의 試練을 극복하기 위하여 밖으로는 民族主体性を 드높여 國運을 自主적으로 開拓해 나가고 안으로는 우리의 歷史的 傳統과 文化土質에 알맞는 韓國的 民主主義를 土着化하여 國家發展과 번영을 促進시킴으로써 平和統一과 民族中興에 이바지할 것을 目的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10月維新은 國家生存權과 民族自決精神의 宣言이요 平和統一에 대한 舉族的 意志의 表明이며 國家의 安定과 發展을 위한 自主意識의 宣揚이고 民族中興의 劃期的 轉

機와 기만을 마련하려는 新秩序의 창조를 위한 努力이라 하겠다.

한편 10月維新은 종래의 冷戰的 憲法 體系를 平和的인 憲法體系로 轉換시킨데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維新憲法을 통하여 우리는 平和 統一意志를 憲法精神으로 再確認하였다. 維新憲法에서는 國民들의 統一意志를 효율적으로 규합 할수 있는 統一主体國民會議를 國民의 最高 主權受任 機關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大統領으로 하여금 平和統一의 誠實한 義務를 지도함으로써 統一努力을 적극화할 수 있는 憲法的 基礎를 마련하였다.

民族의 宿願인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達成하려는 것은 維新憲政의 가장 重要한 課題中の 하나이다. 朴大統領은 1972年 12月 大統領就任 辭에서 "維新秩序는 번영과 統一을 위한 새 秩序이며, 道義와 協同과 能率과 生産을 위한 새 秩序"라고 말하고 10月維新의 窮極的 目的은 "民族의 安定과 繁榮 그리고 祖國統一을 우리의 힘과 叡智로써 爭取하고 建設하는데 있다고 分明히 밝혔던 것이다. 한마디로 10月維新은 平和統一이라는 歴史的 大課業을 實現시키기 위해

- ① 南北對話를 積極적으로 推進하고
- ② 民族主体勢力의 結集力을 더욱 공고히 하며
- ③ 國際情勢變化에 能動的으로 対処하려는 準備이며, 平和統一을 갈구하는 民族的 念願의 具現인 것이다.



## 2. 우리의 座標

우리는 지금 하나의 時代에서 또하나의 새로운 時代로의 歷史的인 轉換期에 處하고 있다. 2次大戰後 오래도록 世界를 支配해온 冷戰體制는 이제 「아시아」에서도 서서히 幕을 내리고 그 대신 強大國間의 새로운 秩序가 우리 周邊에서 形成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轉換期에서 「이데올로기」의 鈍化, 軍事的 對決方式의 自己矛盾, 平和的 共存競爭, 生存과 繁榮을 위한 實利追求, 多元化和 多邊的 相互牽制體制에의 移行, 列強主義, 國家的 利己主義등이 새로운 時代의 特徵으로서 浮刻되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國際秩序의 變化속에서 韓國의 座標도 再定立되어야 할 때가 왔다. 즉 先進強大國들의 恩惠와 慈悲에의 全的인 依存狀態를 벗어나려는 自主的 努力의 一環으로서 多角外交를 展開하여 自助·自立의 經濟發展과 自主的 國家安保體制를 이룩하는데 創意的 努力을 發揮할 때가 온 것이다.

우리의 南北對話는 그와같은 國際情勢의 變化를 背景으로 우리 앞날의 運命에 대한 透徹한 民族 意識에 의해 推進되고 있다. 이對話는 앞으로 周邊情勢와의 깊은 關聯 속에서 發展될 것이요, 한편 國際情勢의 變化는 우리에게 民族意識·主體意識의 提高를 要求하고 있다. 이러한 主體意識 없이 우리가 스스로의 運命을 國際情勢의 흐름에 내맡겨 버린다면 우리는 또다시 歷史의 敗北者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가 72年부터 旗幟를 높이 든 10月維新은 바로 우리가 歷史의 敗北者가 아닌 勝利者가 되고 運命의 奴隸가 아닌 主人公이 되기 위한 것이다.

世界史를 통해 볼때 主體性을 確立하여 自主的으로 努力한 民族은 隆盛하고 主體性을 喪失한 民族은 衰亡하였다. 왜냐하면 主體性이 없는

民族은 스스로 歷史를 創造할 能力을 갖지 못하고 他民族에 隸屬하여  
가까스로 延命하는 歷史의 客体에 不過하였기 때문이다. 오늘날과 같이  
内外의 試鍊이 거셀 때일수록 우리는 大國主義의 犠牲이 되거나 大國便  
宜主義의 祭物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우리의 國家利益을 最大  
限으로 守護伸張해 나가기 위해 民族主体性을 確立하여 民族的 衿持와  
歷史的 使命 아래 民族의 活路를 스스로 開拓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健全한 民族主義와 健實한 自主精神이 原動力이 되어야 함은  
말할 必要도 없다.

「아시아」를 舞台로 한 이른바 列強体制은 今後 그 輪廓이 漸次 뚜  
렷해질 것이다. 韓半島는 美國·蘇聯·中共·日本 등 強大國들의 利害가  
集中되는 곳에 位置하고 있다. 따라서 中共·蘇聯의 對決이 激化되든,  
日本·中共의 關係改善이 더욱 促進되든 또는 日本·美國의 經濟的 競爭  
이 더욱 거칠어지든, 強大國間의 關係變化는 韓半島情勢에 곧 影響을 미  
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秩序形式이 우리  
의 國家利益과 安全保障, 그리고 南北對話에 미치는 影響에 留意하면서  
더욱 主体性을 높이고 国力을 培養해야 하는 重大한 課業을 맞을 態勢  
를 갖추어야 한다. 過去에 우리는 우리가 屬해 있던 陣營内部에서의  
紐帶를 굳게 維持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安全保障을 期하고 國家利益을  
保護伸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旧陣營의 体制이 이제 變質되어가고  
있고 나라마다 各나라의 利益을 追求하는데 血眼이 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時代感覺과 使命意識을 갖고 自主的으로 우리의 目標을  
定立하며 自主的으로 이를 達成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높은 主体性을 發揮하면서 거센 國際權力政治의 挑戰에 對処하  
고 南北對話를 積極 推進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国力을

가져야 함은 두말할 必要도 없다. 国力의 保障 없는 主体性은 砂上  
閣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国力의 가장 主要한 部分은 經濟力과 國防力  
이다. 우리는 北韓과의 對話·交流의 過程에서 온갖 分野에 걸쳐 優劣  
을 比較하게 될 것인 바, 그때 우리는 自由民主主義体制의 優越性을 誇  
示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우리는 自信을 保衛할 수 있는 能力을  
確保하지 못하고서는 北韓과의 對話를 自信있게 이끌어 나갈 수 없다.  
그러한 意味에서 우리는 国力의 劃期的이고 加速的인 培養을 위해 總力  
을 傾注해야 할 것이다.

國際情勢의 變化에 対処하고 南北對話를 準備하는데 우리는 많은 時間  
의 餘裕를 갖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時間과 싸우며 内部態勢를 強化  
해야 하고 制限된 資源으로 最大限의 힘을 發揮해야 한다. 이러한 時  
點에서 우리가 自由를 憑藉한 放縱과 民主主義를 憑藉한 非能率을 許容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우리는 國際權力政治의 激浪을  
헤쳐나가 우리의 利益과 安全을 圖謀하고 南北對話를 잘 推進하여 平和  
統一의 날을 短縮시키기 위해 10月維新의 諸課業을 短時日內에 成功的  
으로 達成해야 할 것이다.

### 3. 国土統一院의 設置經緯와 그任務

分斷된 祖国을 平和的으로 統一하며, 이 統一된 祖国에서 民族的 繁榮을 謳歌하려는 것은 우리 五千萬 同胞의 永속한 念願이며, 同時에 기필코 成就되어야만할 至上의 課業이다. 그렇기 때문에 祖国統一은 民族의 모든 念願을 반영하면서 民族의 窮極的인 生存樣式을 모색해야 하는 더없이 크고 重要한 問題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政府樹立以來 줄곧 政府는 統一 問題를 国策의 核心으로 다루어 왔던 것이다.

이와같은 統一問題의 重要성과 長久性에 비추어 政府內에 統一問題를 관장하는 常設 專担機構의 設置가 絶실히 要望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統一問題專担機構設置에 關한 論議는 만시지탄의 感이 없지 않아, 1963年 10月 大統領選舉에 出馬한 當時 民主共和党的 朴正熙 候補에 의해서 最初로 公式化되었다. 當時 朴正熙 大統領 候補는 統一問題의 重要성에 비추어 行政府內에 国土統一問題에 關한 專担機構를 設置할 것을 선거공약으로 제시 했었다. 以後 1964年 2月에는 国会一部議員들이 国会內에 "国土統一問題研究特別委員會"를 설치할 것을 제의하고, 外務部산하 外交研究院으로 하여금 統一研究業務를 專担케 하자는 提案이 대두되었었다. 이에 1964年 3月에는 一部国会議員들이 "순수한 官營機關으로 하는 "国土統一研究所"를 大統領 直屬下에 설치할 것을 提議하였다. 이와같은 国会內의 統一問題論議의 결과 1966年 7.14日 제 59회 国会 제 24次 本會議에서는 "国土統一研究特別委員會"를 構成하도록 하는 결의를 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된 国土統一研究特別委員會는 많은 討議와 數次의 公聽

회를 거쳐 1967年 2月 27日 統一問題 專担機關을 政府의 한 機構로 設置할 것을 골자로하는 案으로서 \* 統一白書를 採択하기에 이르렀다.

이 国会案을 根拠로 政府는 1968年 7月 24日 第 55回 國務會議 議의를 거쳐 国土統一院設置法律 第 2041号를 公布하였고 1969年 3月 1日 3.1獨立 運動 第 50周年을 期하여 드디어 国土統一院의 發足を 보게 되었다.

당시 朴正熙大統領은 国土統一院開院式 囑示를 通해서 앞으로 国土統一院은

- ① 統一政策의 目標 및 方向設定, 長·中·短期 統一政策 樹立
- ② 統一關係 資料의 集大成
- ③ 汎國民的, 超黨的 衆志結集 및 國論統一, 등과 같은 業務를 遂行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특히 祖國統一을 위한 國民力量集結母體로서 의 国土統一院設置 意義를 강조 하였다. 이와같이 統一問題에 對한 最高政策機關인 同時에, 超黨的이며 汎國民的 機構로 出發하게된 国土統一院의 設置意義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側面으로 要約될 수 있다.

첫째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国土統一院設置가 지니는 歷史的 意義이다 国土統一院의 設置는 統一에 대한 國民들의 強力한 念願과 意志에 부응하는 劃期的인 措置로 全國民으로 하여금 統一問題에 대하여 超黨的이고 汎國民的인 姿勢를 確立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同時에 自由民主韓國의 確固한 統一決意를 國際적으로 強力히 表現하였다는데 무엇보다도 큰 意義가 있었다.

둘째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實踐的인 側面에서 갖는 意義이다. 우리는 国土統一院의 설치를 계기로 統一에 對備하는 汎國民的 力量을 具

합함에 있어서 統一運動을 더욱 促進시키고 組織化하게 되었으며, 統一業務에 關聯된 제반문제에 관한 研究와 企劃, 調査, 弘報 活動을 積極化, 効率化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統一의 앞날을 내다보는 民族의 欲望과 意志에 따라 設立을 보게된 国土統一院은 中間 内外情勢의 急激한 變化와 平和的 統一을 위한 政府의 能動的이고도 積極的인 措置속에서 成長하여, 그 機構나 業務, 活動에 있어서 長足の 發展을 보았다. “그동안 国土統一院은 統一以前, 統一過程, 統一以後에 關한 諸般政策을 綜合的으로 調査研究하고 企劃하는 것을 基本業務로 하여 그와같은 基本任務를 遂行하기 위해서

① 統一問題와 關聯된 國內外情勢를 分析, 評價하고,

② 統一에 關聯된 諸般政策目標을 設定 調整하며,

③ 統一에 對備한 教育의 實施와 弘報 活動을 적극 전개하고,

④ 汎國民的 統一促進活動을 育成, 支援하는 機能을 담당해오고 있다

이와같은 中間의 活動과 業績에 비추어 불매 對話時代에 있어서 国土統一院의 任務와 使命은 더욱 重大한 意味를 지니고 있다. 앞으로도 国土統一院은 統一을 熱望하는 民族의 심장부로서 새로운 時代가 要求하는 새로운 役割이 촉망된다.

그리하여 国土統一院은 南北의 五千萬 民族에게 統一希望의 象徴이며, 統一意志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